

브라질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 3
주요인사 / 5
외교관계 / 11
주한주재 국기관 / 14
한국과의 주요이슈 / 14

II. 경제

경제정책 / 16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 21
주요 산업 동향 / 25
정보조사 자료원 / 37

III. 경제무역통계

거시경제 통계 / 43
무역통계 / 43
투자통계 / 54

IV. 출장가이드

기후 / 60
시차.근무시간 / 63
도량형 / 64
출입국.비자 / 65
환율.환전 / 70
물가정보 / 73
교통.통신 / 76
호텔.식당 / 81
관공서 관행 / 89
공휴일 / 90
여행시 유의사항 / 91
유용한 연락처 / 93
관광명소 / 95

V. 무역

1. 무역시스템의 이해
교역관련 주요법규 / 100
수입규제제도 / 101
관세제도 / 104
주요인증제도 / 106
지적재산권 / 111
소비자보호제도 / 114
교역관련 국가기관 / 116
2. 바이어 발굴
시장 특성 / 116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119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120
3. 협상과 계약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 122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 123
4. 통관 및 운송
통관절차 / 124
운송 / 126
5. 무역분쟁
분쟁해결 절차 / 131
유형별 분쟁사례 / 135

VI. 투자

1. 투자 동향

외국기업 투자동향 / 135

우리기업 투자동향 / 137

2. 법인설립

투자환경 / 138

투자인센티브 / 140

타당성조사 / 141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 144

입지선정 / 148

공장 설립 / 151

투자관련 정부기관 / 153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154

3. 사업관리

노무관리 / 157

조세제도 /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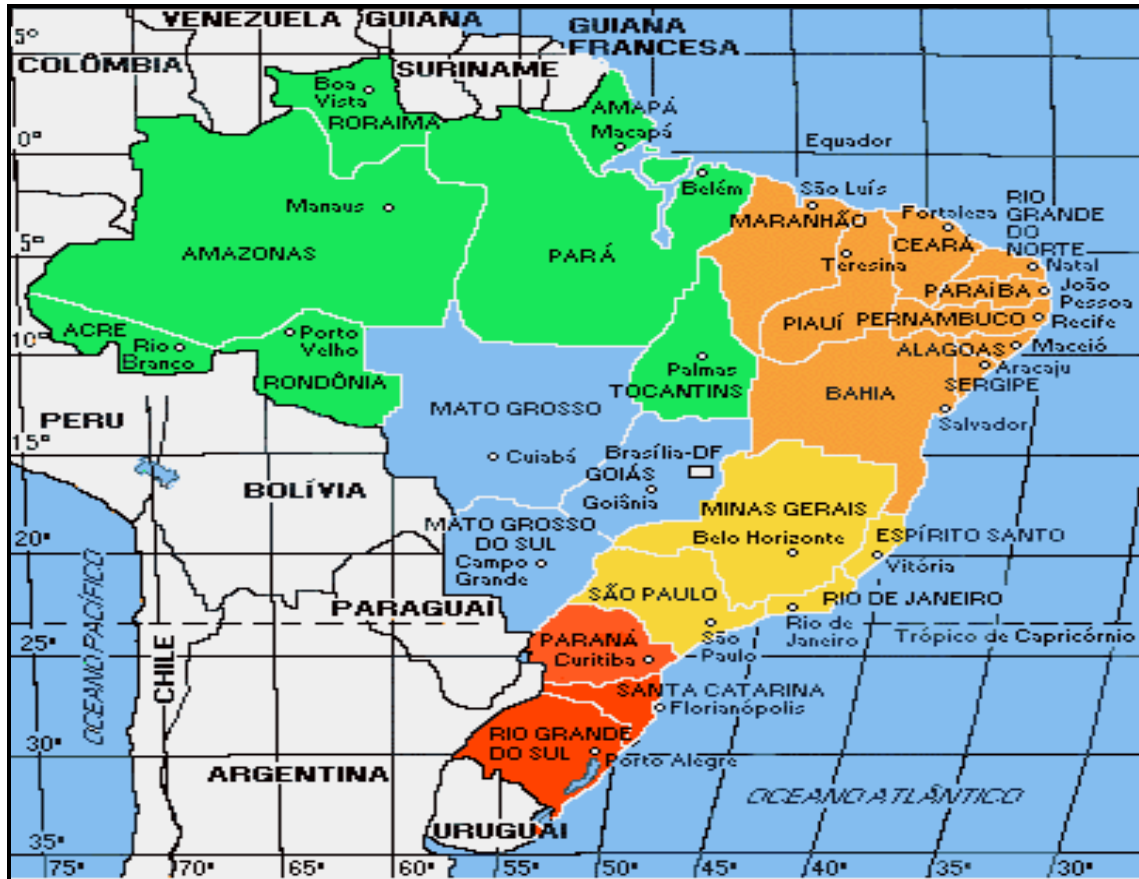
외환관리 / 162

4. 현지정착

이주정착 가이드 / 163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개요

1) 자연지리

- 국토면적: 8,511,965km²(세계 5위, 남미대륙의 47.7%)
- 인구: 1억 8,536만 명(2006년 1월 발표 기준)
- 시간대: GMT 보다 3시간 빠름(한국보다 12시간 늦음)
- 기후
 - 북부-열대, 중부-아열대, 남부-온대
 - 연평균 기온은 23~24℃로 4계절 구분이 뚜렷하지 않음

2) 행 정

- 공식국명
 - 브라질 연방공화국
 - 영어명: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 포르투갈어명: Republica Federativa do Brasil

- 수도: 브라질리아(Brasilia, 인구 204 만 명)
- 행정조직: 26 개 주, 1 연방 구, 5,563 개 지방자치 시

3) 정 치

-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4년, 중임 가능, 차기선거 2006년 10월 1일)
-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Luiz Inacio Lula da Silva)
- 의회형태: 양원제(상원: 81 석, 임기 8년; 하원: 513 석, 임기 4년)
- 주요정당: 노동자당(PT), 브라질사회민주당(PSDB), 자유전선당(PFL),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4) 사회·문화

- 인종
 - 백인(55%, 포르투갈계, 독일계, 이탈리아계, 스페인계, 폴란드계), 흑백혼혈(38%), 흑인(6%), 기타(1%, 일본계, 아랍계, 인디오)
- 언어: 포르투갈어
- 종교: 가톨릭
- 공휴일: 독립기념일(9월 7일)

5) 한국과의 관계

- 국교수립: 1959년 10월 31일
- 교민수: 약 50,000명(2006년 6월 기준)
- 협정체결
 - 문화협정(67년), 과학기술협력협정(91년), 이중과세방지협정(91년), 항공협정(95년), 관광협정(97년), 상용·투자·취재 복수사증 발급협정(97년), 사증면제 협정발효(2002.5.20)
 - 자원협력 M.O.U. 서명 (2004.11)

나. 경제개요

- 2006년 3월 IMF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브라질은 2005년 2.3%의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네덜란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치고 세계 11위 경제대국(GDP 7,960억 달러)으로 부상했다. 브라질의 경제규모는 자국화인 헤알(Real)화의 고평가에 힘입어 1995년 한때 세계 7위에 달하기도 했다. 브라질의 GDP 규모는 1997년 8,080억 달러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1999년 평가절하 이후 큰 폭으로 축소, 2002년에는 4,600억 달러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2-3년 사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
- 2005년 기준 브라질의 1인당 GDP는 4,321달러이다. 전 세계 187개국 중에서는 중간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72위이다. 브라질의 1인당 GDP는 경제위기 발발 직전인 1997년 약 5,000달러(세계 56위)에 달하기도 했다.

2.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가. 정치체제

브라질은 연방주의 및 3권 분립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통치권한을 분배하고 있으며 각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존재한다. 연방정부의 주요 권한은 외국과의 외교관계, 국제교역, 이민 정책수립, 국경확정, 국제기구 참여, 전쟁선포 및 강화, 국방, 계엄령 선포, 화폐 발행, 국가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수립, 각 주간의 통상관계 조정 등이다. 주정부는 연방헌법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체의 주 헌법을 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다루어야 할 노사관계, 환경, 조세문제 등은 연방법과 주법이 공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국가조직

브라질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3권이 분리되어 있다.

입법부(Poder Legislativo)는 의회(Parlamento)라고도 하며 연방 의회, 주 의회, 시 의회 등 3단계로 구성된다. 연방의회와 주 의회는 상하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임기나 선거 시기도 같다.

행정부의 연방정부, 주 정부, 시 정부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연방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며 임기는 4년으로 한번 중임이 가능하며 차기 대통령 선거는 2006년 10월 1일 예정이다. 브라질의 행정 조직은 1개의 연방 자치구에 26개 주와 5,560개 시로 구분된다. 각 주정부의 수장은 주지사로서 임기는 4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다.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브라질은 연방법과 주법이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단일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브라질의 사법제도는 3심 제이며 법원이 사법권을 갖는다. 법원은 연방 정부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주 정부의 최고법원인 고등법원, 각 주의 하위법원인 지방법원으로 분류된다.

브라질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특징

행정부	연방 정부	○ 대통령: 임기 4년으로 중임 가능; 국민에 의한 보통 및 직접선거로 선출,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할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위 2명에 대한 결선투표 실시, 다수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선출; 대통령의 피선거격은 35세 이상 브라질 출생의 브라질 국적자로서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은 자 ○ 부통령: 대통령이 질병, 부재, 사망, 사임, 탄핵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하여 국정 수행 ○ 각료회의: 대통령의 직무수행 자문 역할;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처의 장관으로 구성; 정부의 정책, 입법안 등 국정운영의 모든 사항에 대해 대통령과 협의
-----	----------	---

	주정부	○ 조직: 27개 주로 구성, 주지사 및 주정부 각료로 구성 ○ 주지사: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임기 4년, 중임 가능 ○ 주정부의 기능: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질서를 효율적으로 유지 및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 도모
입법부	연방의회	○ 상원 - 정원: 81명(각 주 및 연방자치구에서 3명씩 선출) - 피선거권: 35세 이상의 브라질 국적자 - 임기: 8년(4년마다 1/3 또는 2/3 교체) - 선거방식: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직접 및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 - 상원의장: Renan Calheiros (PMDB, 브라질민주운동당 소속) - 주요 기능: 외교정책 검토, 주요인사(대법관, 검찰총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은행총재, 대사 등) 임명 사전승인, 대통령의 전쟁선포에 대한 사전승인, 군대의 해외파견 승인, 조약의 비준 ○ 하원 - 정원: 513명 - 피선거권: 21세 이상의 브라질 국적자 - 임기: 4년 - 선거방식: 인구비례제도에 따라 비밀 및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 - 하원의장: Aldo Rebelo (PC do B, 브라질공산당 소속) - 주요 기능: 법률제안 등 입법 활동, 대통령의 전쟁선포 사전승인, 국가 예산의 심의 및 승인 - 정기회기: 연2회, 2.15~6.30, 8.1~12.15
	주의회	○ 임기: 상원 8년, 하원 4년 ○ 선거방식: 인구비례에 의한 비밀 및 직접선거 ○ 주요 기능: 주정부 운영에 관한 입법 활동, 대정부 질의, 토론, 정부 불신임, 국정 감사권, 예산안 승인 등
	대법원	○ 조직: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 ○ 대법관 피선거격: 3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브라질 출생 브라질 국적자 ○ 신분보장: 대법관은 상하양원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 기능: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분쟁 및 주정부 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사법부	고등법원 지방법원	○ 고등법원 - 주 단위의 최고 사법기관, 고등법원장과 고등법관으로 구성 - 기능 별로 노동, 선거 및 군사법원을 고등법원에서 별도 설치 - 고등법관은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직접 임명 - 고등법관은 총 33명으로 신분은 대법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장 ○ 지방법원 - 조직: 각 주 별로 설립 - 일반 민사 및 형사사건을 심의하며 치안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1구역 이상을 순회하며 사건 심의

3. 주요인사

부처명	이 름	소속 정당
농지개혁부	길레르미 까셀 (Guilherme Cassel)	브라질노동자당(PT)
농업부	호베르투 호드리게스(Roberto Rodrigues)	무소속
정무부	딜마 바나 호우세프(Dilma Vana Rousseff)	PT
통신부	엘리우 코스타(Helio Costa)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문화부	질베르투 질(Gilberto Gil)	녹색당(PV)
국방부	발디르 빠레스 (Waldir Pires)	PT
개발상공부 (이하 개발부)	루이스 페르난두 푸를란 (Luiz Fernando Furlan)	무소속
교육부	페르난두 하다드(Fernando Haddad)	PT
환경부	마리나 다 실바(Marina da Silva)	PT
재무부	기도 만테가 (Guido Mantega)	PT
외교부	셀소 아모링(Celso Amorim)	무소속
보건부	조세 아제노르 알바레스 다 실바 (Jose Agenor Alvares da Silva)	PMDB
법무부	마르시우 토마스 바스투스 (Marcio Thomas Bastos)	무소속
노동고용부	루이스 마린뉴(Luiz Marinho)	PT
광물에너지부	실라스 혼도 카발칸티 실바 (Silas Rondeau Cavalcanti Silva)	PMDB
국가통합부	페드로 브리토 도 나시멘토 (Pedro Brito do Nascimento)	PT
기획예산부	파울루 베르나르두(Paulo Bernardo)	PT
과학기술부	세르지우 헤젠지(Sergio Resende)	PSB
사회개발부	파트루스 아나니아스(Patrus Ananias)	PT
사회보장부	넬손 마샤두(Nelson Machado)	PT
체육부	오르란도 실바 주니오 (Orlando Silva Junior)	PSB
관광부	왈프리두 마리스 기아(Walfrido Mares Guia)	브라질노동당(PTB)
교통부	파울로 세르지오 올리베이라 파소스 (Paulo Sergio Oliveira Passos)	PT
도시개발부	마르씨오 포르테스 데 알메이다 (Marcio Fortes de Almeida)	진보당(PP)

자료원 : 브라질정부발표 2006.4.1.

주요 정치 인사(2006년 기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36대 대통령) - 초등학교 5학년 중퇴의 학력으로 브라질 공업 기술원 (SENAI) 금속선반과정 수료자 학력의 전부다. 금속 노동자로 일하던 1975년 금속노조위원장에 당선되고 1978년 재선 되면서 노조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다. 1980년에는 노동자당(PT)을 창당하고 1986년 연방하원 의원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정치가의 길을 걸었다. 1989년부터 시작해 무려 네 번째 도전 끝에 2002년 브라질 최초의 좌파 정권을 탄생 시켰다.
조세 알렝카르 (Jose Alencar)	(부통령이자 국방부 장관 겸직) - 브라질에서 가장 성공한 섬유업체 사장으로 뒤늦게 정계에 입문, 중도우파 정당인 자유당(PL)에 입당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룰라 후보가 기존의 급진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우익성향의 기업인 출신인 자유당(PL)의 당수를 러닝메이트로 영입, 부통령이 되었다.
안토니우 팔로시 (Antonio Palocci)	(재무장관) - 브라질 노동자당(PT)의 대표적인 온건파로 전직 의사 출신이다. Ribeirao Preto의 시장으로 재임시절에 공공 부문을 선도적으로 민영화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의 최측근인사로서 신중하면서도 실용주의적인 재정 정책운영으로 국제금융계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부정부패 스캔들로 2006.3.28 재무부장관직 퇴임하였다.
기도 만테가 (Guido Mantega)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총재) - 오랫동안 브라질 노동자당(PT)의 경제정책 브레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브라질에서 권위를 자랑하는 경영대학인 제툴리우바르가스 경영 대학(FGV)의 교수로서 룰라정부의 기획부 장관을 역임했다. 2004년 11월에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총재로 자리를 옮겼다. 안토니오 팔로시 전 재무부장관의 퇴임으로 현재 재무부장관직 임명을 받았다.
루이스 페르난두 푸를란 (Luiz Fdermando Furlan)	(개발부 장관) - 알렝카르 부통령과 마찬가지로 업계에서 경력을 쌓았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식품업체인 Sadia의 대표를 역임했다. 그의 폭넓은 업계 경험, 특히 수출부문에서 경험을 높이 사 개발부 장관에 임명 되었다.

셀수 아모림 (Celso Amorim)	- 브라질 외무부 장관으로 프랑쿠(Itamar Franco) 대통령 시절 외무장관을 역임했으며 룰라 정부의 각료로 임명되기 전에는 주 영국 브라질 대사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브라질 노동자당(PT)과 직접적인 정치적인연계는 없다. 룰라 정부에서 외무장관으로 선임된 배경에는 그의 이념적 성향보다는 외교적 경험을 높이 샀다는 해석이다.
조세 세하 (Jose Serra)	(상파울루 시장) -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브라질 민주 사회당(PSDB)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 결선투표에서 현 룰라대통령에게 패했다. 2004년 10월 실시된 상파울루 시장 선거에서 브라질노동자당(PT)의 후보를 제치고 시장에 선출되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 되었으나, 현재는 상파울루 주지사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엔리케 지 캄푸스 메이렐리스 (Henrique de Campos Meirelles)	(중앙은행 총재) - 다국적 금융회사인 FleetBoston사의 사장을 역임 했다. 2002년에는 브라질 민주사회당(PSDB)의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 targeting)를 지지해오고 있다. 2005년 7월 조세회피 혐의로 사법조사를 받기도 했다.
제랄도 알키민 (Geraldo Alckmin)	(상파울루 주지사직 퇴임(2006.3.30)) - 1972년 시의원으로서 정치를 시작하여 하의원을 거쳐 2001.3.6 상파울루 주지사 고 마리오 코바스(Mario Covas) 사망으로 부주지사직에서 주지사직을 위임 받았다.
클라우디우 렘보 (Claudio Lembo)	(상파울루 주지사(2006.3.30)) - 1993년 기획부 장관을 지냈으며 제랄도 알키민 주지사의 퇴임으로 인해 부지사직에서 주지사직을 위임 받았다.

□ 주요 정치세력

가. 정당

브라질에서는 정당정치 미발달, 인물중심주의적인 정당구조로 정당이 정책적 대안보다는 이해집단간의 이익추구에 급급한 사당으로 전락, 진정한 의회 정치가 실현되지 못했다. 장기간의 군사독재로 민주주의 정치 역사가 일천한데다 식민시대의 전통과 군사독재 문화의 잔재인 관료적 권위주의 통치관행이 혼재, 후진적 정치문화를 보였다.

1979년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양당제가 폐지되고 다당제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많은 정당이 생겨났으나 정당정치 전통이 없어 선거 때마다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거나 기존 정당이 이합집산, 2006년 6월 기준 20여 개의 군소정당이 난립하고 있다.

브라질의 주요 정당

정당명	창당연도	주요 성향
노동자당 (PT)	1979년	- 전 상파울루 금속노조위원장이자 현 대통령인 룰라가 창당, 현 집권 여당 - 좌파 성향 - 온건파와 강경파간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통일성 유지 - 2005년 이후 부정부패 스캔들로 당의 정체성 위기에 직면
브라질 사회민주당 (PSDB)	1988년	- 카르도주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에서 일부가 탈당해 창당 - 1995~2002년 집권 - 정치적 스펙트럼은 사회주의에서 진보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 1994년 집권 초기 온건 좌파 성향의 정책으로 인기 획득
브라질 민주운동당 (PMDB)	1979년	- 1979년 12월 군사정부의 정당개혁에 힘입어 구 야당인 브라질 민주운동(MDB)을 모체로 설립 - 통일된 이념 성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느슨한 형태의 지역연합 정당 지향 - 현재 PT와 여당연합 구성
자유전선당 (PFL)	1984년	- 군사정부 시기 여당이었던 ARENA의 후신으로 1985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창당 - 주요 지지층은 중상류층과 소규모 자영업자 - 브라질의 대표적인 우파 이해 대변

정당 별 의석분포를 살펴보면 2006년 3월 기준, 하원에서는 집권여당-브라질 노동자당 (PT)이 총 의석 513석 중 81석을 차지, 원내 2당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PT의 의석 수는 2002년 10월 총선 당시 91석에서 81석으로 10석이 줄어들었다. 상원에서는 현재 PT와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브라질 민주운동당(PMDB)이 총 의석 81석 중 22석을 차지해 원내 1당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원에서 PT는 원내 네 번째인 12석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정당 별 의석 분포

정당명	하원		상원	
	2002년 10월	2006년 3월	2002년 10월	2006년 3월
노동자당(PT)	91	81	14	12
자유전선당(PFL)	59	65	19	16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75	83	19	22
브라질사회민주당(PSDB)	70	57	11	15
진보당(PP)	49	49	0	0
자유당(PL)	26	35	3	3
브라질노동당(PTB)	26	42	3	4
브라질사회당(PSB)	22	28	3	2
민주노동당(PDT)	21	21	5	4
대중사회당(PPS)	15	15	1	0
브라질공산당(PCdoB)	12	12	1	1
국가질서재건당(Prona)	6	2	1	0
녹색당(PV)	5	7	0	0
사회기독교당(PSC)	1	6	0	0
사회주의·자유당(PSOL)	0	7	0	1
시혁신당(PMR)	0	2	0	0
기타	35	1	1	1
총계	513	513	81	81

자료원 : 브라질 상하양원 홈페이지, * 이후 의석현황 미발표

나. 재계

브라질의 대표적인 재계 조직으로는 전국경제인연합회(CNI, Confederação Nacional das Industrias)와 상파울루 경제인 연합회(FIESP, Federação das Industrias do Estado de São Paulo)를 들 수 있다. 이중에서도 브라질 경제의 중심지인 상파울루 경제인의 이해를 대변하는 FIESP는 브라질 정치·경제계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FIESP는 집권 이전부터 룰라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집권 이후 룰라 정부가 시장지향적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FIESP의 입장은 종전의 반대에서 지지 입장으로 선회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룰라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지만 FIESP는 세제 및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보다 건설적인 정책제안을 제시하며 현 정부와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FIESP는 현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의 근간인 고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 미디어

브라질에서 미디어와 TV는 여론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1985년 민주주의 도래 이후 언론매체는 1992년 콜로르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는 등 브라질 정치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문맹자가 많은 브라질에서 TV의 영향력은 대단히 큰데, 이중에서도 브라질 전역을 커버하는 글로부(Globo) TV의 위력은 매우 막강하다.

라. 노동세력

브라질에서는 노동인구의 약 20~25%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노조 가입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브라질 노동조합의 특징은 노동자조합, 기업가조합, 자유업조합의 3개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각 조합 별로 총연맹(전국단위의 산업별), 연맹(주 단위), 조합(도시, 농촌단위)의 3단계로 되어있다. 모두 노동부의 산하로 조직되어 있으며, 산업별 조합의 경우 기업 내 조합은 금지되어 있다. 1988년 10월 공포된 신 헌법에서는 노동자의 권리가 크게 확대되어 조합활동 및 단체행동권에 있어 종래보다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노동조합단체는 금융노조, 석유노조, 사법부직원 및 복지행정 노조가 가입한 총 노동자 연맹(CGT, General Confederation of Workers), 철강 노조 등 직능 별 노조가 가입한 통일 노동자 연맹(CUT, United Workers' Federation)으로 대별된다.

CGT는 브라질의 전통적인 정당인 브라질 민주운동당(PMDB)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CUT는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이다. 현 룰라 대통령이 1989년 이후 강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도 노조세력의 급신장에 기인했다.

집권여당인 노동자당의 강력한 지지세력이기도 한 CUT는 집권 이후 룰라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3년 가을에는 룰라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대규모 파업을 주도하기도 했으며, 2004년 중순에는 룰라 정부에 대해 사회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을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마. 무토지 농민운동 (MST, Movimento dos Trabalhadores Rurais Sem Terra)

브라질의 민주화 운동이 정점에 달했던 1984년 출범한 무토지 농민운동(MST)은 브라질에서 가장 부유한 20%가 토지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극심한 불평등을 타개하기 위해 무토지 농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MST는 토지점거라는 직접행동을 통해 약 100만 명의 농민들을 정착시켰고, 치열한 대정부 투쟁 끝에 토지개혁을 브라질의 핵심적인 정치적 의제로 부상시켰다. MST는 멕시코의 사빠띠스따, 아르헨티나의 피께테로 및 공장점거운동 등과 더불어 남미의 대표적인 시민운동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MST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룰라 후보를 지원했다. 룰라가 대통령이 되면 토지개혁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 룰라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그의 임기 말까지 40만 농가에 유휴 토지를 배분해 정착시키고 2004년까지 우선적으로 11만 5,000 농가를 정착시키기로 공약했다.

그러나 룰라 대통령의 공약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침에 따라 MST는 2004년 11월 토지를 침탈하는 등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2006년 6월에도 곳곳에서 MST의 약탈은 계속 되고 있다.

4. 외교관계

가. 브라질의 한국에 대한 정책 기초

- 전통적으로 브라질은 한국에 대해 우호정책을 취하여 왔으며, 한국의 경제발전상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양국간 보완적 산업구조에 기초한 실질협력 관계증진을 희망하고 있다.
- 한반도 평화정착과 궁극적 통일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 자세를 지지하고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최근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 및 2002년 월드컵 개최 등으로 브라질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크게 제고되었다. 특히 브라질은 한국의 교육과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상호 보완적 교류증대를 희망하고 있다.

나. 외교부문

- 한국과 브라질은 1959년 10월 31일 국교를 수립한 이래 공식적인 교류를 지속해오고 있다. 1990년 대 이전까지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는 한국의 이민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공식적인 브라질의 첫 이민은 1963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70년까지 총 여섯 차례의 공식 이민이 이루어졌다. 1970년 이후 단체이민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기술, 취업, 초청 이민 등으로 1976년 말까지 상당한 숫자의 브라질 이민이 이루어졌다.
- 그러나 1976년 이후로 브라질 정부의 이민법 강화로 인해 직접이민은 매년 대폭 줄어들었다. 최근 브라질은 기술 이민과 직계 초청 이민만을 허가하고 있다. 1980년 이후 인접국인 볼리비아, 칠레, 파라과이, 수리남 등의 교민들이 남미 최대상업 도시인 상파울루로 재 이주해 오고 있다.
- 2005년 통계에 의하면 브라질에 거주하는 총 한인이민자 수는 5만296명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인 4만 8,746명이 상파울루에 거주하고 있다. 중남미 전체 이민에서 브라질 이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46.9%(10만 7,162명)에 달한다.

다. 한국의 브라질 이민사 및 이민 현황

□ 브라질 이민사

- 1918 재일교포 4세대 6명, 일본인 신분으로 도착
- 1956 반공포로 50명, 인도를 거쳐 도착
- 1961 한백(브라질)협회 구성, 이민추진
- 1963.2 (제1차)
 - 한백 협회 주선, 103명(17세대92명, 독신자11명)도착, 지정농지 미라까두의 지권 불명확, 원주민의 반대, 농지 부적합 등으로 3개 지역 농장에 분산 정착
- 1963.11 (제2차)
 - 브라질 정부로부터 친권초청 허가 24세대 150명 도착
- 1964.5 (제3차)
 - 한백 진흥공 주선, Espirito Santo 주에 68세대 480명 도착, 농지가 황무지이며 영농조건 불비로 분산정착
- 1964.8 (제4차)
 - CAUSA 개인이민회사 주선 46세대 448명 도착, 토지분할 미비 및 입주시설 문제로 대다수 상파울루 정착
- 1965.4 (제5차)
 - 카톨릭 교단 주선 영농이민 허가 69세대 715명 도착, Parana주 지역 대도시로 분산
- 1970 (제6차)
 - 한국개발공사 주선 기술고용 이민 허가 210세대 1,200명 도착,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정착

□ 이민현황

- 이민 현황 : 5만 296명(2005)
- 지역별 현황
 - 상파울루(4만 8,746명), 리우그란지두술(157명), 브라질리아 (125명), 마투그로수두술(65명), 비토리아 (120명), 마나우스 (210명), 기타(200명)
- 직업별 구성
 - 자영업(73%), 회사원(2%), 전문직(2%), 학생(8%), 기타(15%)

(자료원 : 외교통상부)

- 1990년대 들어 양국 관계는 상호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경제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김영삼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을 시발로 양국 정상외 방문은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 1996년 9월 10~12일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브라질을 국빈 방문했다. 수교 이래 최초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양국이 경제발전, 민주화, 정치개혁추진 등에서 공통점이 많아 상호협력 가능성이 많음을 확인하고,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실질 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 한편 2001년 1월에는 카르도주 대통령이 브라질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다. 양국 대통령은 양국이 민주주의, 인권, 자유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면서 경제·통상을 비롯한 제반 분야에 걸친 실질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21세기 한·브라질 특별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은 IT/BT 산업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카르도주 대통령은 판문점을 방문하여 북한과의 수교를 발표했다.
- 노무현 대통령은 8년만인 2004년 11월 16~18일 브라질을 국빈 방문,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관계를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자원협력약정 체결 및 자원협력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브라질의 풍부한 천연 자원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한·MERCOSUR간 무역협정 체결 타당성 공동연구 합의를 통해 중남미 최대 시장인 MERCOSUR과 향후 FTA 체결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 한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5년 5월 23~26일간 한국을 국빈 방문 했다. 양국 정상은 5월 25일 정상회담을 갖고 2004년 11월 정상회담 시 합의사항의 이행을 점검하고 양국간 제반 현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강화 방안 및 향후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브라질 정상회담 성과

방문 시기	주요 성과
1996.9.10~12	○ 금융협력 - 우리은행의 브라질 내 지정개설에 원칙적인 합의 ○ 협정체결 - 관광협력협정 - 상용복수 비자면제협정 ○ 양국간 협의기구 설치 - 한·브라질21세기위원회 설립
2001.1.17~20	○ 양국간 원자력 기술을 이용한 의약품, 의학기술개발, 환경보호 기술개발, 원자력 기술을 응용한 식용품 개발 등의 협력을 위해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 양국간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사증면제 협정 체결 ○ 양국간 R&D 분야 관련기업/연구소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합의
2004.11.16~18	○ 자원·에너지협력 - 한·브라질 자원협력약정 체결

	- 한. 브라질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합의(장관급 회의) ○ 교역분야협력 - 한, MERCOSUR간 무역협정 체결 타당성 공동연구 - 중소기업진흥공단, 상파울루에 수출 인큐베이터 설치 - 수출입 은행, 브라질 은행(Banco do Brasil)과 1억 달러 규모의 장단기 수출신용 공여계약 체결 ○ IT분야협력 - 한. 브라질 IT협력센터 설치 합의 ○ 과학기술협력 - 한. 브라질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2005.5.23~26	○ 농업협력 - 양국 농업협력위원회 설립 양해각서 ○ 교역.투자협력 - KOTRA-브라질 무역투자진흥청(APEX)간 협력 양해각서 ○ 인적 교류 - 한. 브라질포럼 설립 합의 ○ 금융협력 - 수출입은행-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간 협력 양해 각서 - 한국산업은행 현지법인 “KDB 브라질” 설립 잠정 합의 ○ 과학기술협력 - 양국간 우선 협력 분야 선정 합의 - 생명공학. 원자력. 항공. 바이오매스(Biomass). 나노기술. 연료전지

자료원 : 외교통상부, 청와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5. 주한주재국기관

□ 브라질 대사관

- 소재지: 서울 종로구 팔판동 141 인갤러리 빌딩 4,5층
- 주요업무: 여권, 입국사증 발급
- 전화번호: 02-738-4970
- 대표팩스: 02-738-4974
- 업무시간: 월~금 09:00~13:00, 14:00~17:00

6.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국측 관심사항

1) 교역 현안

2006년 8월 현재, 브라질의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수입규제는 없는 상태이다.

2006년 6월까지 반덤핑 1건(나일론 6사)이 있었으나 6월 말로 규제가 종료되어 대한 수입규제 품목은 없다. 그러나 작년부터 중국산 제품의 범람으로 수입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으므로 상황을 예의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브라질의 대 한 수입규제 현황(2006년 8월 기준)

	반덤핑	반덤핑/상계조치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총계
브라질	-	-	-	-	-

자료: 한국무역협회

브라질의 대 한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2006년 8월 기준, 규제 종료됨)

품 목	HS 分類	규제내용			수출실적 (천 달러)		
		형태	근 거	규제개시	2002	2003	2004.8*
나일론 (브라질)	5401, 5402 일부	AD	반덤핑법 태광: 5.2% 기타: 52.2%	01. 6.28 => 규제 종료됨	8,901	6,498	4,701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출실적 최신자료 입수 불가

2) 투자 현안

우리 기업의 브라질 진출이 확대되면서 브라질 투자진출 시 요구하는 희망사항도 다양화되고 있다. 종전 브라질 진출 우리업체들이 브라질 정부측에 요구하는 사항은 △투자진출 시 요구되는 과다 현지부품 사용비율의 하향 조정 △브라질 진출 외국기업의 외환구좌 개설 불허 및 과실송금 제한 등 외환거래제한 완화 등이었다.

최근에 우리기업들이 브라질 정부측에 요구하는 사항은 △직접투자 시 추가적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 제도 법제화 △우회수입물량 제한 강화 △완제품 수입관세와 판매에 부과되는 세제 인하 등이다.

나. 브라질측 관심사항

1) 브라질산 농산물의 수입개방 촉구

현재 브라질측은 한국이 위생검역상의 이유로 수입을 허용치 않고 있는 브라질産 생과일, 가금류, 냉동·냉장육 등에 대한 수입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측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있기 때문에 당분간 브라질산 생육 수입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은 2004년 우리정부가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을 확정 고시함에 따라 2005년 6월 중순부터 개시되었다.

2)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

브라질측은 한국의 복잡한 통관절차 등 비관세 무역장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산물 분야에서의 높은 관세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3) 기타 주요 관심사항

이외에 브라질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은 △광산물, 알코올(에타놀) 등 1차 상품 및 항공기, 트럭, 기계류 등 공산품 수출 확대 △인프라분야 민관합동프로젝트(PPP) 참여 확대 △반도체, 선박 건조 등 첨단기술분야 투자 유치 △IT 등 한국 기술우위분야 협력 확대 등이다.

다. 양측 공통 관심사항: 한-MERCOSUR 무역협정 체결 공동연구

지난 2004 년 11 월 노무현 대통령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방문에서 한-MERCOSUR 무역협정 체결의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의 일환으로 제 1 차 공동연구 회의가 2005.5.4~5 양일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되었다. 1 차 회의에서 양측은 한-MERCOSUR 무역협정의 타당성을 연구할 공동연구 작업방식(TOR: Terms of Reference)에 합의했다.

한편 한-MERCOSUR 무역협정 제 2 차 공동연구 회의가 2005.8.17~18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2 차 회의에서 양측은 양측간 교역·투자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며, 무역협정의 영향분석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기에 앞서 상세한 연구방법론에 대하여 논의했다.

양측은 2 차 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무역협정의 영향분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2006 년 상반기까지 회의를 2 차례 더 개최한 후 양측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한- MERCOSUR 무역협정의 형태 및 공식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2006. 3 월 아르헨티나에서 3 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II. 경제

7. 경제정책

가. 장기 경제발전계획

브라질에는 2006년 기준 공식적인 형태의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은 없으나 1990년대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다 개년 계획(Plano Plurianual, PPA)이 이를 대신해오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다 개년 계획은 포괄적 형태의 국가발전 계획이라기 보다는 군사정부 시기 실시된 다 개년 투자예산 계획(Plano)의 확대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

브라질은 1988년 신 헌법 제정 과정에서 기존의 국가발전계획(PND) 형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PPA를 제정, 신 헌법 165조에 명시하였다. 다 개년 계획법은 정부의 예산지출 및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 가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출을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방향, 목적 및 목표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각 신 정부는 출범 첫째 PPA를 작성, 임기 2년째부터 이를 실행하며 PPA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988년 PPA법 제정 이후 현재(2006년 기준) 룰라 정부이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먼저 1차 PPA는 1991~95년, 2차 PPA는 1996~99년, 제3차 PPA는 2000~2003년 기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2003년 출범한 룰라 정부도 제4차 다 개년 계획(2004~2007)을 수립해 실시해오고 있다. 제4차 PPA는 “모두를 위한 브라질(Plano Brasil para Todos)”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4차 PPA의 방향은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통합 및 소득집중 완화, 환경친화적 경제성장, 대중소비시장, 투자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한 지역간 불평등 개선,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한 대외 취약성 개선, 시민권 및 민주주의 강화 등 네 가지로 대별된다.

제4차 PPA의 분야 별 우선순위 목표를 살펴보면 먼저 사회분야의 경우 교육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정부는 먼저 7~14세 아동의 100% 취학을 통해 기초교육을 완성하고 2007년까지

1,630만 명에 달하는 문맹자를 완전히 퇴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 분야의 대표적인 목표는 유아사망률을 2005년 1,000명당 26명에서 2007년에는 24명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농지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족영농 강화를 위해 각종 기술 및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농촌지역 정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생산 및 산업분야의 우선순위 목표와 관련, 먼저 과학기술 분야의 우선 목표는 박사 학위 취득자 확대, 과학기술 논문 생산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IT 분야의 경우 소프트웨어 수출을 2007년 2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 수도 2006년 2,200만 명에서 2007년에는 3,700만 명으로 확대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community call center를 6,000개 건설할 계획이다. 농 목축 부문의 경우 브라질 전역에서 구제역을 100% 근절, 쇠고기 수출을 2005년 말 기준 129만 톤에서 2007년에는 30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곡물 생산도 2005년 말 기준 1억 1,300만 톤에서 2007년에는 1억 5,000만 톤으로 증대시킬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 지역 생산체제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을 2007년에는 2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경제 인프라 분야는 브라질 정부가 제4차 경제발전계획에서 역점을 주고 있는 분야의 하나이다. 인프라 개발은 석유가스, 전력, 수송, 수자원 등 크게 4개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먼저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석유가스 부문의 경우 2006년까지 석유생산을 자급 자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석유생산을 2006년 1일 168만 배럴에서 2007년에는 1일 220만 배럴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다음으로 전력분야의 경우 우선 목표는 전력 생산 및 송전을 확대하고, 특히 농촌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보편화한다는 데 맞추어졌다. 세 번째로 수송 분야의 경우 2007년까지 연방 도로망의 75%를 복구해 수송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상프란시스코 강 유역을 적극 개발하여 인근 지역의 식수 및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해 이 지역 발전의 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경제 인프라 분야의 우선순위 목표

	내용	2007년 목표
전력	전력 생산 및 송전 확대, 농촌지역에 전력공급 보편화	
	전력생산(수력, 화력, 풍력) 확대	14,085 MW
	송전망 확대	12,425km
	농촌지역 전력공급 보편화	170만 가정
석유 가스	2006년 석유생산 자급자족	
	석유 생산 확대	일일 220만 배럴
	석유정제 능력 확대	일일 185만 배럴
	가스수송망 확대	2,479 km
	可用 가스	일일 3,450만 m3
수송	연방도로망의 75% 복구	
	도로 복구 및 유지	43,000 km
	도로 건설	5,500 km
	철도 건설	2,400 km
	수로 건설	10,000 km
	항만 화물 처리 능력 확대	일일 2억 톤
수자원	상프란시스코 강(Rio Sao Fransico) 유역 활성화 및 통합	
	200개 준건조 지역 주민에 식용수 공급	혜택인원: 370만 명
	2,000km의 수로를 통해 수자원 저장 및 공급	저장규모: 50억 m3
	관개수로 확대	농지의 83%

나. 주요 경제정책

1) 각종 개혁 입법 추진

2003년 출범한 룰라 정부는 브라질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제 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농지개혁 등 4대 개혁을 야심 차게 추진했다. 집권 초기 신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난항이 예상되었던 연금개혁과 세제개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 연금 개혁과 세제 개혁의 주요 내용

○ 연금 개혁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연금수령의 상한선 통일. 향후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신규 공공·민간부문 노동자는 月 최고 2,400헤알의 연금을 받게 됨.
- 퇴직연령 상향 조정. 남자의 경우 종전 53세에서 60세로, 여자의 경우 이전 48세에서 55세로 퇴직연령이 연장.
- 연방정부 및 주정부 공무원의 임금 상한선 설정. 연방공무원의 임금상한선은 현재 대법원 법관의 월 임금인 1만 7,300헤알로 설정. 주 정부 법관의 경우, 월 임금 상한선은 연방대법관 임금의 90.25%로 제한.
- 사회보장세 인상. 현재 공공·민간부문 노동자의 사회보장세를 5~7%에서 11%로 인상.

○ 세제 개혁

- 세수기반 확보를 통해 기초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키 위해 논란의 여지가 많은 금융 거래세(CPMF)를 2007년까지 연장
- 주정부간 세제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현재 27개 주마다 상이한 유통세율을 5개 세율로 조정
- 소득세와 공업제품세(IPI)를 통해 새로운 연방기금을 조성, 저개발지역인 북부, 동북부 및 중서부 주를 지원. 연방연료소비세(CIDE)의 25%는 주정부 및 시정부에 이전
- 수출부문 경쟁력 촉진을 위해 수출상품에 대한 세금 면제. 세금면제로 인해 손실은 공업 제품세와 수입세를 통해 조성

2004년에 브라질 정부의 경제 개혁은 파산법, 혁신법, 사법개혁, 민관합동 인프라 투자 촉진법(PPP) 제정 등 거시 개혁보다는 미시 개혁에 치중되었다.

집권 중반기로 들어선 룰라 정부의 개혁 정책은 그간 지방 선거 일정 등 정치적 요인에 의해 기피해 왔던 노동개혁, 농지개혁, 정치개혁 등 거시 개혁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2005년 초부터 불거진 정치 스캔들은 2006년 현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정치적 위기로 각종 개혁 입법 추진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2) 민관 합동 인프라 투자 촉진법 (PPP) 추진

브라질 정부는 인프라 개발이 브라질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절감하고 인프라 부문에 대한 민간 자본의 투자 유치를 위해 민관 합동 인프라 투자촉진법(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을 2004년 12월 제정했다. 여기서 PPP란 단순히 공공재 성격인 인프라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프로젝트에 민간의 자본과 창의, 경영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PPP는 위험부담, 자금조달 측면에서 기존 민자 유치 모델과는 달리 정부와 민간 참여자의 상호 협력이 중요한 요소이다.

PPP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공공 인프라 사업에 대해 민간 부문에게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PPP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은 적어도 사업비의 20%를 조달해야 하며 최장 계약 기간은 35년이다. 또한 공공 사업자, 즉 정부의 의무 불이행(디폴트)에 따른 피해를 보증하기 위해 PPP보증기금(FGP)을 설립했다.

주요 PPP 사업 (2006년 8월 기준)

(환율: 1달러=2.14 헤알)

- 지하철 4호선 공사
 - 발주처: 상파울루 주정부
 - 내용: Luz역-Vila Sonia역을 연결하는 총 12.6km 거리의 지하철역 공사 및 차량 공급
 - 규모: 30억 헤알
 - 진행단계: 입찰 과정 진행 중임
- 살바도르 오수 처리시설 공사
 - 발주처: 바이아 주정부
 - 내용: 살바도르 오수 지하 처리시설 공사로 총 공사 거리가 5.1km임.
 - 규모: 2억6,000만 헤알
 - 진행단계: 입찰 관련 설명회 실시 후 입찰 공고가 곧 발표될 예정임.
- MG-050 고속도로 건설
 - 발주처: 미나스 제라이스 주정부
 - 내용: 벨로 오리존테 시와 상파울루 시를 연결하는 MG-050 고속도로 확충공사
 - 규모: 6억5,000만 헤알
 - 진행단계: 입찰 공고 후 진행
- 알토 티에테 지역 수질 관리 프로젝트
 - 발주처: 상파울루 주정부
 - 내용: 상파울루 주 알토 티에테 지역 수질 관리 시설 확충 공사
 - 규모: 3억3000만 헤알
 - 진행단계: 설명회 실시됨. 입찰 공고 초안 발표
- 팔료사 지역 교도소 건설
 - 발주처: 산타 카타리나 주정부
 - 내용: 산타 카타리나 주 팔료사 지역 교도소 시설(수감자 수 1200명) 확충 공사 및 운영
 - 규모: 7000만 헤알
 - 진행단계: 입찰 공고 초안 완료. 곧 공청회가 열릴 예정임.
- 리오 클라로 지역 오수처리 시설 공사
 - 발주처: 리오 클라로 시정부
 - 내용: 상파울루 주 소속 리오 클라로 시 오수처리 시설 확충 공사
 - 규모: 1억4,100만 헤알
 - 진행단계: 입찰 공고 초안 관련 공청회가 곧 열릴 예정임.

- SC -280 고속도로 공사
 - 발주처: 산타 카타리나 주정부
 - 내용: SC -280 고속도로 구간 확대 공사로 BR-101 과 상프란시스코항을 연결하는 도로 공사
 - 규모: 2억 5000만 헤알
 - 진행단계: 프로젝트 세부 사항이 완료되었으며 곧 설명회가 있을 예정임.
- 수출 고속도로 건설
 - 발주처: 상파울루 주정부
 - 내용: 도로 및 항만 시설을 보완 확충하여 캄피나스, 발레 도 파라이라, 상세바스티앙 지역을 연결하는 수출 고속도로 건설
 - 규모: 13억 헤알
 - 진행단계: 프로젝트 컨설팅 작업 중
- 공항-도심 연결 고속 철로 건설
 - 발주처: 상파울루 주정부
 - 내용: 총 길이 31km, 과룰류스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고속 철로 건설
 - 규모: 14억 헤알
 - 진행단계: 프로젝트 컨설팅 작업 중
- 전자 인증 시스템
 - 발주처: 상파울루 주 정부
 - 내용: 정부가 발급하는 전자 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 인증 시스템 개발
 - 규모: 4억9200만 헤알
 - 진행단계: 프로젝트 컨설팅 작업 중
- 캄피나스 북서부 지역 대중 교통 시스템
 - 발주처: 상파울루 주 정부
 - 내용: 캄피나스 시 근교 7개 도시를 연결하는 대중 교통 시스템 확보 및 6개의 버스 터미널과 7개의 환승역 건설 공사
 - 규모: 2억6000만 헤알
 - 진행 단계: 프로젝트 컨설팅 작업 중
- 이비라뿌에라 공원 시설 확충 공사
 - 발주 처: 상파울루 주정부
 - 내용: 상파울루 시에 위치한 이비라뿌에라 공원 내 체육관 시설 건설 공사
 - 규모: 9800만 헤알
 - 진행 단계: 프로젝트 컨설팅 작업 중
- 쓰레기 매립지 공사
 - 발주 처: 리오 그란데 도 술 주 정부
 - 내용: 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석탄 찌꺼기 처리를 위한 매립지 건설 공사
 - 규모: 2000만 헤알
 - 진행 단계: 프로젝트 컨설팅 작업 중. 컨설팅 업체 선발됨.

- 교도소 시설 확충 공사
 - 발주처: 미나스 제라이스 주 정부
 - 내용: 미나스 제라이스 지역 내 3000 여 개의 교도소 시설 확충 공사 및 운영 시스템 개발
 - 규모: N/A
 - 진행 단계: 프로젝트 컨설팅 작업 중
- 교도소 시설 확충 공사
 - 발주처: 바이아 주 정부
 - 내용: 바이아 지역 내 3개 교도소 시설 확충 공사
 - 규모: 6000만 헤알
 - 진행 단계: 입찰 공고 실시됨.

8.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브라질 경제의 특징

1) 주기적 불안정이 계속되는 경제

지난 20년간 브라질 경제는 짧은 경기회복과 긴 경기 침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성향이 강했다. 이 같은 브라질 경제의 주기적 특성을 놓고 ‘롤러코스터 경제’ 또는 ‘닭의 날개짓’ (Chicken Flight, 포르투갈어로는 Voo de Galinha)이라고 부른다.

브라질 경제가 주기적인 불안정을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거시 경제 측면에서는 주로 환율, 통화, 재정 등 3가지 변수의 불균형에 따른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브라질 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물가를 인위적으로 동결시키거나 자국화를 달러화에 고정시키는 등 정통 경제정책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취해왔다.

또한 정치적 인기(populism)를 의식한 방만한 재정 운영은 공공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했다. 이같이 시장경제에 반하는 충격요법을 사용한 결과 브라질 경제는 불안정하고 성장과 침체를 반복하는 주기적인 경향을 보여왔다.

2) 계층간 및 지역간 소득불평등 심각: 벨린디아(Belindia)

브라질은 세계에서 소득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다. 지난해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HDR)에 따르면 브라질은 세계에서 8번째로 소득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평등 정도는 지니 계수를 기준으로 평가되는데, 지난 2003년의 경우 브라질의 지니 계수는 0.593을 기록, 177개 비교 대상국 중 8위를 기록했다.

브라질보다 소득 불평등이 심한 국가는 중남미 지역의 과테말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프리카 국가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소득자 10%가 브라질 전체 국부의 46.9%를 갖고 있는데 반해, 하위 소득자 10%는 0.7%만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소득불평등은 브라질의 악명 높은 폭력과 범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지난 2002년에만 폭력사건 관련 비용으로 130억 달러가 지출되었다. 폭력사건 및 범죄로 연간 100억 달러의 잠재적 관광소득을 잃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지역간·계층간 심각한 소득 불균형을 빚대어 일부 학자들은 브라질을 벨린디아(남부 지역의 소득 수준은 선진국인 벨기에 수준 + 동북부 지역의 소득 수준은 인도 수준)라 칭하기도 한다.

3) 브라질 경제성장의 장애요인: 브라질 코스트

브라질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제약요인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브라질 코스트란 일반적으로 브라질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 비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일컫는다. 복잡한 법 체계, 높은 세금과 금리, 관료주의와 인프라 시설 미비 등이 브라질 코스트의 주 요인이다. 즉 브라질의 경제 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모든 부정적 요인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브라질 코스트의 주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높은 세금부담이다. 브라질 기업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세금부담을 지목하고 있다. 기업들이 지적하는 브라질 조세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금이 복잡하고 종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브라질 조세제도의 문제점은 브라질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설문에서도 확인되었다. 지난해 2월 브라질 내 197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브라질에 진출하거나 투자할 때 감수해야 하는 이른바 브라질 코스트 가운데 관료주의와 세금 문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인프라 시설이 낙후돼 있다는 점이다. 브라질의 인프라 시설은 지난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장기 발전계획 부재와 투자 부족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1년에 브라질은 인프라 개발을 등한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2001년 초부터 심각한 전력난으로 브라질 경제는 커다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에서 물류비용은 제품의 생산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현재 브라질의 물류 비용은 OECD 국가의 거의 2배에 달한다.

세 번째로 뿌리깊은 관료주의에 따른 정부의 비효율성이다. 브라질은 장기간의 군사독재로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하다. 게다가 식민시대의 전통과 군사독재 문화의 잔재인 관료적 권위주의 통치 관행이 혼재해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하며 정부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치권과 관료의 부패를 빚대어 브라질에서는 “낮에는 정치가와 관료들이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브라질은 그들이 잠자는 밤에만 성장 한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만연하고 있기도 하다.

네 번째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다. 현재 브라질의 노동법은 1940년대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권의 노동법을 모태로 하고 있어 시대 상황에 크게 뒤처져 있으며, 매우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이러한 경직되고 복잡한 노동법은 결국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정규직 노동자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다. 브라질 노동법의 낙후성은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2003년 World Bank에 따르면 브라질은 고용의 경직성을 규정하는 4대 변수, 즉 고용의 유연성, 고용 조건, 해고의 유연성, 노동법 가운데 고용 조건을 제외한 3가지 변수가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국가로 평가되었다.

이 외에도 높은 금리, 자본시장의 발달 미숙 등에 따라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브라질 코스트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4) 이중적인 산업구조

브라질은 항공, 우주과학 등 최첨단 분야의 과학기술은 세계 정상급 수준인데 반해 가전 제품을 비롯한 일반 제품 생산을 위한 실용기술은 크게 낙후돼 있는 매우 이중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브라질은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비교적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브라질은 축산업, 광업, 철강, 우주항공, 수송기기, 식품, 섬유, 신발산업 등에서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브라질의 우주항공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에 와있다. 브라질은 오랜 기술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4대 항공기 제조국가로 이미 발돋움한 상태다. 브라질은 110인승 이하 중소형 여객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이 주요 고객이다. 항공기는 브라질의 최대 수출품으로 자리잡았으며, 지금까지 6,000대 이상 판매되어 전 세계 58개국 영공을 누비고 있다. 브라질은 이미 1980년대 우주로켓을 자체 설계, 발사에 성공하는 등 우주항공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 일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높은 우주항공 기술을 인정받아, 브라질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우주정거장(ISS) 사업에 개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3월 29일에는 사상 최초로 국제우주정거장에 자국 우주인을 보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향후 브라질의 첨단기술 발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2003년 조지아 기술연구소는 브릭스(BRICs) 4개국 가운데 브라질이 러시아와 중국을 제치고 인도 다음의 기술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브라질은 또한 과학기술 학문 분야별로 고르게 양질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브라질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농업 부문과 생명공학 부문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급인력을 양산하고 있다.

나. 경제발전 과정: 20세기 경제발전 역사

1) 수입대체 산업화 태동으로 공업화 개시

1930년대 이전까지 브라질 경제는 광대한 영토와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커피, 사탕수수, 면화, 코코아 등 농업 생산에 의존했다. 브라질은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1930년대부터 국내 산업 육성, 도시노동자 계층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수입대체 산업화를 적극 추진했다.

2) 정부주도형 경제의 시발

1950년대 이후 브라질에서는 정부 주도형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과도한 통화팽창과 재정지출 증가로 고 인플레이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주셀리노 쿠비셰키 대통령(1956~1961년)은 수도를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브라질리아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을 지출했다.

3) 브라질의 경제기적과 한계

1964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1940~1950년대 달성한 자본 축적을 바탕으로 중공업 위주의 공업화 정책과 인플레이 억제를 위한 경제 안정화 정책에 주력했다. 이와 같은 경제정책에 힘입어 1968~1973년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10%를 상회하는 “브라질의 기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브라질의 기적은 1973년 말 제1차 석유 파동으로 막을 내렸고, 이후 브라질은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로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4) 외채 의존 성장 정책의 실패 ⇒ 외채 위기 발발

군사정부는 경제위기에 따른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974년부터 외자 도입을 통한 기간산업 육성 및 수입 대체산업화 등 성장 위주의 정책에 의존했다. 그 결과 외채 규모는 1974년 170억 달러에서 1978년 480억 달러로 약 3배가 급증했다.

군사정부는 1982년 멕시코의 외채상환 중단 선언에 따른 외채 위기로 외자 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또 다시 경제위기에 봉착, IMF와의 금융지원 조건으로 경제안정화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IMF의 안정화 정책은 경기침체, 물가상승, 실업률 증가를 야기시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으며, 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저항이 거세졌다. 결국 군사정부는 선거에서 패배해 21년간의 군사독재가 종식되었다.

1985년 집권한 조제 사르네이(José Sarney) 민선정부는 인플레이 억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물가 동결 등 충격적이며 비정상적 경제정책을 실시했으나 오히려 물가 인상만 부추기는 등 경제 혼란을 가중시켰다. 특히 외채 누증, 외환보유고 급감 등으로 브라질 정부는 1987년 2월 외채상환 유예를 선언했다.

5) 1990년대 경제 개혁: 미완의 개혁

1990년대 초 대통령이 부정부패 연루 혐의로 탄핵되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혼란 속에서 1995년 개혁 성향의 페르난도 엔리케 카르도조(Fernando Henrique Cardoso) 대통령이 등장, 강력한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힘입어 브라질 경제는 1990년대 중반 물가 안정을 달성하고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듯 했다.

그러나 해알화 高 평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악화로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되는데다 재정 개혁 지체 및 고금리에 따른 정부 부채 급증 등의 영향으로 1999년 경제 위기가 발발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경제 혼란 및 경기 침체를 노정시켰다.

6) 2000년대 실용좌파 정부 출범

2003년 초 룰라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브라질은 경제 정책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 좌파 출신이라는 국내외 우려 속에서 집권한 룰라 대통령이 실제로는 ‘우파보다 더 우파적인’ 정책을 취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임기 마지막 해인 2006년까지도 각종 개혁작업의 성과는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룰라 정부는 인플레이 억제를 최우선시하면서 극도의 긴축재정정책을 취해 외채 조기상환 등 외형적인 결실을 맺고 있으나 세계 최고 수준의 금리가 산업생산성을 악화시키면서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2004년 국내총생산(GDP) 4.9%성장이라는 성과를 거둔 뒤 2005년 성장률이 2.3%에 그치면서 저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또한 지속되는 해알화 강세로 브라질 대외무역에서 수입이 크게 늘고 수출이 주춤하는 등 무역흑자기조가 꺾이고 있으며, 지속되는 중국산 수입 급증으로 브라질 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등 의 움직임도 있다.

오는 2006년 10월 1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며 룰라, 알끼민, 에로이나 3명의 후보간 3파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룰라가 전년도 정치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재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

9. 주요 산업 동향

브라질은 1940년대부터 추진해온 수입대체 산업화를 통해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가장 튼튼하고 다양한 제조업 기반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취해진 수입개방 정책으로 수입품과의 경쟁에 밀려 국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탈 산업화 과정이 가속화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때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57%를 상회했다.

최근 10년간 브라질의 산업별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농.목축업	3.1	-0.8	1.9	7.4	3.0	5.7	5.5	4.5	5.3	0.8
공업	3.3	4.7	-1.5	-1.6	4.9	-0.3	2.6	0.1	6.2	2.5
광업	6.0	4.8	8.0	5.0	11.1	3.9	6.7	2.9	-0.7	10.9
상업	2.1	4.5	-3.7	-1.6	5.4	1.0	3.6	1.1	7.7	1.3
건설	5.2	7.6	1.4	-3.2	3.0	-2.6	-1.8	-5.2	5.7	3.6
공공서비스	6.0	5.9	3.8	2.5	4.1	-5.6	3.0	2.7	4.6	2.0
서비스업	2.3	2.6	1.1	1.9	3.7	1.9	1.6	0.6	3.3	3.3
상업	1.8	3.0	-5.1	0.3	4.7	1.5	-0.2	-1.9	7.9	3.2
수송	2.6	3.9	5.1	0.6	5.6	5.2	3.4	1.4	4.9	0.1
통신	10.9	5.0	13.6	21.3	16.5	9.9	9.8	1.8	-1.4	1.7
공공행정	1.4	1.7	1.9	2.8	1.1	0.8	1.7	1.0	0.9	2.4
금융기관	2.5	3.2	-0.6	0.9	3.5	0.3	2.1	0.6	4.2	-8.1
GDP	2.7	3.3	0.1	0.8	4.4	1.3	1.9	0.5	4.9	4.2

자료원: 브라질 개발 상공부(MDIC)

그러나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겪으며 브라질의 산업 구조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1990년대 크게 증가했던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1998년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농 목축업 및 공업(광업+제조업)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서비스 산업의 약화는 무엇보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오랜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농목축업 및 광업, 그리고 제조업의 위상은 1999년 이후 브라질 헤알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힘입은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수출이 급증하면서 다시 높아졌다.

1997년 8%까지 떨어졌던 농목축업 부문의 위상은 2004년에 10%로 높아졌으며 1998년 20%까지 떨어졌던 제조업의 위상도 24%로 상승했다. 특히 광업부문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졌다. 1998년까지 1% 미만이었던 광업 부문의 위상은 생산 및 투자 확대에 힘입어 2004년에 4.2%까지 증대되었다.

최근 10년간 브라질 산업구조(GDP 대비 비중)의 변화 추이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농목축	8.3	8.0	8.2	8.3	8.0	8.4	8.7	9.9	10.0	8.4
공업	34.7	35.2	34.6	35.6	37.5	37.7	38.3	38.8	38.9	40.0
광업	1.0	0.9	0.6	1.5	2.5	2.9	3.4	3.9	4.2	4.9
상업	21.5	21.6	20.7	21.4	22.4	22.6	23.3	24.2	24.0	24.2
건설업	9.5	9.9	10.1	9.4	9.1	8.6	8.0	7.2	7.3	7.3
공공서비스	2.7	2.8	3.2	3.3	3.5	3.6	3.6	3.4	3.4	3.6
서비스	57.0	56.8	57.2	56.1	54.5	54.0	53.0	51.3	51.1	51.6
소매	7.8	7.6	7.1	7.1	7.4	7.5	7.7	7.7	7.8	7.6
수송	3.0	3.2	3.0	2.8	2.7	2.7	2.6	2.4	2.2	2.0
통신	1.9	2.0	2.6	2.4	2.7	2.7	2.7	3.2	3.1	3.0
공공행정	16.0	15.4	16.1	16.1	16.3	16.3	16.3	15.8	16.1	16.5
금융기관	28.3	28.6	28.4	27.7	25.4	24.8	23.7	22.2	21.9	22.5

주: 2004 년은 입수 가능한 가장 최신 통계를 반영함.

자료원: 브라질 개발부(MDIC) (2005 년 자료 미발표)

가. 농, 목축업

브라질은 세계의 곡물창고라는 명성에 걸맞은 식량자원의 보고이다. 생산량에서 설탕, 오렌지 주스, 커피 등이 세계 1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두와 쇠고기 생산은 세계 2 위, 닭고기, 담배, 옥수수 생산은 세계 3 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량에서는 커피, 오렌지 주스, 설탕, 대두, 커피, 쇠고기, 담배 등이 세계 1 위를 점하고 있으며 대두박, 대두유, 닭고기 생산은 세계 2 위를 기록하고 있다.

□ 브라질 주요 농산물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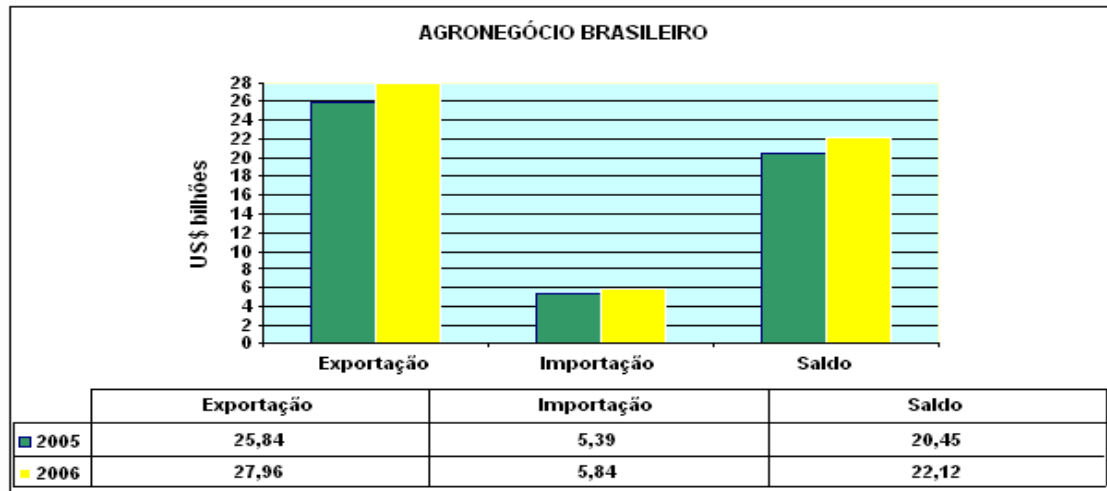
브라질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만큼이나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 목축업의 위상도 매우 크다. 2005 년 브라질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31% 증가한 61 억 달러로, 이 같은 수출 증가에는 육류 가격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쇠고기가 23.2%, 닭고기가 33.3%, 돈육이 50.9% 수출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4/4 분기에 접어들어 마토 그로소도 술 및 파라나 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브라질산 육류 수출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2006 년 상반기 브라질 농산물 수출액은 279 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수출의 3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은 58 억 달러로 전년대비 8.3% 성장하였으며, 총 수입의 11.8%를 차지하였다.

2005 년 기준 설탕 및 알코올 수출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류 역시 전년대비 29.8% 증가한 반면,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인 대두 및 대두제품의 경우는 전년대비 약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 2006 1 월-7 월 농산물 수출입 동향 비교

(단위: 10 억 달러)



자료원: 브라질 농업부

최근 10 년간 브라질 주요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FOB))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대두	1.018	2.452	2.178	1.593	2.188	2.726	3.032	4.290	5.395	5.345	3,811
설탕	1.611	1.774	1.943	1.911	1.199	2.279	2.094	2.140	2.640	3.919	2,918
닭고기	881	918	775	921	879	1.395	1.439	1.862	2.708	3.496	1,587
커피	1.722	2.749	2.335	2.233	1.563	1.213	1.201	1.316	1.759	2.533	1,445
대두박	2.731	2.681	1.750	1.504	1.651	2.065	2.199	2.602	3.271	2.865	1,270
냉동우육	152	148	219	326	333	501	508	727	1.371	1.792	1,229
담배잎	1.029	1.091	940	893	813	921	978	1052	1.380	1.660	957
과일주스	1.454	1.058	1.306	1.290	1.090	880	1.096	1.250	1.141	1.185	822
에틸알코올	95	54	36	66	35	92	160	158	498	766	641
가공육	254	253	324	348	288	312	362	434	559	806	602
대두유	713	597	833	687	359	506	778	1.233	1.382	1.267	595
돈육	122	142	148	115	163	346	469	527	744	1.123	467
냉장우육	42	49	57	117	170	237	268	428	592	627	368
옥수수	72	52	12	7	9	497	268	375	597	121	222
면화	2	0	4	5	32	154	94	189	406	450	131

* 주: 2006 년의 경우 1~7 월까지 통계 자료임

자료원: 브라질 농업부

브라질 농산물의 주요 수출대상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1 위는 유럽연합으로, 총 수출량의 32.5%를 차지하고 있다. 對 아시아권 국가 수출은 전체의 19.8%를 차지하고 있으며 對 NAFTA 수출은 15.1%로 나타났다.

2005 년에 들어 동부유럽 국가로의 수출 비중은 8.2%로 전년 대비 2.2%가 성장했으며, 對 아프리카 국가 수출 비중은 전체의 6.5%로 전년 대비 0.8% 증가하였다.

나. 광업 ·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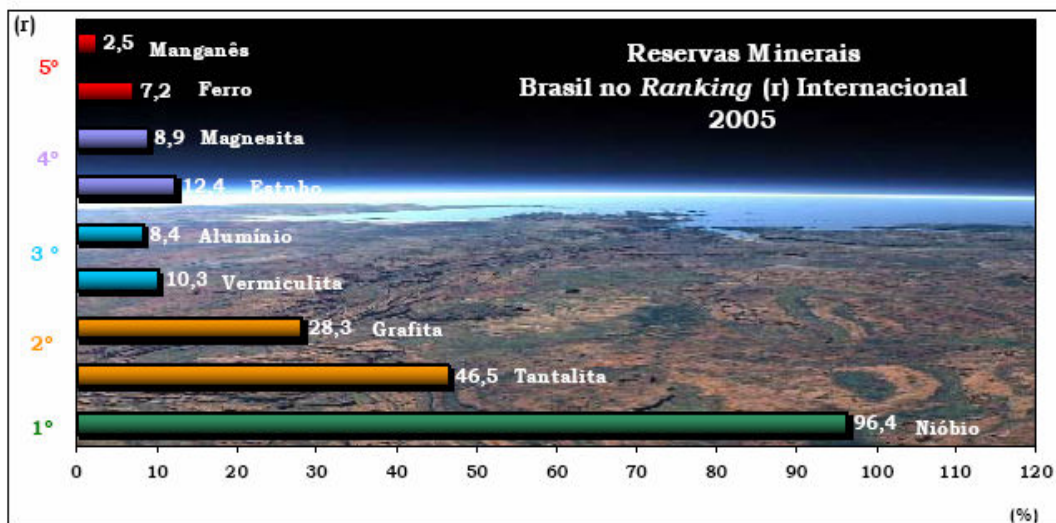
1) 광업

브라질은 세계 광물의 보고로 총 70 종의 광물(비금속 광물 45 종, 금속 광물 20 종, 에너지 광물 4 종 등)을 생산하고 있다. 브라질 광물 에너지 부문은 개발 잠재력이 엄청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특히 아마존 지역은 철광석, 마그네슘, 알루미늄(보크사이트), 금, 주석 이외에도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광물이 무궁무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장량 면에서 세계 1 위를 차지하고 있는 광물은 니오븀과 탄탈석이다. 다음으로 흑연 매장량이 세계 2 위, 질석 및 알루미늄 매장량은 세계 3 위, 주석,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세계 4 위, 철 및 망간 매장량은 세계 5 위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의 광물매장량 및 생산량 세계 순위(2005 년 기준)

□ 매장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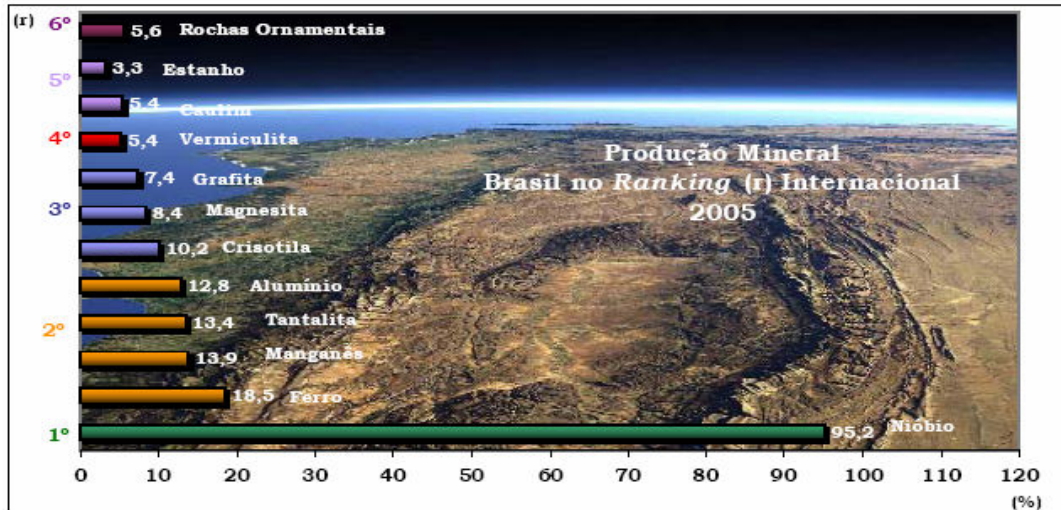
매장량			
순위	광종	매장량(1000 톤)	비중(%)
1 위	니오븀	3,761	96.4
	탄탈석	88	46.5
2 위	흑연	113,000	28.3
3 위	질석	23,000	10.32
	알루미늄	2,700,000	8.4
4 위	주석	770	12.4
	마그네사이트	345,000	8.9
5 위	철	26,474,000	7.2
	망간	132,000	2.5

주: 비중 - 전 세계 대비 비중

자료원: Ministério de Minas e Energia, Departamento Nacional de Produção Mineral, Sumário Mineral 2006

□ 생산량

생산면에서 브라질은 세계 5 대 광물 생산국이다. 세계 1 위 생산 광물은 니오븀, 제 2 위 생산 광물은 철, 탄탈석, 알루미늄, 제 3 위 생산 광물은 망간, 흑연, 마그네사이트 등이다.



생산량			
순위	광종	생산량 (톤)	비중(%)
1 위	니오븀	74,000	95.2
2 위	철	261,670,000	18.5
	탄탈석	264	13.4
3 위	망간	137	13.9
	흑연	75,000	7.4
	마그네사이트	386,000	8.4
4 위	운석면	236	10.2
	장식석	6,400	7.7
	질석	28,000	5.4
5 위	고령토	2,410,000	5.5
	주석	11,739	3.3

주: 비중 - 전 세계 대비 비중

자료원: Ministerio de Minas e Energia, Departamento Nacional de Producao Mineral, Sumario Mineral 2006

최근 세계적인 원자재난으로 천연자원 강국인 브라질은 큰 혜택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광물, 에너지 산업이 최대 수혜자이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광업 및 에너지 부문(석유 및 천연가스 포함)의 위상도 최근 10 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1995 년 0.9%에 불과했던 광업·에너지 부문의 위상은 2004 년에는 4.2%(280 억 달러)로 증가했다. 관련 활동을 모두 포함할 경우 광업·에너지 부문의 위상은 브라질 전체 GDP 의 10.5%(699 억 달러)에 달한다.

광물·에너지 수출 규모는 최근 5년 사이 2배 증가했다. 2000년 120억 달러에 불과했던 광물·에너지 수출은 2004년에는 232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 결과 브라질 총 수출에서 광물·에너지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1.8%에서 24.1%로 증가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 등이다.

2004년 기준으로 브라질의 3대 광물·에너지 수출품은 철, 알루미늄, 석유다. 철은 브라질의 최대 광물·에너지 수출품으로 그 비중은 총 수출의 11.7%, 同 제품 수출의 48.7% (113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2대 수출품인 석유의 수출 규모는 44억 달러(同 18.8%), 알루미늄의 수출액은 25억 달러(同 10.5%)에 달한다.

2) 석유·가스산업

브라질의 석유 매장량은 2005년 기준 109억 배럴로 세계에서 16위, 중남미 지역에서는 베네수엘라,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이다.

브라질의 석유 생산량은 1985년 해양시추를 통해 석유 생산을 시작한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해 1997년에는 세계에서 17번째로 1일 100만 배럴 생산국 반열에 들어섰다. 2005년 기준 브라질은 세계 15대 석유생산국으로 연간 생산량이 6억 배럴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세계 6대 석유 소비국으로 1일 석유 소비량은 180만 배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불과 얼마 전 까지도 부족한 석유에 대해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는 2006년 4월 21일 역사적인 석유자급자족을 선언하여 고공비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제 유가에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자원 확보를 통한 경제 안정을 이루는데 성공하였다. 브라질 석유공사 ANP는 2010년까지 1일 석유 생산이 23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브라질에는 13개 정유공장이 있다. 이중 11개는 브라질 국영석유회사인 Petrobras 소유로 정제 능력은 1일 193만 배럴에 달하며 브라질 전체 정제 능력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정유공장은 모두 수입 원유 처리를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중질의 국산 원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 규모의 설비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브라질 석유공사(ANP)는 점증하는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1일 정제능력 20만 배럴의 정제공장을 최소 2개 이상 건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990년대 브라질은 Petrobras와 전력공사(Elektrobras)를 부분적으로 민영화했다. 이후 석유산업을 감독할 국영 석유공사(ANP)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할 국가 에너지 정책 위원회(CNPE)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외 민간기업의 에너지 부문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3년에 Royal Dutch /Shell사가 Petrobras와 합작으로 브라질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게 되었다.

한편 BP Amoco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6 보고서에 의하면 브라질의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2005년 기준, 세계 매장량의 0.2%인 3,063억 m³에 불과하고 생산량 역시 세계 비중 0.4%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브라질은 신규 천연가스매장 발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브라질의 천연가스 추정 매장량이 남미 전체 미 발견 매장량의 40%에 이르는 5조 m³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천연가스는 앞으로 브라질 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전망이다. 1999 년 2.5%에 불과한 천연가스 소비량(총 에너지 소비)은 2010 년 10%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은 부족한 천연가스 공급을 보충하기 위해 1990 년대 중반부터 볼리비아, 2000 년 부터는 아르헨티나로부터 가스 수송관을 통해 가스를 수입해오고 있다.

기존 공급망 외에도 날로 증가하는 가스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출발해 브라질 남북을 종단하여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에까지 이르는 총 길이 9283km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브라질의 경우, 1 일 평균 65 만 boe (석유와 가스량을 측정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로 1boe=1 배럴과 같은 양이다) 의 가스가 공급될 예정인데, 이 가스를 모두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했을 경우 2006 년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인 이타이푸(Itaipu)댐의 1 일 전력생산량의 3 배인 30,000 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5 년 기준 천연가스 생산량은 176 만 m³ 이다.

한편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인 ANP 는 1999 년부터 매년 ‘Brasil Round’ 라는 석유광구 개발 국제 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 년에 제 7 차 입찰에는 에너지 분야 세계 유명 기업 및 한국 기업 SK 의 참가 낙찰에 성공하는 쾌거를 올렸다.

그 밖에도 브라질에는 바이오디젤, 에탄올 등 최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체 에너지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현재 브라질에는 바이오 디젤을 생산 중인 공장이 7 개, 공사를 마치고 정부의 생산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공장이 14 개, 건설 중인 공장이 16 개 있으며, 그 밖에도 29 개의 바이오 디젤 생산 프로젝트가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바이오 디젤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하고 있다.

에탄올의 경우 현재 전국 89 개의 정류시설이 가동 중에 있고, 100 여 건의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으며, 연간 140 억 리터의 에탄올이 생산되고 있다. 알코올과 가솔린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이종연료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와 세계 여러 나라의 브라질 에탄올 시장 투자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 정부는 2010 년 현재의 2 배인 280 억 리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 건설·엔지니어링산업

브라질은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브라질은 1950 년대 이미 44 층의 건물을 건축했으며 1970 년대에 지하철을 건설하고, 연장 14km 의 연육교를 자체 엔지니어링으로 세울 정도의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를 설계 하고 유엔본부의 건물을 설계한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오스카르 니에메예르(Oscar Niemeyer)는 브라질 건축기술의 상징이기도 하다.

브라질 건설업체들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 년 기준 브라질 국내에 등록된 건설업체만 15 만개에 달한다. 브라질 건설업체들은 이미 전 세계 50 개국에 진출해 석유 플랫폼, 지하철, 가스관 및 공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브라질 건설업체들의 높은 경쟁력과 자국산업 보호정책으로 외국 기업의 브라질 건설·엔지니어링 시장 점유율은 매출 기준으로 5%에 불과한 실정이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로는 Odebrecht 와 Andrade Gutierrez 등을 들 수 있다. Odebrecht 의 사업영역은 건설 및 엔지니어링, 화학 및 석유화학, 인프라, 공공 서비스, 석유 및 가스, 관광, 펄프생산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남미, 중미, 북미, 아프리카, 유럽 등 세계 전역에 진출해 있는 브라질의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이기도 하다.

Andrade Gutierrez 는 중남미 최대 민간그룹 중 하나이다. 1948 년 미나스 제라이스 벨로 오리존테에서 작은 건설회사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브라질은 물론 해외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사업 분야는 건설 및 엔지니어링, 통신 부문이다.

브라질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은 최근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0~2004 년 5 년간 연평균 4.9% 성장을 기록했다. 이 결과 브라질 건설 엔지니어링 시장 규모는 2000 년 183 억 달러에서 2004 년에는 221 억 달러로 증가했다. (브라질 지리통계청 IBGE 가 공개하고 있는 가장 최근 자료) 2004 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브라질의 건설·엔지니어링 시장 비중은 1.3%에 달한다. 2005 년 기준 건설분야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3.3%이며, 전체 GDP 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은 크게 토목과 비 주거용 건설 부문으로 대별되는 데 이 중 토목 부문의 비중이 67.6%(2004 년 기준)에 달한다.

건축비의 경우 2006sus 7 월 기준 1m² 당 R\$ 562.30(약 262 달러)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동부 지방 및 남부 지방 건축비가 나소 높은 반면 북부, 북동부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6 년간 브라질의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은 연평균 4.4%(전 세계 평균 성장률 3.9%) 성장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시장 규모도 2009 년에는 275 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라. 항공 산업

일반적으로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은 미국의 라이트 형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항공 전문가들이나 과학사에 어느 정도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 제작의 시조로 브라질의 산토스 두몽(Alberto Santos Dumont)을 꼽는다. 브라질은 항공 분야에서 오랜 기술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4 대 항공기 제조 국으로 발돋움했다. 브라질은 110 인승 이하 중형 여객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미국, 유럽국가 등이 주요 고객이다. 항공기는 브라질의 최대 수출품의 하나로 지금까지 약 3,900 대가 판매되어 전 세계 65 개국 영공을 누비고 있다.

브라질은 1910 년부터 일찍이 항공산업 육성책을 실시했다. 브라질 정부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1969 년에는 정부출자 89%의 브라질 국영항공사 EMBRAER 를 설립했다. 이후 발전을 거듭해 오던 EMBRAER 는 1990 년 이후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1994 년 12 월 EMBRAER 의 과감한 민영화를 단행했다. 민영화 이후 EMBRAER 는 생산비용 감축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통한 구조개혁에 힘입어 지난 수년간의 적자를 벗어나 1998 년부터 흑자기조로 전환하여 2006 년에도 양호한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다.

EMBRAER 는 현재 상업용 항공기, 비즈니스용 항공기, 군수용 항공기, 기타 부품 등 4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상업용 항공기는 전체 매출의 78%(2004 년 기준)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MBRAER 는 1996 년에 37~50 인승의 ERJ-145 기종을 생산했다. 2006 년 기준 EMBRAER 의 대표적인 생산 기종인 ERJ-145 는 비록 경쟁업체인 캐나다의 Bombardier 보다 4 년 늦게 출시되었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은 39%에 달하고 있다. ERJ-145 모델의 성공은 △미국에서 지역 항공기에 대한 수요 대폭 증가 △EMBRAER 의 기술축적 △브라질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의 결과였다.

한편 EMBRAER 는 1999 년 6 월 EMBRAER-170/195 기종을 출시, 새로운 틈새시장 분야 개척을 시도했다. 새롭게 개발된 EMBRAER 시리즈 기종은 70 ~ 108 명의 탑승이 가능하다. EMBRAER-170/175 기종에서는 캐나다 Bombardier 가 최대 경쟁자이며 보다 큰 EMBRAER-190/195 기종에서는 Airbus 와 Boeng 이 대표적인 경쟁업체이다.

EMBRAER 의 항공기 주요 생산 기종

모델 기종	용 도
EMB-120	지역 수송기 (30 인 승)
AMX	전술전투기
EMB-312 Tucano	터보프롭 군용 훈련기
EMB-145	지역 수송기
CBA-123	지역 수송기(아르헨티나 FMA 와 공공개발, 1994 년 중단)
EMB-202 Ipanema	농업용 항공기
ERJ-135	지역 수송기 (37 인 승)
ERJ-140	지역 수송기 (44 인 승)
ERJ-145	지역 수송기 (55 인 승)
EMBRAER-170	지역 수송기 (70 인 승)
EMBRAER-175	지역 수송기 (78 인 승)
EMBRAER-190	지역 수송기 (99 인 승)
EMBRAER-195	지역 수송기 (108 인 승)

자료원 : EMBRAER 홈페이지(www.embraer.com).

EMBRAER 는 브라질 최대 수출업체 중 하나이다. 1999~2001 년에 EMBRAER 는 브라질 최대 수출업체 자리를 차지했었다. 2004 년(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에 EMBRAER 는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인 Petrobras 에 이어 브라질의 제 2 대 수출업체의 위치를 차지했다. 2004 년 EMBRAER 의 수출 규모는 33 억 4,479 만 달러로 브라질 총 수출의 3.5% 비중을 점했다. 현재 EMBRAER 는 1 만 7000 명의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EMBRAER 는 국영 석유회사인 Petrobras,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인 Odebrecht, 철강회사인 CVRD 등과 더불어 브라질의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주요 진출 대상국은 미국과 중국 등이다. 특히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Embraer Aircraft Corporation 은 1979 년에 설립되어 북미, 중미 및 카리브, 영국, 스칸디나비아, 아태 지역 판매 및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

2004 년(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 기준 브라질은 세계 10 대 자동차 생산 강국으로 자동차 생산 대수는 221 만 대에 달하고 있다. 브라질은 전 세계 자동차 업체의 각축장으로 2004 년 기준 세계 유수의 18 개 자동차 업체가 진출, 24 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브라질 자동차 시장은 폴크스바겐, GM, 피아트 등 빅 3 가 70%를 장악하고 있다.

브라질 자동차 산업은 1990 년대 무역자유화 조치와 FDI 유입에 힘입어 커다란 구조조정을 겪었다. 브라질 자동차공업 협회(Anfavea)에 따르면 자동차 부문에 대한 투자는 1980 년대 연간 5 억 달러 수준에서 1990 년대는 16 억 달러 대로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은 투자 급증에 힘입어 브라질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320 만 대로 확대되었다

1994~2004 년 기간 자동차 부품 분야에 대한 투자는 주로 M&A 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111 억 달러에 달했다. 1990 년대 활발하게 전개된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M&A 로 탈국적화가 가속화되었다. 이 결과 자동차부품분야에서 차지하는 브라질 자본과 생산의 비중은 1994 년 이후 절반으로 감소했다.

브라질의 자동차 판매는 1995 년 해알 정책에 힘입어 물가가 안정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1990 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 1997 년에는 194 만 대로 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지속된 경제 위기 여파로 브라질 경제가 장기 침체를 겪음에 따라 자동차 판매는 점차 하락, 2004 년에 들어서는 1995 년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157 만 대에 머물고 있다.

브라질 자동차 업체들은 주로 1,000cc~2,000cc 사이의 소형차, 특히 1000cc 이하의 국민차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차 위주의 브라질 시장의 특성은 브라질 진출 자동차 업체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며 해외수출을 어렵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국민차를 중심으로 한 브라질 시장의 특성은 다른 경쟁국에서 국민차 생산이 일반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업체들의 브라질 자동차 진출을 어렵게 하는 보호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브라질의 자동차 생산 및 수출입 추이

(단위: 천 대)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국내생산	1,629	1,804	2,070	1,586	1,356	1,691	1,817	1,791	1,828	2,211	2,528
수 출	263	296	417	400	275	371	391	424	536	649	897
수 입	369	224	303	347	179	174	178	115	74	62	자료없음
내수판매	1,728	1,730	1,943	1,535	1,257	1,489	1,601	1,479	1,429	1,579	1,631

자료원: 브라질 자동차공업협회(ANFAVEA); Banco Central do Brasil.

그러나 이러한 소형차를 중심으로 한 브라질 자동차 내수시장의 특성은 2002 년 8 월 브라질 정부가 중 대형차에 대한 공업제품세(IPI)를 인하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이 조치 이후 1,000cc 이하 자동차의 판매 비중은 2001 년 71%에서 2004 년에는 57%로 급감했다. 중대형 자동차는 브라질에서 충분한 생산규모를 갖고 있지 못해 국제경쟁력도 낮은 편이다. 그러나 2002 년 세제 변경 이래로 국내 시장에서 중대형 차의 판매 비중은 24%에서 44%로 증가했다. 브라질의 자동차 교역은 1990 년대 초반까지 흑자를 기록해 왔으나 1994 년 이후 무역개방과 내수 증가로 인해 적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1996 년 이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데다 1998

년 이후 경제위기 여파로 수입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1999년부터 흑자로 반전, 이후 줄곧 흑자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2004년(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 흑자 규모는 68억 달러로 증가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브라질의 자동차 수출은 브라질 진출 자동차업체들이 1990년대 대규모 투자로 포화상태에 이른 브라질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3국 수출 활로를 적극 모색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Anfavea에 따르면 2006년에 접어들어 브라질 자동차 생산 및 수출 분야는 매우 활기를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4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39만 72000대의 차량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출도 14.6%나 증가하였다. 한편 신차 구입량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2006년 2월 한달 동안에 12만 7800대의 국산 차 및 수입 차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것은 전년 동월 대비 11.3% 증가한 수치다.

알코올과 가솔린을 혼용할 수 있는 플렉스(Flex) 차량의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렉스 차량은 지난 2월에 판매된 차량의 7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가솔린 또는 알코올만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 판매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브라질은 자동차 부품 수입 증가로 1997~2002년 사이 커다란 적자를 기록해 왔다. 이 같은 자동차 부품 수입 증대는 신규 프로젝트 추진, 새로운 생산공정 도입, 신 모델 출시 등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2003년부터 큰 폭의 해탈화 평가절하 효과 구현에 따른 높은 수출 증가에 힘입어 자동차 부품 분야의 무역수지는 흑자로 돌아섰다. 2004년(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 기준 무역흑자 규모는 약 5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브라질 자동차부품 산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출	2,986	3,262	3,510	4,042	4,031	3,593	3,824	3,674	3,891	4,792	6,057
수입	2,073	2,790	3,423	4,394	4,175	3,855	4,237	4,206	3,986	4,330	5,596
무역수지	913	473	87	-353	-144	-263	-413	-532	-95	462	462
연간투자	883	1,247	1,296	1,798	1,580	1,020	1,100	798	260	532	600
유희생산력(%)	17.3	20.0	23.0	25.0	30.0	35.0	25.0	26.0	26.0	26.0	15.0

주 : 2004년은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통계를 반영

자료원 : 브라질 자동차 부품 협회(SINDIPECAS), Desempenho do Setor de Autopeças 2005.

2005년 자동차 부품 업계 동향

업체 수	전국 9개 주에 648개 업체 영업 중
매출액	242억 불
수출액	75억 불 (160개국)
투자액	14억 불
고용인력	19만 7000명

자료원: 브라질 자동차부품 협회(SINDIPECAS)

바. IT 산업

브라질 IT 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그 규모도 세계적이다. 브라질은 세계 7 대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나로, 시장 규모는 인도와 중국에 버금간다.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2004 년 90 억 달러에서 2005 년에는 94 억 달러로 증가했다. 브라질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불법복제이다. Business Software Alliance 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중 55%가 불법이며, 이로 인한 손실은 2003 년(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 기준으로 5 억 1,900 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세계 11 대 불법 복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브라질은 또한 중남미 최대 인터넷 시장이자 세계 9 대 인터넷 시장이다. 브라질 인터넷 시장 규모는 2004 년 176 억 달러에서 2005 년에는 211 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인터넷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정, 직장, 공공기관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005 년 말 기준 브라질 인터넷 이용자는 2,200 만여 명에 이르며, 2009 년 에는 4,000 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05 년 발표한 IBOPe//NetRatings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사람들의 월 인터넷 사용시간은 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 11 개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은 16 시간 54 분에 달했으며, 인터넷 사용자의 약 53%가 20-29 세 사이 고학력의 남성인 것이 밝혀졌다.

초고속 통신 서비스 사용자 수도 최근 1-2 년 간 연간 90%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5 년 기준 동 서비스 사용자 수는 약 421 만 명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은 e-banking 시스템이나 e-government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 브라질 e-banking 은 국내 최대 민간은행인 Bradesco 의 적극적인 Home-banking 시스템 구축 노력에 의해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르게 되었다. 브라질에서 인터넷 혁명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e-government 의 구현이다. 브라질 사람들은 1996 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납세신고를 해오고 있다. 2003 년에는 전체 개인납세자의 95%가 인터넷을 통해 납세신고를 했으며 2004 년에는 모든 법인세 신고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졌다.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통신시장이기도 하다. 시장 규모는 2004 년 34 억 달러에서 2005 년에는 38 억 달러로 증가했다. 브라질 통신장비 수입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은 미국, 한국, 중국, 노르웨이, 독일, 스웨덴 등이다.

1990 년대 통신산업의 민영화 이후, 이 부문에 전례 없던 투자가 집중되었으며 총 투자액은 270 억 달러에 달했다. 2002 년에는 브라질 통신청 (Anatel)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유무선 전화 부문에만 총 34 억 달러의 신규투자가 유치되었다. 2003/2004 년 기간에는 GSM 서비스 개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46 억 달러의 투자가 개시되었다. Anatel 에 따르면 브라질 통신 시장에 대한 향후 투자 규모는 530 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이 중 47%는 유선전화 서비스 부문에, 19%는 대중통신 서비스 부문에 투자될 전망이다.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에 따르면 2006 년 8 월 기준 브라질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9,300 만 명으로 유선전화 가입자 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동년 기준으로 브라질은 중국,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 대 이동전화 보유국이다. 브라질은 세계 10 대 개인용 PC 보유국으로 개인용 PC 대수는 2005 년 2,500 만 대에 달했다.

브라질 IT시장의 현황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유선전화가입자 수	1,000 명	39,270	39,195	38,970	38,907	38,826
전화가입자수	100 명당	21.6	21.3	20.8	20.5	20.2
이동전화가입자수	1,000 명	65,606	84,800	96,000	105,300	112,000
	100 명당	36.1	46	51.3	55.5	58.3
인터넷 사용자	1,000 명	23,900	31,200	34,000	37,000	40,000
브로드밴드 가입자수	1,000 명	1,858	3,200	4,100	4,500	4,900
	100 명당	1	1.7	2.2	2.4	2.5
개인용 PC	1,000 대	24,300	31,600	34,000	36,000	37,700
	100 명당	13.4	17.1	18.2	19	19.6
TV 소유 가정	1,000 가정	42,000	42,200	42,300	42,350	43,000
유료 TV 가입자 수	1,000 명	3,650	3,780	3,900	4,000	4,100
	100 명당	2	2	2.1	2.1	2.1
케이블 TV 가입자 수	1,000 명	2,050	1,980	1,900	1,800	1,800
Direct-to TV 가입자수	1,000 명	1,600	1,800	2,000	2,200	2,300

자료원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2005.

* : 전망치

10. 정보조사 자료원

가. 바이어 정보 수록 CD 및 책자 형태

1) Guia Nei Brasil

- 자료특징
 - 브라질 모든 산업정보 가이드로 약 7500개의 품목 카테고리화 130.000개 이상의 회사 정보 제공.
- 구입가격: 무료 회원가입 후 무료로 제공
- 발행처: TL Directorios Industriais Ltda - Grupo Lund de Editoras Associadas
 - Add: R. Brig. Tobias, 356 - 7th Fl., Zip 01032-901,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3327-4549
 - Fax: (55-11) 227-1993
 - E-mail: luciani@lund.com.br
 - Website: www.guianei.com

2) GUS - Guia do Usuario de Seguranca

- 자료특징
 - 보안관련 Annual Directory로 업체, 품목, 지역, 서비스 별 정보 및 시장조사(랭킹 관련) 등 제공.
- 구입가격: R\$ 18,00 (USD 7,00)
- 발행처: Editora SegNet
 - Add: R. Souza Lima, 227 Bx., Zip 01153-020,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3667-3966
 - Fax: (55-11) 3664-7977
 - E-mail: info@gus.com.br
 - Website: www.gus.com.br

3) Anuario de Informatica IDG

- 자료특징
 - 컴퓨터 관련 분야의 주요 정보 책자로 250개 이상의 품목 및 서비스 카테고리들로 나뉘짐. 국내 전문가들을 통해 가장 새로운 기술 및 앞으로의 경향 등도 함께 기재함.
- 구입가격: R\$ 70,00 (국내 운송비 포함 - USD 27,00)
 - 해외 운송의 경우, 기본 책자값 R\$ 60,00 (USD 23,00) + 운송비가 포함됨
- 발행처: IDG - International Data Group (Computerworld Brazil)
 - Add: R. Tabapua, 145 - 4th Fl., Zip 04533-902,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3038-808
 - Fax: (55-11) 3168-5876
 - E-mail: marco@idg.com.br
 - Website: www.idg.com.br

4) Guia do Comprador Eletrolar News

- 자료 특징
 - 가전제품의 소비자들을 위해 발행되고 있는 가이드로 국내 모든 생산업체/메이커/산업 별 국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의 사진 및 정보와 업체들의 상세 정보 등도 기재하여 동 분야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자임.
- 구입가격: R\$ 50,00 (USD 19,20)
- 발행처: Editora C&C
 - Add: Av. Brig. Faria Lima, 1690, Cj. 142 - Zip 01452-914,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3034-4100
 - Fax: (55-11) 3034-4100
 - E-mail: assinaturas@editoracec.com.br
 - Website: www.eleetrocompras.com.br / www.editoracec.com.br

5) Guia ABIEF

- 자료특징
 - Flexible Plastic Package분야에 있어 가장 많은 정보를 기재하는 책자임. ABIEF로부터 제작이 되는 책자로 완제품은 물론 원자재 공급 및 취급업체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장 경향 및 각종 조사를 통해 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길 희망하는 책자임.
- 구입가격: R\$ 30,00 (USD 11,50)
- 발행처: ABIEF - Brazilian Association of Plastic Flexible Package Industry
 - Add: Av. Brig. Faria Lima, 2081, Cj. 32, Zip 01452-908,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3032-4092
 - Fax: (55-11) 3032-2021
 - E-mail: ldbcom@uol.com.br
 - Website: www.abief.com.br

6) Relatorio Setorial da Cadeia Textil Brasileira

- 자료특징
 - 브라질의 섬유 관련 분야의 전체적인 시장정보, 수출입 통계, 품목별 조사, 완제품 및 주요 업체들의 리스트 및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로 동 분야에 있어 가장 종합적인 책자임.
- 구입가격: R\$ 250,00 (USD 96,00)
- 발행처: IEMI - Inst. De Estudos e Marketing Industrial Ltda
 - Add: Av. Nove de Julho, 4865, Cj. 42 - Zip 01407-200,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3167-3202
 - Fax: (55-11) 3167-4208
 - E-mail: iemi@iemi.com.br
 - Website: www.iemi.com.br

7) Guia da Industria Quimica Brasileira

- 자료특징
 - 브라질의 화학 산업협회로부터 발행되고 있는 Brazilian Chemical Industry Directory 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1,508개의 화학품과 771개의 생산/수출/수입 업체들의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 설립 년도, 직원 수, 자본금, 주주, 매출액 등 매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
- 구입가격: R\$ 300,00 (USD 115,00) + 운송비
- 발행처: Abiquim - Brazilian 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 Add: Av. Chedid Jafet, 222 - Bl. C 4th Fl. Zip 04551-065,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2148-4700
 - Fax: (55-11) 2148-4760
 - E-mail: cedoc@abiquim.org.br
 - Website: www.abiquim.org.br

8) Revista Anamaco

- 자료특징
 - 건축/건설관련 전문 매거진으로 국내 주요 도/소매 업체들의 정보 및 랭킹, 신규시장 정보,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등을 게재함.
- 구입가격: 낱개 - R\$ 10,00 (USD 3,90), 연 구독료 - R\$ 105,00 (USD 40,00)
- 발행처: Grau 10 Jornalismo e Comunicacoes Ltda
 - Add: R. Afonso Braz, 579, 11^º andar, Zip 04511-011,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3896-7300
 - Fax: (55-11) 3896-7303
 - E-mail: grau10@grau10.com.br
 - Website: www.grau10.com.br

9) Revista do Frio & Ar Condicionado

- 자료특징
 - Refrigeration, Ventilation 과 Heating관련 전문 매거진으로 현재 시장정보 외에 공업용, 업소용 및 가정용 등의 다양한 제품 및 생산/취급 업체들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
- 구입가격: 낱개 - R\$6,50 (USD 2,60), 연 구독료 - R\$ 55,00 (USD 21,00)
- 발행처: M.A.R.Y Promocoes e Empreendimentos Ltda
 - Add: R. Ministro Rodrigo Otavio, 325, Zip 04342-050,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5589-3006
 - Fax: (55-11) 5589-8799
 - E-mail: revfrio@revistadofrio.com.br
 - Website: www.revistadofrio.com.br

10) RTI - Redes, Telecom e Instalacoes

- 자료특징
 - 통신 및 데이터, 케이블 관련 전문 매거진으로 시장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관련 업체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구입가격: 회원가입 시 무료
- 발행처: Aranda Editora Tecnica Cultural Ltda
 - Add: Alameda Olga, 315, Zip 01155-900,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3824-5300
 - Fax: (55-11) 3666-9585
 - E-mail: rti@arandanet.com.br
 - Website: www.arandanet.com.br

- 기타사항
 - 동사는 한국에 International Advertising Sales Representative가 있음(JES Media International- 82-2-481-3411)

11) Info Exame

- 자료 특징
 - IT관련 전문 잡지인 Info Exame의 CD Rom으로 일년 동안 있었던 동 분야의 모든 이슈, 신제품 출시, 시장정보 등 모든 기사와 정보를 한 CD에 모아서 제공함.
- 구입가격: R\$ 25,00 (USD 9,60)
- 발행처: Editora Abril
 - Add: Av. Das Nacoes Unidas, 7221, 18th Fl., Zip 05425-902,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3347-2121
 - Fax: (55-11) 3347-2100
 - E-mail: abri.assinaturas@abril.com.br
 - Website: www.info.abril.com.br
- 기타 사항: Info Exame는 매월 잡지로도 발행됨.

나. 바이어 정보 입수 가능 Web Site

- www.abinee.org.br
 - 유, 무료 여부: 무료
 - 브라질의 전기/전자 산업협회의 사이트로 동 분야의 정보와 회원사 들의 리스트 및 정보를 제공함(포르투갈어만 가능함)
- www.tgrnet.com
 - 유, 무료 여부: 무료 (가입 요구)
 - 영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네델란드어, 포르투갈어, 일본어와 중국어 버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 사이트는 국가별/분야별 업체 리스트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 www.abicalcados.com.br
 - 유, 무료 여부: 무료
 - 브라질 신발산업협회의 사이트로 회원사 리스트도 제공함(포르투갈어, 영어, 스페인어 버전)
- www.abimag.org.br
 - 유, 무료 여부: 무료
 - 브라질 기계산업협회의 사이트로 회원사리 리스트 및 정보 제공(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 버전)

- www.adipec.com.br
 - 유, 무료 여부: 무료
 - 브라질 화장품 및 향수 도매 및 수입업체 협회의 사이트로 회원리스트 및 정보를 제공 (포르투갈어, 영어 버전)
- www.anfavea.com.br
 - 유, 무료 여부: 무료
 - 브라질 자동차 산업 협회의 사이트로 회원리스트 및 정보를 제공(포르투갈어 버전)
- www.abit.org.br
 - 유, 무료 여부: 무료/회원가입
 - 브라질 섬유협회의 사이트로 경제정보, 비즈니스 정보, 무역 정보, 분야 각종 행사 정보, 법률 정보, 인과이어리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이트로 인과이어리, 무역 정보 등 몇 정보들은 로그인이 요구됨.
 - 동 협회에 가입을 희망할 경우, 가입 비용은 없으며, 기본적으로 현지 업체의 경우,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가 요구됨. 가입은 동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가입 신청을 한 후, 동 협회에서 이를 검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해 줌. (동 협회의 사이트는 브라질 업체들을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로 해외 업체가 가입신청을 했었으나 국내 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의 업체라고 판단돼, 국내업체 보호 차원에서 신청이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었음) (포르투갈어, 영어 버전)
- www.eletros.org.br
 - 유, 무료 여부: 무료
 - 브라질 가전제품 동향을 볼 수 있는 사이트로, 브라질 유력 가전제품 회사들이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브라질 국내가전시장 동향파악이 가능함.

다. 국내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검색사이트

브라질의 경우, 전문적으로 바이어 정보만을 입수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는 편이며, 대부분의 경우, 해당 협회 또는 일반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국내업체들의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임.

□ 일반 무료 검색 사이트

- www.cade.com.br
- www.google.com.br
- www.yahoo.com.br
- www.altavista.com.br

III. 경제무역통계

11. 거시경제통계

구 분	단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GDP	US\$억	5,098	4,594	4,933	6,050	7,960	-
1인당 GDP	US\$	2,957	2,631	2,789	3,417	4,321	-
경제성장률	%	1.3	1.9	0.5	4.9	2.3	3.5
산업생산증가율	%	1.6	2.7	0.1	8.3	4.5	-
물가상승률(IPCA)	%	7.7	12.5	9.3	7.6	5.6	1.73
실업률(연말)	%	10.6	10.5	10.9	9.6	8.3	10
콜금리(연말)	%	19.0	25.0	16.5	17.75	18.0	14.75
수출	US\$억	582.2	603.6	730.8	964.8	1,183.0	609
수입	US\$억	555.8	472.3	482.5	627.8	735.2	413
무역수지	US\$억	26.4	131.3	248	337.0	447.8	195
경상수지	US\$억	-232.2	-76.4	41.8	116.7	142	-
외국인 직접투자	US\$억	224.6	165.9	101.4	181.7	151.9	-
외환 보유고	US\$억	358.7	378.2	492.9	529.4	570.9	625.8
외채	US\$억	2,099.3	2,107.1	2,149.3	2,021.9	1,650.0	1,200
환율(연말)	US\$=R\$	2.3204	3.530	2.902	2.654	2.2	2.15

자료원: 브라질 중앙은행, IPEA, IBGE

* 2006년 GDP성장률은 전망치, 교역동향 1-6월 누계, 금리 8월 기준, 환율 8월 28일 기준, 물가 상승률 5월 기준 올해 누적 %, 외환보유고 6월 21일 기준, 실업률 및 외채는 4월 기준

12. 무역통계

가. 연도별 수출입 추이

브라질에서 수출은 오랜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의 영향 때문에 경제정책의 후 순위로 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다. 1990년대 들어서도 무역자유화 정책의 실시로 수입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데 반해 수출은 정체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1999년 해알화 평가 절차 이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수출은 비상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신 수출시장 개척 등 각종 수출 진흥책도 한 몫을 했다. 특히 최근 불고 있는 전 세계적인 원자재 확보전도 전통적인 원자재 수출강국인 브라질의 수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 결과 최근 3년 연속 수출이 평균 20%대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기록적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수출은 2003~2004년 각각 21%, 3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에 이어 2005

년 들어서도 전년 대비 23% 증가한 1,183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에 반해 수입은 같은 기간 17% 증가한 735억 달러에 그쳤다. 2005년 무역수지는 44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부문에서의 거듭되는 기록 경신으로 브라질 정부는 연이어 수출 목표를 상향 조정해 오고 있다. 2003년 출범한 톨라 정부는 당초 임기 말인 2006년까지 1,0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정부의 수출 목표는 지난 2월에 12개월 누적 기준으로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손쉽게 달성되었다. 이 같은 높은 수출 증가율을 반영, 브라질 정부는 불과 3개월 전에 올해 수출 목표를 1,120억 달러로 늘려 잡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9월에 초과 달성하여 1,129억 달러를 기록하고 총 1,183억 달러 수출로 2005년을 마감했다.

이 같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브라질 경제의 개방도(총 수출입/GDP)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90년대 중반 14%에 불과하던 브라질의 경제 개방도는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증가, 2004년에는 26%에 달했다.

나. 품목별 수출입

1) 품목별 수출

브라질은 광물, 농수산물 등 세계적으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흔히들 1차 상품 수출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브라질은 개도국 중에서는 비교적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1차 상품 보다는 제조품을 많이 수출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에서 1차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불과했다. 그에 반해 반제품의 비중은 14%, 제조품의 비중은 55%에 달했다.

2005년에는 기본 소비재, 공산품 및 반제품의 수출량이 각각 21.8%, 23%, 18.8% 증가 하였으며, 특히 완제품 수출은 전체 수출량의 5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기존 메르코수르 국가로의 수출 이외에도, 또한 대 동부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수출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4단위 기준으로 브라질의 20대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2004년의 경우 최대 수출상품은 대두로 나타났으며, 2005년 경우 철광 및 정광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년간 대두와 철광이 1~2위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는 형국이다. 최근 브라질 진출 주요 자동차 메이저 업체들의 제3국 수출전략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승용차가 2년 연속 3위를 차지했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의 하나인 항공기는 2004년 4위에서 2005년에는 7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10대 수출국 최대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중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대두가 공통적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의 경우는 선철, 아르헨티나는 승용차, 독일은 철광석, 칠레는 석유, 일본은 닭고기가 각각 브라질 제품 중 최대 수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브라질의 2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4년				2005년			
	HS4단위	품목명	금액	비중	HS4단위	품목명	금액	비중
1	1201	대두	5,393	5.55	2601	철광 및 정광	7,498,438	6.19
2	2601	철광 및 정광	4,785	4.92	1201	대두	5,344,826	4.41
3	8703	승용차	3,349	3.45	8703	승용차	4,389,498	3.62
4	8802	항공기	3,302	3.40	2709	석유	4,175,176	3.44
5	2304	대두박	3,271	3.37	1701	사탕수수당	3,918,641	3.23
6	207	닭고기	2,754	2.83	207	닭고기	3,495,669	2.88
7	1701	사탕수수당	2,640	2.72	8802	항공기	3,185,503	2.63
8	2709	석유	2,532	2.61	2304	대두박	2,865,039	2.36
9	8708	자동차용부분품과 부속품	1,964	2.02	2710	석유 및 정제품	2,799,739	2.31
10	7207	철, 비합금강의 반제품	1,901	1.96	8525	라디오 송신기기	2,552,437	2.11
11	2710	석유 및 조제품	1,828	1.88	0901	카페	2,533,873	2.09
12	901	커피	1,759	1.81	8708	자동차부품, 악세서리	2,473,252	2.04
13	4703	셀룰로스	1,667	1.71	4703	셀룰로스	1,976,336	1.63
14	6403	신발류	1,453	1.50	7207	철, 비합금강의 반제품	1,885,907	1.56
15	1507	대두유	1,390	1.43	7201	선철	1,810,434	1.49
16	2401	담배	1,381	1.42	0202	쇠고기	1,791,731	1.48
17	7601	알루미늄의 괴	1,375	1.41	8704	화물용 차량	1,681,691	1.39
18	202	쇠고기	1,370	1.41	2401	담배	1,662,362	1.37
19	4412	합판	1,211	1.25	2519	탄산 망간	1,584,609	1.31
20	7201	선철	1,179	1.21	6403	제화류	1,505,023	1.24

자료원: 브라질 재무부 (www.receita.fazenda.gov.br/aduana)

브라질의 10대 수출 대상국의 제1위 수출품목(2005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제1위 수출품목	금액	비중
1	미국	선철	22,576,710	18.63
2	아르헨티나	승용차	9,990,301	8.24
3	중국	대두	6,839,620	5.64
4	네덜란드	대두	5,305,297	4.38
5	독일	철광석	5,102,861	4.21
6	칠레	석유	4,541,206	3.75
7	멕시코	자동차	4,072,968	3.36
8	일본	닭고기	3,516,563	2.90
9	이탈리아	대두	3,276,661	2.70
10	스페인	대두	3,051,051	2.52

주: 비중 - 각국의 총 수출 대비 비중.

자료원: 브라질 개발부(MDIC).

2)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 추이

브라질은 1990년대 들어 경제안정 및 수입개방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와 더불어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시장으로 성장했다. 2004년 기준 브라질은 한국의 제27대 수출 대상국(2003년 32대)으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에 이은 제2대 수출 대상국이었으며, 우리나라는 브라질의 10대 수입 대상국이며 16대 수출 대상국이었다.

2005년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한 24억 1천 1백만 불을 기록 하고,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3.9% 증가한 25억 1백만 불을 기록하여 9천만 불 적자를 기록 하였다. 2006년 7월 기준, 19억 4천 5백만불 수출로 전년동기 대비 47.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 불,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교역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991	174	64.1	889	25.6	-715	1,063
1992	164	-5.6	797	-10.4	-633	961
1993	449	172.7	779	-2.2	-330	1,228
1994	844	88.2	1,019	30.6	-175	1,863
1995	1,519	79.9	1,388	36.2	131	2,907
1996	1,497	-1.4	1,325	-4.6	172	2,822
1997	1,711	14.3	1,239	-6.5	472	2,950
1998	1,792	4.7	693	-44.0	1,099	2,485
1999	1,209	-32.5	909	31.2	299	2,118
2000	1,724	42.6	935	2.8	789	2,659
2001	1,611	-6.5	1,126	20.4	486	2,737
2002	1,247	-22.6	1,248	10.9	-1	2,495
2003	1,137	-8.8	1,619	29.8	-482	2,756
2004	1,785	56.9	2,195	35.6	-410	3,980
2005	2,411	35.1	2,501	13.9	-90	4,912
2006(7월)	1,945	47.8	1,384	7.8	229	562

자료원 : KOTIS

한국의 對 브라질 수출은 경제위기 이후 지속된 브라질의 경기침체, 한국 기업의 투자 부진 등에 따라 1998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한국의 총 수출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4%를 정점으로 하락, 2003년에는 0.6%까지 떨어졌다.

2003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對 브라질 수출은 2004년부터 브라질 경제의 신속한 회복세에 편승, 급속한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2004년 對 브라질 수출은 57%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약 35%로 증가율이 다시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한국 총 수출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0.6%에서 0.7%로 증가했으며 2004년 브라질 수입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도 2003년 2.2%에서 2.8%로 증가했다.

한국의 대 브라질 치수비중

(단위: %)

	한국의 총수출대비 비중	한국의 총수입대비 비중	브라질의 총수출대비 비중	브라질의 총수입대비 비중
1990	0.2	1.0	1.7	0.4
1991	0.2	1.1	2.1	0.6
1992	0.2	1.0	1.5	0.6
1993	0.5	0.9	1.4	1.3
1994	0.9	1.0	1.5	1.9
1995	1.2	1.0	1.8	2.7
1996	1.2	0.9	1.8	2.2
1997	1.3	0.9	1.4	2.2
1998	1.4	0.7	0.9	1.7
1999	0.8	0.8	1.3	2.0
2000	1.0	0.6	1.0	2.5
2001	1.1	0.8	1.2	2.8
2002	0.8	0.8	1.4	2.3
2003	0.6	0.9	1.7	2.2
2004	0.7	1.0	1.5	2.8
2005	0.85	0.96	1.6	3.2
2006(7월)	1.07	0.79	1.4	3.9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IMF DOTS 자료; 브라질 개발부(MDIC).

2005년 들어서도 대 브라질 수출은 기계류, 화학공업제품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기준 47.8%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3) 품목별 수출 현황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은 일부 품목, 특히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수출 편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2004년 기준으로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수출 편중도는 68%에 달했으며 2005년 들어서는 69%로 확대되었다.

대 브라질 최대 수출품목인 전기·전자제품은 무선통신기기, 전자관, 영상기기, 컴퓨터 수출 확대에 힘입어 2003년부터 증가세로 반전, 2004년에는 전년 대비 68%, 2005년 1~10월에는 33%의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브라질 최대 수출품목인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2004년에 90% 증가한데 이어 2005년에도 36%의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 전자관, 컴퓨터, 영상기기 등도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기계류 수출은 브라질 경기침체로 2003년까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4년부터 큰 폭의 증가세로 반전, 전기·전자제품에 이은 제2대 수출품목으로 다시 부상했다. 기계류 수출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와 건설광산기계의 수출이 두드러졌다.

자동차 수출은 2004년 122% 증가한 데 이어 2005년에도 63% 증가하는 등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광산기계 수출 또한 브라질 현지의 광산개발 붐에 편승해 2004년부터 100%이상의 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대 브라질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백만 불, %)

MTI	품목명	2004		2005		2006(1-7 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81	산업용전자제품	873	78.3	1,167	33.6	897	42.5
83	전자부품	221	87.8	285	29.0	246	43.6
21	석유화학제품	75	13.3	166	120.7	103	31.1
82	가정용전자제품	131	10.8	173	23.3	190	115.8
43	직물	72	15.1	76	5.9	34	-30.1
72	산업기계	40	29.5	71	79.2	53	19.3
741	자동차	29	121.7	51	74.0	66	133.6
22	정밀화학제품	40	19.0	49	22.1	38	51.1
24	요업제품	35	68.6	25	-26.7	13	-31.2
61	철강제품	20	64.2	32	55.1	41	128.1
42	섬유사	41	69.6	35	-14.7	23	9.0
31	플라스틱제품	32	57.9	35	10.6	18	-5.9
71	기초산업기계	26	15.7	56	112.5	27	18.5
75	기계요소공구금형	26	36.9	27	5.1	16	-5.8
41	섬유원료	13	240.4	14	6.9	9	-4.9
3203	타이어	16	-0.9	22	35.1	26	107.9
84	중전기	18	21.4	19	5.0	13	19.1
	총계	1,785	56.9	2,303	29.0	1,813	-

자료원 : KOTIS

한국의 대 브라질 주요 품목별 수출비중 추이

(단위: 백만 불, %)

	2004		2005		2006(1-7 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기전자제품	1,250	70.0	1,654	68.6	1,352	69.5
기계류	148	8.3	255	10.6	255	13.1
화학공업제품	153	8.6	244	10.1	155	8.0
섬유류	129	7.2	128	5.3	68	3.5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56	3.1	65	2.7	47	2.4
철강금속제품	34	1.9	46	1.9	50	2.6
생활용품	11	0.6	10	0.4	6	0.3
농림수산물	2	0.1	4	0.2	2	0.1
잡제품	3	0.2	5	0.2	9	0.5
총계	1,785	100.0	2,411	100.0	1,945	100.0

자료원: KOTIS(MTI 1단위 기준)

화학공업제품의 수출도 합성수지 및 유리제품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2003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005년에는 특히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제품의 수출 증가세가 현저했다. 2004년 일시적인 증가세로 돌아섰던 섬유류 수출은 2005년 들어 주종 수출품인 인조섬유 장 섬유사와 인조 장 섬유 직물의 수출 감소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2006년 7월 기준 수출 호조 품목은 자동차(133.6%), 철강제품(128.1%), 가정용전자제품 (115.8%), 타이어(107.9%), 정밀화학제품(51.1%), 전자부품(43.6%), 산업용 전자제품(42.5%) 등이다. 수출 부진 품목은 요업제품(-31.2%), 식물(-30.1%), 플라스틱제품(-5.9%), 기계요소공구금형(-5.8%), 섬유원료(-4.9%) 등이다

4) 품목별 수입

최근 2년간 브라질의 20대 수입품목

(단위: 백 만 달러, %)

순위	2004년				2005년			
	HS4단위	품목명	금액	비중	HS4단위	품목명	금액	비중
1	2709	석유	6,772	10.79	2709	석유	7,666,995	10.43
2	2710	석유 및 석유조제품	2,109	3.36	2710	석유 및 석유조제품	2,905,904	3.95
3	8708	자동차용부분품과 부속품	2,041	3.25	8542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조립회로	2,528,442	17.82
4	8542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조립회로	2,035	3.24	8708	자동차용부분품과 부속품	2,472,183	21.18
5	8529	무선송신기기, TV수상기 부분품	1,180	1.88	8529	무선송신기기, TV수상기 부분품	1,552,171	23.29
6	3004	의약품	1,064	1.69	3004	의약품	1,322,858	25.09
7	3104	칼륨비료	1,001	1.59	2701	석탄	1,304,877	26.86
8	2711	석유가스	985	1.57	2711	석유가스	1,061,753	28.31
9	2701	석탄	889	1.42	8411	터보제트, 터보프로펠러	1,034,173	29.71
10	8411	터보제트, 터보프로펠러	869	1.38	3104	칼륨	975,521	31.04
11	2933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854	1.36	8473	타자기 및 워드프로세서부분품	968,878	32.36
12	8803	항공기부분품	790	1.26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923,552	33.61
13	3808	살충제, 살균제 등	777	1.24	8803	항공기부분품	829,790	34.74
14	3105	광물성 혹은 화학비료	769	1.22	2933	승용차	818,726	35.85
15	8473	타자기 및 워드프로세서부분품	768	1.22	8409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798,734	36.94
16	1001	밀	730	1.16	8409	항공엔진 부품	730,979	37.93
17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714	1.14	8483	송출 장비	703,417	38.89
18	8409	항공기엔진부분품	622	0.99	3808	살충제, 살균제	654,790	39.78
19	8703	승용차	583	0.93	1001	밀	649,013	40.66
20	3102	질소비료	574	0.91	7403	정제 동	616,953	41.50

자료원: 브라질 재무부 (www.receita.fazenda.gov.br/aduana)

천연자원 강국인 브라질의 경우 당연히 1차 상품 보다는 제조품의 수입 비중이 높다. 2004년 기준으로 총 수입에서 1차 상품의 수입 비중이 19%에 불과한데 반해 완전 제조품의 비중은 77%에 달했다.

브라질은 석유 수출국이자 수입국이기도 하다. 2004~5년 브라질의 1~2위 수입품목은 석유 및 석유조제품(총 14% 비중)이 차지했다. 지난 2년간 3~6위 수입품목은 변함없이 자동차 부품, 전자집적 회로, 무선송신기기, 의약품 등이 차지했다.

2005년 브라질 수입액은 전년 대비 17.1% 증가한 735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자본재 및 중간 소비재 품목이 전체의 수입품의 7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지역별 및 국가별 수출입 추이

1) 지역 및 국가별 수출 추이

브라질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어느 한 지역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은(Global Trader) 지역 별로 균형된 수출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최대 수출지역은 EU로 그 비중 (25%)은 30%를 넘지 않는다. 미국 및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은 두 번째로 높은 22%에 달했으며 아시아의 수출비중은 15%를 기록했다. 같은 경제 통합체인 MERCOSUR의 수출 비중은 9%에 달했다.

지난 3년(2003~2005년 9월)간 지역별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수출시장인 EU나 북미 지역, 아시아 등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거나 정체를 보인 반면 아프리카, 카리브 등 신규 시장에 대한 수출이 큰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의 빠른 경기회복 세에 힘입어 그간 감소했던 MERCOSUR 회원국에 대한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가별 수출 (상위 10대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6(1-6월)	
2004	2005		금액	비중
1	1	미국(1위)	11,208	18.4
2	2	아르헨티나(2위)	5,308	8.7
3	3	중국(3위)	3,659	6.0
4	4	네덜란드(5위)	2,544	4.2
5	5	독일(4위)	2,620	4.3
6	6	멕시코(6위)	2,143	3.5
9	7	칠레(9위)	1,717	2.8
8	8	일본(7위)	1,799	3.0
7	9	이탈리아(8위)	1,780	2.9
14	10	러시아(11위)	1,455	2.4
-	-	-	-	-
15	18	한국(18위)	908	1.5

자료원 : 브라질개발부(MDIC)

국가별로는 미국이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2005년 1~9월 기준으로 미국의 수출 비중은 제 2대 수출 시장인 아르헨티나의 2배인 19%를 상회했다.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인 중국이 2004~5년 연속 3대 수출시장의 위치를 차지했다. 지난 2년(2004~2005년 9월)간 1~6위의 수출 순위는 변하지 않은 반면에 7~10위 사이의 수출시장에서는 비교적 큰 변화가 있었다. 일본과 이탈리아가 주춤하는 사이 칠레와 러시아가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2) 지역 및 국가별 수입

지역 및 경제 통합체 별 수입

(단위: 백만 달러, %)

	2003		2004		2005. 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MERCOSUR	5,686	11.78	6,393	10.18	5,173	9.57
중미공동시장(CACM)	50	0.10	79	0.13	59	0.11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49	0.10	10	0.16	12	0.02
북미(미국 + 캐나다)	10,476	21.69	12,377	19.71	10,280	19.02
EU	12,687	26.29	15,923	25.36	13,686	25.32
아시아	8,923	18.49	12,278	19.56	12,316	22.78
중동	1,620	3.36	2,304	3.67	1,774	3.28
아프리카	3,254	6.74	6,172	9.83	4,901	9.07
오세아니아	316	0.65	402	0.64	454	0.84
총계	48,260	100.00	62,782	100.0	54,056	100.00

자료: 브라질 개발부(MDIC), * 최근 지역별 통계는 미 발표

국가별 수입(상위 10대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6(1~6월)	
2004	2005		금액	비중
1	1	미국(1위)	6,717	16.2
3	3	독일(4위)	3,043	7.4
2	2	아르헨티나(3위)	3,482	8.4
4	4	중국(2위)	3,493	8.4
6	5	일본(5위)	1,892	4.6
9	6	알제리(9위)	1,233	3.0
7	7	프랑스(8위)	1,352	3.3
5	8	나이지리아(6위)	1,648	4.0
8	10	이탈리아(10위)	1,183	2.9
10	9	한국(7위)	1,615	3.9

자료원 : 브라질 개발부(MDIC)

지역별로 브라질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균형적인 수입시장 구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최대 수입지역은 EU로 그 비중은 25%에 달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은 약 20%로 2위 수입대상지역이다. 그러나 양 지역으로부터 수입은 최근 3년간 감소하거나 정체 상태에 있으며 MERCOSUR로부터의 수입도 감소 추세에 있다. 그에 반해 아시아와 아프리카로부터 수입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시아로부터 수입 비중은 2004년 18%에서 2005년에는 23%까지 증가했다.

2005년 기준으로 브라질의 최대 수입 대상국은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독일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만 해도 2대 수입시장이었던 아르헨티나는 2005년에 독일에 추격당해 한 계단 낮은 3위에 머물렀다. 중국은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4위에 머물고 있다. 한국도 2년 연속 브라질의 10대 수입 대상국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알제리의 경우 석유 수입 증대에 힘입어 2005년 2004년보다 세 계단 오른 6위를 기록했다.

라. 수입 현황

1) 수입 추이

전통적으로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자재 공급 국이었다. 2004년 기준 브라질은 한국의 22대(2003년 24대) 수입 대상국이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제1의 대상국이다.

우리나라의 브라질에 대한 천연자원 의존도를 살펴보면, 먼저 농산물의 경우 대두박류(24.1%), 음료(23.2%), 곡류(23.0%), 커피류(17.7%), 두류(17.6%), 주류(10.6%), 연초류(10.0%) 순으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의 경우 철광에 대한 의존도가 35.9%로 가장 높았으며 고령토(6.6%), 동광(2.1%), 원유(0.5%) 순으로 높은 의존도를 나타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브라질로부터 수입은 1999년 이후 해알화 평가절하에 따른 브라질산 제품의 가격 인하, 2000년 이후 국내 원자재 수요급증 등에 힘입어 커다란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2004년에도 對 브라질 수입은 철광 및 곡물 수입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36% 증가했다. 이 결과, 한국의 총수입대비 비중은 2000년 0.6%에서 2004년에는 1.0%로 증가했다. 브라질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0%에서 2004년 1.5%로 증가했다.

2005년 들어서도 브라질로부터 수입은 광산물, 고무 및 가죽제품 수입 증가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해왔다.

2) 품목별 수입 현황

대 브라질 수입품목은 광산물, 철강금속 제품, 농수산물 등 1차산품이 전체의 약 85%에 달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수입품목 구성을 살펴보면 농수산물(32.1%), 광산물(31.4%), 철강·금속제품(21.7%) 등 3개 제품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산물과 농수산물이 제1위 수입품목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광산물은 철광 및 원유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어 2005년 들어 다시 최대수입품목으로 부상했다.

전통적으로 브라질로부터의 최대수입품의 자리를 차지해왔던 철강·금속제품수입은 농수산물, 광산물에 이어 제3의 수입품목으로 떨어졌다.

최근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에서 눈에 띄는 상황은 원유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주목사항은 2005년 들어 크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동차 수입이 브라질로부터 수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 브라질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불, %)

MTI	품목명	2004		2005		2006(1-7 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1	금속광물	520	52.2	805	54.7	460	15.9
61	철강제품	452	24.2	601	33.1	276	-3.1
01	농산물	678	47.8	582	-14.2	263	-6.9
13	광물성연료	162	-3.1	207	28.1	103	-36.0
25	제지원료및 종이제품	76	50.9	78	3.9	75	89.0
21	석유화학제품	40	14.7	35	-12.1	17	-12.9
33	가죽 및 모피제품	23	57.3	43	82.2	24	17.3
22	정밀화학제품	13	12.6	17	26.3	10	-7.5
02	축산물	8	87.9	20	157.5	19	83.6
62	비철금속제품	24	555.4	10	-59.4	17	197.5
12	비금속광물	7	-11.8	9	30.9	5	-13.6
03	임산물	15	-1.4	10	-37.3	5	-15.3
83	전자부품	7	-53.0	9	40.2	3	-53.5
71	기초산업기계	7	-3.0	9	37.5	16	376.1
	총계	2,195	35.6	2,435	10.9	1,384	7.8

자료원 : KOTIS

마. 무역수지 현황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브라질과의 교역에서 2002~2004년 3년간 일시적인 적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해오고 있다. 대 브라질 무역흑자는 1998년 한때 11억 달러에 달해 양국간 주요 통상 현안으로 대두되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 브라질과의 교역에서 한국이 일시적인 적자를 기록한 것은 브라질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와 브라질로부터 철광, 대두 등 1차 상품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대 브라질 무역적자는 2002년 100만 달러에서 2003년에는 약 5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004년에도 4억 달러를 상회했었다.

그러나 2005년 무역수지는 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2006년 7월까지도 2억 2천 9백만 불 흑자를 기록 중이다.

13. 투자통계

가. 연도별 FDI 유입

1990년대 중반 이후 브라질은 개도국 가운데 중국에 이은 2대 FDI 유치국이자 중남미 지역 최대 FDI 유치국으로 부상했다. FDI 유입액은 1990~1995년 사이 연평균 20억 달러에서 1996~2000년에는 연평균 240억 달러로 증가했다.

2000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1990년대 브라질이 주요 FDI 유치국으로 부상한 이유를 ①풍부한 천연자원 ②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내수시장 존재 ③거시경제적 안정과 안전한 감시기관 ④성장성 및 수익성 제고 ⑤자유로운 경영 및 관리 등 5가지로 꼽았다.

그러나 브라질에 대한 FDI는 경기 침체와 경제정책 전망의 불확실성 확대, 민영화 사업 중단 등의 영향으로 2000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2001~2004년 연평균 FDI 유입 규모는 168억 달러로 떨어졌다.

2004년에 브라질은 전년보다 약 79.1%가 증가한 181억 달러의 FDI를 유치했다. FDI의 증가의 일등 공신은 중남미 최대 맥주 제조업체인 AmBev가 2004년 8월 세계 3대 맥주 제조업체의 하나인 벨기에의 Interbrew와 주식교환을 통해 InBev 그룹을 형성하는 등 전략적 제휴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 합병 건으로 브라질은 50억 달러의 FDI를 유치했다.

2000-2005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월	3,028.96	1,657.23	1,475	905	993	1,218
2월	1,688.74	994.68	856	788	1,024	869
3월	2,247.52	2,085.65	2,387	284	703	1,402
4월	1,369.01	2,028.97	1,964	796	381	3,038
5월	1,666.33	2,040.33	1,428	541	207	711
6월	3,404.93	1,093.48	1,530	186	738	1,328
7월	5,153.04	2,489.89	930	1,247	1,600	2,035
8월	2,488.47	1,403.18	882	980	6,089	1,143
9월	1,584.05	1,487.87	1,236	739	646	43
10월	2,121.42	1,335.11	1,244	314	1,316	825
11월	5,721.71	2,181.95	1,154	1,954	1,319	1,175
12월	2,305.08	3,659.00	1,503	1,409	3,150	1,407
총계	32,779.24	22,457.35	16,590	10,144	18,166	15,194
전년대비 증감율	14.7%	-31.5%	-26.1%	-38.9%	79.1%	-16.4%

자료원: 브라질 외교부 사이트(MDIC)

2005년에 들어서는 전년보다 16.4%가 감소한 152억 달러의 FDI를 유치하는데 그쳤다. 1999년을 고비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FDI 증가세는 2004년에 들어오면서 전년 대비 70.9% 성장으로 반전에 성공했으나, 경제 성장 둔화, 사상 유래 없는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2005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마이너스 증가세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보였다. (아래 표 참조)

하지만 작년 연말 국가위험도 순위가 하향 조정되고 ‘투자적정’ 단계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는 브라질 경제 진단 결과가 발표되자 이에 고무된 외국인 투자자들은 12월 한달에 만 유망업체의 주식에 15억 달러나 투자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추가 감소를 막는데 도움을 주었다.

나. 국가별 FDI 유입

전통적으로 브라질에 대한 주요 직접 투자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영국 등이었다. 이 중에서도 미국은 2000년까지 대 브라질 최대 투자국으로써 확고한 위상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새로운 투자자가 등장하면서 기존 판도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존의 주요 투자자였던 독일, 일본, 스웨덴, 영국의 위상이 낮아진 반면에 네덜란드의 부상이 특히 두드러졌다. 2004년 외국인 투자 순위를 살펴보면 네덜란드(39.0%), 미국(19.6%), 카이만 제도(7.5%) 순위였으나, 2005년에 접어들어 미국(21.5%), 네덜란드(14.8%), 멕시코(7.7%) 순위로 바뀌어, 미국이 對 브라질 최대 투자국 지위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국가별 FDI 비중

(단위: %)

국가	2004	2005
미국	19.6	21.5
네덜란드	38.0	14.8
멕시코	0.3	7.7
프랑스	2.4	6.7
캐나다	2.9	6.6
독일	3.9	6.4
스페인	5.2	5.6
카이만 제도	7.5	5.0
호주	0.0	4.0
일본	1.2	3.6
기타	19	18

2003년 말 매출액 기준으로 브라질에 진출해 있는 50대 다국적 기업의 총 매출 규모는 990억 달러에 달했다. 50대 기업 중 멕시코 기업 2개사(Telmex와 America Movil)와 아시아 기업 2개사(도요타와 LG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은 모두 유럽과 북미 기업이었다.

이들 다국적 기업의 주요 활동 분야는 통신, 자동차, 식음료, 석유 및 천연가스, 소매 등 6개 분야로 대별된다.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 현지 내수시장을 확보(market-seeking strategies)하거나 자원 확보(resource-seeking strategies)를 목적으로 브라질에 진출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에 반해 브라질을 기반으로 한 제3시장 진출, 즉 글로벌 시장 전략(효율성 추구형 전략, efficiency-seeking strategies)을 구사하는 기업은 아직 소수에 불과했다.

브라질 진출 10대 다국적 기업(매출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기업명	주요 활동 분야	국적	총 매출액	수출액
1	Telefonica	통신	스페인	7,704	-
2	Bunge	식품	미국	6,382	2,010
3	Ambev	음료	브라질/벨기에	5,932	n/a
4	Fiat	자동차	이탈리아	4,714	326
5	Volkswagen	자동차	독일	4,689	1,485
6	Shell	석유	네덜란드/영국	4,284	158
7	GM	자동차	미국	4,235	978
8	Carrefour	소매	프랑스	3,816	n/a
9	Nestle	식품	스위스	3,336	132
10	Cargil	식품	미국	3,287	1,163
.	.	.	.	.	.
.	.	.	.	.	.
42	LG Electronics	전자	한국	638	n/a

주 : 2003년의 입수 가능한 통계를 반영. * 최근 자료 미입수됨

자료원: 유엔 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다. 분야별 FDI 유입

분야별 FDI 유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1995년까지 누계		2000년까지 누계		2001~2005.9 누계		총 누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목축 광물	925	2.2	2401	2.3	5,382	6.1	7,783	4.1
제조업	27,907	66.9	34,726	33.7	34,373	39.1	69,099	36.2
자동차	4,838	11.6	6,351	6.2	5,822	6.6	12,173	6.4
화학	5,331	12.8	6,043	5.9	5,960	6.8	12,003	6.3
식품	2,828	6.8	4,619	4.5	9,955	11.3	14,574	7.6
기계장비	2,354	5.6	3,324	3.2	1,453	1.7	4,777	2.5
기타	12,556	30.1	14,389	14.0	11,183	12.7	25,572	13.4
서비스	12,864	30.9	65,888	64.0	48,211	54.8	114,099	59.7
통신	399	1.0	18,762	18.2	17,945	20.4	36,707	19.2
기업서비스	4,952	11.9	11,019	10.7	3,900	4.4	14,919	7.8
금융중개	1,638	3.9	10,671	10.4	5,723	6.5	16,394	8.6
에너지전력가스	0	0.0	7,116	6.9	6,133	7.0	13,249	6.9
소매	2,886	6.9	10,240	9.9	7,406	8.4	17,646	9.2
기타서비스	2,988	7.2	8,080	7.8	7,104	8.1	15,184	8.0
총계	41,696	100.0	103,015	100.0	87,966	100.0	190,981	100.0

자료원: 브라질 중앙은행(BCB), * 최근 자료 미발표

1990년대 중반 이후 FDI는 통신 및 전력산업 민영화,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에 힘입어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브라질에 대한 총 FDI 누계 중 서비스 부문이 차지 하는 비중은 1995년 31%에서 2000년에는 64%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감소한 데 반해 제조업 부문과 석유 및 광물 채취 등 1차 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2001~2005년 9월까지)간 서비스업의 비중은 55%로 떨어졌다. 그에 반해 제조업 비중은 39%, 농목축 및 광물 비중은 6%로 늘었다.

라. 브라질에 대한 투자 선호도

2005년 9월에 발표된 유엔 무역개발 위원회(UNCTAD) 자료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바라본 2005~2006년 브라질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선호도는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중국, 인도, 미국, 러시아에 이어 5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2005~2006년 브라질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선호도 순위

전문가 평가			다국적기업 평가		
순위	국가	응답 비율	순위	국가	응답비율
1	중국	85%	1	중국	87%
2	미국	55%	2	인도	51%
3	인도	42%	3	미국	51%
4	브라질	24%	4	러시아	33%
5	러시아	21%	5	브라질	20%
6	영국	21%	6	멕시코	16%
7	독일	12%	7	독일	13%
8	폴란드	9%	8	영국	13%
9	싱가포르	9%	9	태국	11%
10	우크라이나	9%	10	7%	

자료원: UNCTAD FDI Prospects, 2005~2008, <http://www.unctad.org/fdiprospects>.

1) 투자분야

우리나라의 對 브라질 투자 진출은 브라질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정책과 경제 안정화로 인한 내수 확대 및 MERCOSUR 등 지역 경제공동체 출범으로 인한 시장규모 확대 등에 힘입어 1994년 이후 급증했다. 그러나 대 브라질 투자는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여력 저하 및 연이은 브라질 경기 침체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1995년 이후 연간 1,000만 달러대의 수준을 유지해 오던 對 브라질 투자는 2001년 이후 100만 달러 대로 투자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2004년부터 브라질 경기회복을 겨냥해 그 동안 주춤했던 우리 기업의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재개되고 특히 브라질의 자원 개발을 겨냥한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우리 기업의 對 브라질 투자 규모는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특히 2005년 들어 브라질 국내시장 확대와 인근

메르코수르 국가 등 남미시장 진출 확대 차원에서 투자가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BRICs 국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브라질 시장 진출에 대한 국내 업계의 관심들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2006년 6월 기준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총 투자 신고 액은 10억 1129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연도별 對 브라질 직접투자 추이(총투자 기준)

(단위: 천 달러, %)

연도	건수	금액
1968~80	2	269
1981~90	0	0
1991~93	2	219
1994	3	439
1995	4	19,158
1996	5	50,137
1997	3	47,751
1998	2	34,677
1999	4	26,507
2000	1	25,645
2001	8	63,173
2002	3	3,074
2003	5	6,980
2004	1	19,892
2005	14	218,799
2006(1-6월)	4	92,534
누계	72	1,011,290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건, 천불)

업종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총계	72	1,011,292	60	483,412
제조업	35	582,986	31	380,713
농림어업	1	23,780	0	0
광업	1	163,012	1	68,028
건설업	4	9,052	2	3,495
도 소매업	15	85,352	12	23,864
운수창고업	4	774	3	389
통신업	3	135,268	2	2,183
숙박 음식업	1	2,000	1	2,000
서비스업	8	9,068	8	2,740

자료원: 수출입 은행 (2006년 6월 기준)

또한, 한국의 對 브라질 직접투자는 총 72건으로 브라질은 한국의 23번째 투자대상국이다. 브라질은 한국 총 투자의 0.7% 비중(중남미 총 투자의 9.1%)을 점유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 중에는 버뮤다, 페루에 이어 세번째로 큰 해외 직접투자 대상국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무역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 중에서도 1차 금속과 조립금속에 편중되어 있다.

주요 진출업체로는 LG전자, 삼성전자, 포항제철, 삼성전관 등 대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에 반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진출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브라질 현지 생산업체 현황

업체명	투자지역	주요 생산품목
삼성전자	마나우스	칼라TV, 모니터, 하드디스크
	깜빠나스	핸드폰
삼성SDI	마나우스	TV용 브라운관(CDT), TV 및 모니터 부품 (DY), 휴대폰용 LCD 모듈
LG전자	마나우스	칼라TV, VCR, 전자레인지, DVD, 에어컨
	따우바테	모니터, 핸드폰, 광저장매체(CDR, CDRW)
동양크레디텍	상주제두스깜보스	TV브라운관용부품
포항제철	빅토리아	Pallet
CJ	베라시까바	라이신(가축용 사료 원료)
서울전자통신	마나우스	오디오용 트랜스포머, TV용 코일

자료원: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2005년 한국 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이미 현지에 확고한 입지를 구축한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은 현지 시장에서 시장성이 검증되었거나 유망한 품목을 중심으로 현지 판매 또는 생산품목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TV와 인터넷 등 첨단 기능을 갖춘 냉장고, 나노 세탁기 등 상류층을 겨냥한 프리미엄 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고 MP3와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공급 사양의 휴대폰 제품 출시도 가속화 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상파울루 시내 모룸비 쇼핑센터 내에 자사 제품 쇼룸 및 체험관인 Samsung Experience를 설치하여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팬택, LG화학, CJ, KT&G, 오토닉스, 상호물산, 산업은행 등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휴대폰, 화학, 식품, 염연초, FA, SI, 무역업, 금융업 등에 신규 진출했다.

2) 최근 우리기업의 브라질 진출 동향 및 계획

□ 최근 주요 투자 프로젝트 추진 현황(2001~2004년)

- 삼성전기 : 마나우스에 전자부품공장 건설(2001.6월부터 가동)
- LG 전자 : 마나우스에 에어컨 공장 증설 투자(2001.11월 완공)
- 현대자동차 : 2004년 고이아스 주에 상용차 공장 건설 프로젝트 추진

- 동국제강 : 브라질 CVRD, 이탈리아 철강 설비 공급업체인 Danielli, 브라질 Ceará 주정부와 합작으로 6억 달러 규모의 슬라브 생산 철강공장 건설 추진
- SK(주) : 미국 데본사와 공동으로 브라질 캄포스 해상광구에 원유 발견
- 삼성전자(2004년 10월) : 마나우스 공장에서 5년 만에 TV 생산 재개

□ 2005년 진출 동향

- 팬택 브라질(Pantech Brasil) 현지 법인 설립. 추가 생산 공장 건설 검토
- LG 화학 브라질 현지판매법인 설립, 2차 전지와 석유화학제품, 창호 등 주력 제품의 현지 마케팅 강화.
- CJ 식품사업 진출, 현지 생산법인 설립
- 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현지법인 KDB 브라질 설립 잠정 합의

□ 2006년 동향

- 팬택 제품 국내 시장 유통 시작
- 피라시카바 시에 CJ 라이신 공장 건설 공사 시작
- ASILA (한국 업체 6-7개사가 모여 설립한 컨소시엄), 브라질 물류 철도

□ 그 외 동향

- Brasil Ferrovias 중 협궤(Novoestates) 철도 구간 입찰서 경쟁 (2006년 3월 기준)
- 로템, 상파울루 지하철 4호선 입찰 관련 진행중 (2006년 8월 기준)
- 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현지법인 KDB 브라질 설립(2006년 6월)

IV. 출장가이드

14. 출장가이드

1. 기후

가. 기후 특성

브라질의 기후는 대략 적도 기후, 열대 기후, 아열대 기후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지만, 서로 인접한 지역이라도 환경 조건에 따라 기후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방대한 국토에 지역마다 상이한 환경을 가진 브라질의 기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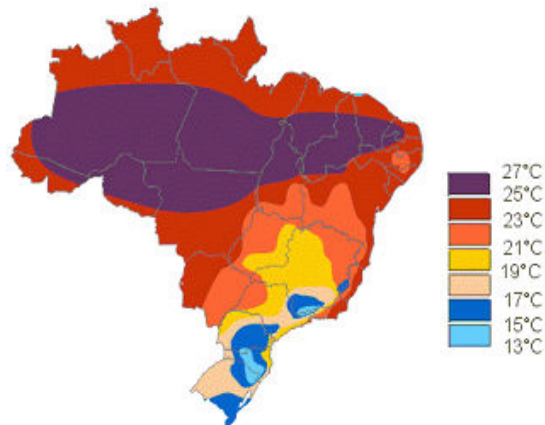
국토의 92% 이상이 남회귀선 (Tropic of Capricorn) 위쪽에 위치하여 전체적으로는 열대 기후를 가진 국가로 분류되며, 파라나(Paraná), 산타 카타리나(Santa Catarina), 리우그란데 두 술(Rio Grande do Sul)등 남부 3개 주(州)및 상파울루 주 남부 지방만이 온대기후에 속한다.

브라질 기후 분포도 및 특징



Am	- 고온 다습한 기후. - 연 평균 기온 20~22℃ 사이이며, 22℃를 훨씬 웃도는 날도 많음.
Aw	- 여름철에 큰 강우량을 보임. - 고온 다습한 기후. - 연 평균 20℃를 웃도는 기후로 겨울에도 18℃ 정도를 유지함.
Aw	- 고온 다습한 기후. - 여름과 가을철에 큰 강우량을 보이며 연 평균 기온이 20℃ 이상임.
Cwa	- 온대 기후. - 여름철에 매우 덥고 비가 자주 옴. - 겨울 철 최저 기온 20℃ 이하인 경우가 많음.
Cfa	- 온대 기후. - 여름철에 기온이 크게 상승하며 비도 자주 내림. - 겨울철에는 간혹 서리가 내리기도 하며, 평균 기온이 16℃ 정도임. - 여름철에는 30℃ 이상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음.
Af	- 연중 고온을 유지하며 연 평균 기온이 20℃ 이상임.
As	- 가을과 겨울철에 비가 잦으며 연평균 기온 20℃ 이상임.
BSh	- 연중 고온이 계속되며 겨울철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음. - 연 평균 기온 22℃ 이상임.
Cwb	- 여름철 기후는 그리 덥지 않고 비가 잦으며, 가을 겨울철에는 간혹 서리가 내림. - 연 평균 기온이 18℃ 정도이며 겨울철 최저 기온이 12℃ 이하인 날도 있음.
Cfb	- 여름철에 그다지 덥지 않으며 비가 자주 내리는 편임. - 겨울에는 서리도 가끔 내리며 한 여름을 제외한 연 평균 기온이 20℃를 상회함. - 겨울철 평균 기온 약 14℃ 정도이며 최저 기온이 8℃ 이하인 날도 자주 있음.

지역 별 연중 평균 기온 분포도



나. 브라질의 삼림

다양한 기후를 가진 브라질은 식물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특히 희귀한 식물과 다양한 종류의 식물이 살고 있는 아마존 삼림 지대와 판타날(Pantanal) 늪지대는 브라질 삼림 중 최대의 보고(寶庫)로 국제기구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아라우까리아(Araucária) 나무 숲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 서부 지방에는 가지가 구부러진 중간 크기의 나무가 빼곡히 들어찬 세하두(Cerrado) 숲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숲은 나무 외에는 별다른 종류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토양이 품질이 매우 우수하며 가축 사육에도 적절하다.

대서양을 인접한 브라질 해안 지역은 야자수를 비롯한 각종 열대 삼림이 우거져 경치가 매우 아름답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주요 도시 연 평균 기온

도시	평균 기온	평균 기온	도시	평균 기온	평균 기온
Brasília	7월 19,2° C	10월 22,4° C	Macapá	3월 25,7° C	10월 27,9° C
Manaus	2월 26,0° C	10월 27,6° C	Belém	2월 24,5° C	4월 26,7° C
Rio Branco	6월 23,2° C	10월 25,7° C	Porto Velho	6월 23,5° C	10월 25,8° C
Palmas	1월 25,5° C	9월 28,0° C	São Luiz	2월 25,7° C	11월 27,0° C
Teresina	2월 23,6° C	10월 29,0° C	Fortaleza	7월 25,7° C	1월 27,3° C
Natal	7월 24,4° C	2월 27,7° C	João Pessoa	7월 23,7° C	10월 27,7° C
Recife	8월 23,9° C	1월 26,6° C	Maceió	8월 23,5° C	1월 26,3° C
Aracaju	8월 24,5° C	3월 27,2° C	Salvador	7월 23,6° C	3월 23,7° C
Belo Horizonte	7월 18,1° C	2월 23,2° C	Vitória	7월 21,7° C	3월 29,5° C
Rio de Janeiro	7월 21° C	2월 26,5° C	São Paulo	7월 15,8° C	2월 22,4° C
Curitiba	6월 12,2° C	2월 19,9° C	Florianópolis	7월 16,3° C	2월 24,7° C
Porto Alegre	6월 14,3° C	2월 24,7° C	Campo Grande	6월 19,1° C	1월 24,4° C
Cuiabá	7월 22,0° C	11월 27,2° C	Goiânia	7월 20,8° C	10월 24,6°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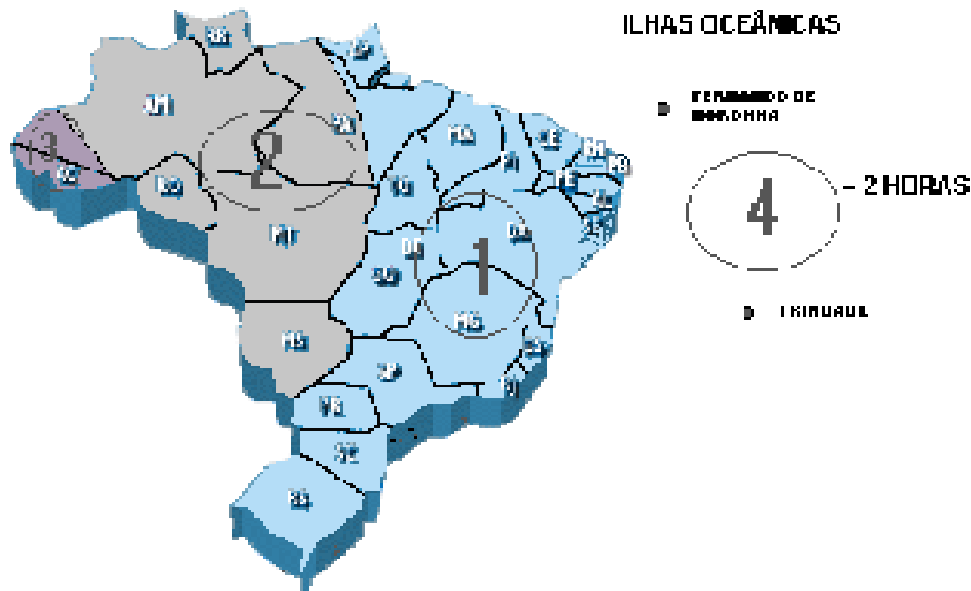
2. 시차/근무시간

가. 시차

서울과 상파울루는 정확히 12시간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서울 기준 10월 25일 오전 10시는 상파울루 24일 오후 10시가 된다. 하지만 한국과 브라질의 서머타임 실시 기간에는 시간차가 줄거나 늘어 날 수 있다.

국토가 방대한 브라질에서는 브라질리아 시각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있으며 그린위치 시계보다 적게는 2시간 많게는 5시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브라질리아(1지역)의 오전 10시는, 빠라(Pará) 주의 벨렝(Belém) 시(2지역)에서는 오전 9시, 아크레(Acre) 주의 리우브랑쿠(Rio Branco) 시(3지역)에서는 8시인 반면, 페르난도 데 노롱냐(Fernando de Noronha) 섬(4지역)에는 브라질리아(Brasília) 보다 1시간 빠른 오전 11시에 해당한다.



시차	지역
Greenwich 시각 - 3시간	제 1지역
Greenwich 시각 - 4시간	제 2지역
Greenwich 시각 - 5시간	제 3지역: Acre 주와 Amazonas 주 일부
Greenwich 시각 - 2시간	제 4지역: Fernando de Noronha Trindade 등의 대서양 연안의 섬

나. 근무 시간

근무 시간에 대한 규정은 도시마다 약간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심 시간은 12시~14시까지 두 시간이나,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며 점심 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곳도 많다.

은행의 경우, 월~금 9시~16시까지 영업하며, 일반 상점 등은 월~토 9시~18시까지 영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레스토랑의 경우 11시에 개점하여 익일 새벽 2~3시까지 영업하는 곳도 있으며,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금요일 근무는 평소보다 1시간 빠른 17시에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

쇼핑센터의 경우, 평일과 토요일에는 10시에 개점하여 22시에 폐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요일 또는 공휴일(업소 별 개점 여부 자유 선택)에는 14시에 개점하여 20시에 폐점한다.

다. Summer Time 제도

섬머타임 제는 해마다 에너지 자원부(Ministério de Minas e Energia)가 발표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되며, 시작과 종료일은 물론 실시일수도 달라진다. 제 35회 섬머타임 제가 실시되었던 2005년의 경우, 10월 16일 자정에 시작하여 2006년 2월 19일에 종료되었으며 총 실시일수는 125일이었음

섬머타임제는 브라질리아 시각을 기준으로 하며 참가하는 주(州)들은 시계를 1시간 앞당겨 조절한다. 섬머타임 기간 중에는 한-브라질 시차가 11시간이 되며, 아래와 같은 주에서 실시된다.

□ 섬머타임 제 실시 주(州)

- Distrito Federal (브라질리아)
- Espírito Santo
- Goiás
- Mato Grosso
- Mato Grosso do Sul
- Paraná
- Rio de Janeiro
- Rio Grande do Norte
- Santa Catarina
- São Paulo

3. 도량형

가. 전기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전압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상파울루와 리우 데 자네이루 지역에는 60Hz, 110V 또는 120V가 일반적이거나, 살바도르나 마나우스 시에는 127V, 헤시페, 브라질리아 등의 지역에서는 220V 가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브라질 가전제품 업체의 경우 110/220V 겸용 제품을 만들거나 2가지 모델을 독립적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흔하다. 상파울루에서 220V 전용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적정 코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는 변압기를 사용하거나 새로 코드를 설치해야 한다. 전기코드는 미국산 모델과 유사하며 보통 2개의 구멍(11자, 돼지코 모양)이나 있으나 한국산과는 규격이 조금 달라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 도량형

○ 세계 도량형 시스템과 일치

단위	단수	복수	표기
길이	metro (미터)	metros	m
	polegada (인치)	polegadas	"
면적	metro quadrado	metros quadrados	m ²
부피	metro cúbico	metros cúbicos	m ³
시간	segundo	segundos	s
	minuto	minutos	min
	hora	horas	h
주파수	hertz	hertz	Hz
속도	metro por Segundo (초속)	metros por segundo	m/s
무게	grama	gramas	g
	quilograma	quilogramas	kg
	tonelada	toneladas	t
압력	pascal	pascals	Pa
전력	watt	watts	W
전기	ampere	amperes	A
전압	volt	volts	V
온도	grau Celsius	graus Celsius	° C

4. 출입국/비자

가. 비자

1) 비자의 종류

비자 종류	D	O	T	II
무비자	90일 까지	90일 까지	90일 까지	90일 까지
대상	관용여권 소지자 (외교용)	관용여권 또는 취업여권 소지자	일반여권 소지자 (관광용)	일반여권 소지자 (비즈니스용)

○ 위에 언급한 비자 종류는 다시 통과비자, 관광비자, 임시비자, 영구비자, 공무비자, 외교비자 등으로 나누어진다.

① 통과 비자: 브라질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향하는 여행객에게 발행하는 비자로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제시하고 브라질 경유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 ② 관광 비자: 한국과 맺은 비자 협정에 의해 체류 기간 90일까지는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 기간 이상 체류를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관광, 친지방문이나 비즈니스상담 등의 목적으로 브라질을 방문할 경우에 해당되는 비자이다.

2) 비자 취득 및 체류 연장

- 브라질 비자 취득 또는 연장 시에는 업무 처리 시간이 지연되어 불편을 겪는 일이 빈번 하나,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여 기한 내에 해당 기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브라질 정부는 일부 국가(브라질 국민에게 복수 비자를 발행해 주는 국가)에 한해서 복수 비자를 발행하기도 하는 데, 기간은 최고 5년까지이다.
-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은 통상 90일까지 가능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자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하며, 복수 비자 소지자의 경우도 단수 비자 소지자와 동일하게 체류 기간이 적용된다.
- 체류 연장을 희망할 경우, 비자 기간 만료 전에 연방 경찰의 이민국을 찾아 체류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시 초과 일수에 비례하는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 비자 만료일부터 8일 안에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체류 연장은 12개월 마다 1회 가능하며, 연장 기간은 비자 기간과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나 연방 경찰의 결정에 따라 기간이 감소할 수도 있다.
- 비자 종류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달라진다. 관광 비자의 경우, 여권과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취업 비자 또는 이민 비자의 경우는 고용 계약서, 학력 증명서, 근무 경력 증명서 등이 추가된다. 비자 신청 비용은 국가 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비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브라질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은 여권 만료 기간이 입국 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후인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 간혹 이민국 통과 시 귀국 일이 명시된 비행기 티켓이나 여행자 수표, 신용카드, 현금 등의 제시를 요구하며 귀국일자 및 체류 비용을 소유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국민은 자국 주민등록증만 소유하면 브라질을 여행할 수 있다,

나. 출입국 수속 및 세관 신고

1) 출입국 수속 절차

- 이민국을 통과하여 입국 날짜가 명시된 도장을 여권에 날인한다.
- 세관 신고가 필요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직원으로부터 가방 검사를 받는다.

- 세관 신고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공항 외부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세관 검사 유무를 판가름하는 버튼을 눌러야만 한다.
- 녹색 버튼이 켜지면 세관 검사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항 외부로 나갈 수 있으며, 적색 버튼이 켜지면 세관 검사를 거치게 된다. 버튼은 가방 크기나 화물의 종류의 상관 없이 무작위로 켜진다.
- 신고 대상 품목이 세관 검사 시(적색 등이 켜졌을 때)에 발견되면 자발적으로 신고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많은 벌금이 부과된다.
- 세관 신고 면제 품목
 - 개인용 의류 및 위생용품
 - 서적 및 잡지
 - 개인 사용용 의약품
 - 담배 400g까지(시가는 250g까지): 18세 이상의 여행객에만 해당
 - 라디오 1대
 - CD 플레이어 1대
 - 카메라 1대
 - 캠코더 1대
 - 개인용 PC
- * 위의 품목의 경우에는 세관 신고가 필요 없으며,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가격 제한은 없다. 농산물 중 특히 부패 위험이 있는 식품의 경우 국내 반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나, 단 공항 내 Duty Free Shop 에서 구입했을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하다.

2) 공항-시내간 교통편

- 브라질입국은 일반적으로 상파울루 시에 위치한 과룰류스 국제공항(Aeroporto Internacional de São Paulo/Guarulhos)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밖에도 국내선 및 브라질을 거쳐 제 3국으로 향하는 일부 항공사의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콩고냐스(Aeroporto Internacional de Congonhas) 공항이 있다.

□ 과룰류스 공항 기점순환 버스 노선

- Guarulhos - Hoteis Paulista/Augusta
 - 공항을 출발해 빠울리스타 거리(Avenida Paulista)와 아우구스타 거리(Rua Augusta) 근교의 호텔 경유해 다시 공항으로 되돌아 오는 노선
- Guarulhos - República
 - 과룰류스 공항과 헤뿌블리카(República)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
- Guarulhos - Congonhas
 - 과룰류스 공항과 콩고냐스 공항 간을 연결하는 노선

- Guarulhos - Terminal Rodoviário Tietê
 - 과룰류스 공항과 치에떼(Tiete) 고속버스 터미널을 연결하는 노선
- Guarulhos - Shopping Eldorado
 - 과룰류스 공항과 엘도라도(Eldorado)쇼핑센터를 연결하는 노선
- Guarulhos - Terminal Rodoviário Barra Funda
 - 과룰류스 공항과 바하 폰다 (Barra Funda) 고속버스 터미널을 연결하는 노선

□ 공항 순환버스 사용료

- 현재 Air Bus Service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항 순환 버스 이용료는 R\$24.00 (1달러=R\$2.13, 2006년 06월 기준)이며, 요금 인상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탑승 전에 미리 확인 하는 것이 좋다.

□ 공항 순환버스 티켓 구입처

- 과룰류스 공항 내 매표소: (11) 6445-3811
- 콩고냐스 공항 내 매표소: (11) 5090-9225

□ 과룰류스 공항- 시내(Avenida Paulista) 기준 택시

- 대략 R\$80.00 수준(2006년 6월 현재, 약 36불)
- 공항 바로 앞에 택시 정류장이 있으며 행선지를 말하면 요금을 알려주고, 택시 정류장에서 순번대로 택시를 타면됨, 택시요금 정액만 내면 됨.

□ 주의 사항

- 화물에는 반드시 이름, 주소, 전화 번호, 연락처, 목적지 등을 적은 쪽지를 가방 안에 넣는다.
- 화물 분실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가방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도 이러한 개인 정보가 있으면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복잡한 공항 대기실이나 버스 터미널 등지에서는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짐을 보관하여 분실을 미연에 방지한다.

3) 비행편

□ 서울-상파울루 비행편

- 과거에는 대한항공 서울-상파울루 간의 직항 노선이 있었으나 폐쇄 되었으며 현재는 유럽 또는 미국을 경유하여 브라질에 입국할 수 있다.

항공사	출발지	경유지	경유지	도착지
Air Canada	Seoul	Vancouver-CAN	Toronto-CAN	São Paulo
Air France	Seoul	Paris-FRA	Paris-FRA	São Paulo
Alitalia	Seoul	Roma-ITA	Roma-ITA	São Paulo
Continental Air lines	Seoul	Tokyo-JAP	New York-USA	São Paulo
KLM	Seoul	Amsterdam-HOL	Amsterdam-HOL	São Paulo
Lufthansa	Seoul	Frankfurt-GER	Frankfurt-GER	São Paulo
	Seoul	Frankfurt-GER	Zurique-SUI	São Paulo
Swiss International Air Lines	Seoul	Frankfurt-GER	Frankfurt-GER	São Paulo
United Airlines	Seoul	New York-USA	New York-USA	São Paulo

- 모든 항공사는 전화 및 웹사이트를 통하여 예약이 가능하며, 아래 요금은 서울 발 상파울로 행 비행 편 이코노믹 클래스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여행시기 및 기간에 따라 가격이 다소 차이가 난다.

□ 취항 항공사 리스트

- Air Canada
 - Tel : (55-11) 3254-6630
 - Fax : (55-11) 3254-6639
- Air France
 - Tel : (55-11) 3049-0900
 - Fax : (55-11) 3049-0900
 - 화물 관련 문의 : (55-11) 6445-5835
 - 과물류스 공항 데스크 : (55-11) 6445-2211
- Alitalia
 - Tel : (55-11) 2171-7610
 - Fax : (55-11) 2171-7610
 - 화물 관련 문의: (55-11) 6445-5304
 - 과물류스 공항 데스크 : (55-11) 6445-2005
- American Airlines
 - Tel : (55-11) 4502-4000
 - Fax : (55-11) 4502-4000
 - 과물류스 공항 내 데스크 : (55-11) 6445-4069
- Continental Air lines
 - Tel : (55-11) 6445-4208
 - Fax : (55-11) 6445-4287
 - 화물관련정보: (55-11) 6445-4188

- KLM
 - 상파울루 사무소
 - Tel : 0800-880-1818 (무료 전화)
 - Fax : (55-11) 3212-1864
 - Check-In : (55-11) 6445-2011 / 6445-2887 Fax : (11) 6445-2623
 - 화물 관련 정보 : (55-11) 3051-7210 / 3051-5788
 - 리우 데 자네이루 사무소
 - Tel : (55-21) 3212-1861
 - Fax : (55-21) 3212-1846
- Lufthansa
 - 상파울루 사무소
 - Tel : (55-11) 3048-5800
 - Fax : (55-11) 3846-5568
 - 공항 데스크 : (55-11) 6445-3906 / 6445-2499
- Swiss International Air Lines
 - 상파울루 사무소
 - Telefax : (55-11) 3016-4747
 - 과를류스 공항 데스크 : (55-11) 6445-2572 Fax: (55-11) 6445-3158
 - 화물 관련 안내: (55-11) 6445-5010/ 6445-5003
- United Airlines
 - 상파울루 사무소
 - Tel : (55-11) 3145-4200
 - Fax : (55-11) 3145-4284

5. 환율/환전

가. 환율

1994년 화폐 개혁 이후 탄생한 브라질 화폐는 헤알(Real)로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현재 지폐로는 1헤알, 2헤알, 5헤알, 10헤알, 20헤알, 50헤알, 100헤알이 사용되고 있으며, 동전으로는 1센타보(Centavo), 5센타보, 10센타보, 25센타보, 50센타보, 1헤알이 사용되고 있다.



1 헤알



2 헤알



5 헤알



10 헤알



20 헤알



50 헤알



100 헤알

나. 환전

브라질에서 달러 ↔ 헤알 또는 유로 ↔ 헤알로 환전할 수 있으며, 특히 달러환율은 보통 다음과 같이 세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환전 시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 Dolar Comercial: 수출입 등 상거래 시 또는 은행간 거래 시에 적용되며 중앙은행에 의해 엄격히 관리된다.
- Dolar Paralelo: 주로 달러 상인들에 의해 정부에 신고 없이 암거래할 때 적용된다.
- Dolar Turismo: 중앙은행에 등록된 환전소에서 거래되는 달러로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개인이 환전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다.
- 2006년 08월 30일 기준 환율
 - Dolar Comercial: 2.136
 - Dolar Paralelo: 2.25
 - Dolar Turismo: 2.075

일반 은행이나 환전소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며, 상파울루 지역이나 리우 지역 중심지에는 곳곳에 환전소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쇼핑센터 및 관광지에서는 환전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환전 시에는 골목 등의 외진 곳 보다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의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환전 시에는 가능하면 주변 사람에게 환전 액수가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하는 것이 좋다. 암달러 상 등을 이용할 경우 다소 높은 환율을 적용하여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위폐를 받게 될 위험도 크다. 브라질에는 중앙은행 허가 하에 영업 중인 환전소에서 바꾼 달러조차도 위폐일 경우가 간혹 있다.

□ 상파울루 지역의 환전소 및 환전 가능한 은행

- Sagitur
 - Av. Roque Petroni Jr., 1089 (Morumbi Shopping - Piso Térreo),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5181-7386 / 5182-0287
- Action - Aeroporto de Guarulhos (과를류스 공항 내)
 - Rodovia Helio Smidt, S/N, TPS1, Piso Terreo, Cumbica, Zip 07141-970, Guarulhos, SP, Brazil
 - Tel: (55-11) 6445-4459
 - Fax: (55-11) 6445-4458
 - Email: aeroportodecumbica@actioncambio.com.br
 - www.actioncambio.com.br
- Action - Aeroporto de Congonhas (콩고냐스 공항 내)
 - Av. Washington Luiz , piso térre São Paulo SP Campo Belo
 - CEP 04626-001
 - Tel: 11 5090-9247
 - www.actioncambio.com.br

- Action – Shopping Center D&D
 - Av. Das Nacoes Unidas, 12.555, Lj. 144, Mezanino, Brooklin Novo, Zip 04578-903, São Paulo, SP, Brazil
 - Tel: (55-11) 3043-9173
 - Fax: (55-11) 3043-9996
 - Email: shoppingded@actioncambio.com.br
 - www.actioncambio.com.br
- Action – Shopping Plaza Sul
 - Pca Leonor Kaupa, 100, Lj. 228, Jardim da Saude, Zip 04151-100, São Paulo, SP, Brazil
 - Tel: (55-11) 5073-0355
 - Fax: (55-11) 5073-9145
 - Email: plazasul@actioncambio.com.br
 - www.actioncambio.com.br
- Banco do Brasil
 - R. São Bento, 483, Centro, Zip 01011-100, São Paulo, SP, Brazil
 - Tel: (55-11) 3101-3614
 - www.bb.com.br
- Banco Real
 - Av. Paulista, 1374 1º Andar, Bela Vista, Zip 01310-100, São Paulo, SP, Brazil
 - Tel: (55-11) 3174-9740
 - www.bancoreal.com.br
- Citibank
 - Av. Paulista, 1111, Zip 01311-920, Bela Vista, São Paulo, SP, Brazil
 - Tel: (55-11) 4009-3000
 - www.citibank.com.br
- Bradesco
 - Av. Brigadeiro Faria Lima, 1664, Jd. Paulistano, Zip 01451-001, São Paulo, SP, Brazil
 - Tel: (55-11) 3815-7299
 - www.bradesco.com.br

6. 물가정보

□ 도시: 상파울루(브라질)			환율 : US\$1 = R\$2.14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430	7.1	구두(1켤레, 소가죽)	72
1.2	넥타이(1개, 실크100%)	50	7.2	치약(150g, 1개)	1.65
1.3	와이셔츠 (1벌, 면100%, 긴팔, 흰색, 현지브랜드)	86	7.3	칫솔(1개)	5.3

1.4	양말(1켤레, 면 100%, 현지산)	9	7.4	면도기(1세트)	5.27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380	7.5	건전지(1세트, 1.5V AA)	4.95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1.3	7.6	화장지(1통, 300매)	2.6
1.7	청바지(Levi's)	90	7.7	비누(1개)	0.72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11.36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2.47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12.7	8.2	볼펜(12개)	4.06
2.3	닭고기(1KG, 생닭)	3.31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2.36
2.4	쌀(1KG, Short Grain)	1.5	8.4	공CD(1통, 12개입, 700MB)	8.6
2.5	밀가루(1KG)	0.8	8.5	휴대폰(범용형)	158
2.6	설탕(1KG, 백설탕)	0.7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18.1
2.7	계란(10개)	1.3	8.7	인터넷가설비(1회최초, 1회설치)	26.8
2.8	감자(1KG, 현지산)	1.62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20.4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4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31,818
3.1	고추장(1Kg)	25	9.2	엔진오일(1L)	3.59
3.2	된장(1Kg)	16	9.3	휘발류(1L)	1.11
3.3	라면(1개)	1.5	9.4	자동차등록비(2,000cc)	2,234
3.4	설령탕류(1인분, 설령탕, 곰탕등)	6.8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1,318.18
3.5	불고기(1인분, 200g)	13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13	10.1	지하철(1구간)	0.98
3.7	김치찌개(1인분)	13.5	10.2	시내버스(1구간)	0.93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1.73
4.1	햄버거(1개)	3.1	10.4	택시(추가요금/Km)	1.3
4.2	피자(1판)	13.6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300ml)	0.63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40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2.4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17.33
4.5	담배(수입산, 1갑)	1.25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평 상)	0.06
4.6	위스키(1병, 750ml)	46.8	11.4	공중전화(3분, 시내 평상)	0.05
4.7	커피(1병, 175g)	4	11.5	국제전화 (현지-서울, 3분, 평상)	0.9
	5. 주택(150㎡)		11.6	국내우편 (일반편지, 1통, 2~3 페이지)	0.38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inished)	1,800	11.7	국제우편(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0.93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2,736	11.8	특급우편 (DHL, 1개, 1kg 이하, 현지-서울)	108.69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없음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3.91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없음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0.79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
6.1	TV(29인치, 칼라, 범용)	772			
6.2	VTR(6헤드, 범용)	172		※5.3 계약 당시 첫 달 임차료로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217		집주인이 직접 지불함	
6.4	전자레인지	245		※10.4 정지한 경우 분당0.13불	
6.5	냉장고(LG 750L / LR 27SPW)	6,227		※11.11 기본요금+사용료 (월8㎡ 사용시)	
6.6	에어컨(LG Split Hi-wall 600BTU/h)	604.5			

□ 도시: 상파울루(브라질)			- 환율 : US\$1 = R\$2.14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 (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6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136.36
12.2	외국인학교 (등록금, American School)	없음	18.2	상여금(월 급여 대비%, 연간)	1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11,590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 급여 대비%, 연간)	7.65~11%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14,809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30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18,544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120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20,236	18.6	연간국경일	13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68.18	18.8	노동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3,000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4시간
13.3	골프공(1타)	117.7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706.36	19.1	법정최저자금	50,000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22.68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2,000
13.6	영화관람료 1회 (개봉관, 성인최신)	6.8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다양함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 (개인소득세)	다양함
14.1	의료보험료 (4인 가족, Full Cover, 치과제외)	10,908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72%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81.8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무료			

14.4	치과(스켈링, 1회)	54.53	※ 18.8 각 노조마다 다름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1.27	※ 19.5 은행마다 차이가 많이	
	15. 신문·방송·잡지		나며 조건 대출물량은 은행과	
			조정이 가능함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117..73		
15.2	한국신문(1개월)	22.73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54.54		
15.4	잡지(1부, Time)	6.8		
	16. 호텔			
16.1	특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654		
16.2	특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327		
16.3	중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90		
16.4	중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66		
16.5	조식 (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20.36		
16.6	조식 (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0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910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680		

7. 교통/통신

가. 시내교통

1) 버 스

버스는 브라질에서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이지만 버스 노선이 많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다. 상파울루 지역의 경우 9,000대의 일반버스가 통행하고 있지만 단번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노선이 없어, 2번 이상을 바꾸어 타거나 지하철로 바꾸어 타야 될 경우가 대부분이다.

Bilhete Unico는 일반 Pre-Paid 카드처럼 일정액을 입금한 후에 버스 또는 지하철 승차 시 요금 지불을 위해 사용하는 카드로, 여러 번 대중교통을 바꾸어 타는 경우에 매우 유효하게 쓰인다. 2시간 이내에 버스 또는 전철을 4번까지 환승할 수 있으며, 맨 처음에 탑승하는 교통수단에서만(버스, 전철 또는 국철) 요금이 정산되며 이후에는 자동으로 패스하면 된다. Bilhete Unico는 주요 지하철역에 매표소가 있다.

상파울루에서 운행하는 일반버스



시영으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의 시설은 상당히 낙후되고, 오랜 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 시 유의해야 한다. 현재 버스요금은 R\$2.00(성인 기준) 이다.

2) 지하철 /철도

상파울루 시 지하철은 남북을 잇는 자바과라(Jabaquara)와 산타나(Santana)간의 17Km 노선 (18 개역)과 동서로 달리는 이타게라(Itaquera) -바하 폰다(Barra Funda) 등 4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으며, 2006년 8월 기준 4호선 건설이 진행 중에 있다.

리우에는 1호선과 2호선이 있다. 철도편은 완전히 낙후되어있는 상황으로 상파울루 근교 도시를 잇는 구간을 제외하곤 거의 물품 수송 수단으로만 사용된다. 같은 지점을 가는 데에도 지방버스보다 시간이 더 걸리며 불편하므로 사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 상파울로 지하철 노선

- 1호선: Linha Azul(청색선) : Jabaquara - Tucuruvi 구간 운행
- 2호선: Linha Verde(녹색선) : Ana Rosa - Vila Madalena 구간 운행
- 3호선: Linha Vermelha(적색선) : Corint/Itaquera - Barra Funda 구간
- 4호선: Linha Amarela(황색선) : Luz - Vila Sonia 건설 중
- 5호선: Linha Lilas(자색선) : Capao Redondo - Largo Treze 구간 운행

상파울루 지하철티켓 종류 및 요금

	1회용 티켓	R\$2.10	1회 탑승 가능
	5호선 전용 티켓	R\$1.95	1회 탑승 가능
	10회용 티켓	R\$20.00	10회 탑승 가능

자료원: 상파울루 지하철 공사, 2006년 08월 기준 환율 1달러= R\$2.14

3) 택시

택시는 우리나라의 콜택시에 해당하는 '라디오'택시와 일반택시가 있으며, 요금은 일반 택시에 비하여 콜택시가 약 2배 가량 비싼 편이다. 팁은 없지만 거스름돈이 잔돈일 경우 팁으로 지불하는 것이 상례이다.

도심여행 중에는 택시 이용이 안전하며,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에 목적지를 적어 두었다가 운전기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브라질이 초행인 경우에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하다.

브라질에서 택시제도가 잘 발달 되어 있으며, 주소만 운전사에게 말하면 대부분 목적지까지 안내해 준다. 단 운전사의 대부분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주소를 적어 줄 필요가 있다.

'하이퍼 인플레이'시절에는 택시 요금을 인플레이션 상승률에 맞춰 수시 인상하였기 때문에 미터기를 지수화하고, 지수에 맞는 요금표를 택시에 비치하고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요금표를 수시로 교체하였다. 인플레이시대 이후에는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됨에 따라 택시미터기에 직접 요금이 표시되고 있다.

택시 요금의 경우 시간 기준제와 거리기준제가 혼용되고 있고(기본은 시간제이나 일정 속도가 넘으면 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함) 대략 1km 주행 시 평균 R\$1.30 요금을 징수하며, 기본요금은 R\$3.70이다. 20시 이후는 20% 할증료가 붙는다. (2006년 08월 기준, 환율 1달러= R\$2.14)

나. 국내교통

1) 비행기

대부분의 세계 주요도시와 브라질 간 운행노선이 있어 항공편은 편리한 편이며 대부분 상파울루의 과룰류스(Guarulhos) 공항이나 리우데 자네이루의 갈레아웅(Galeao)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로 과룰류스 국제공항 공항세는 86헤알(약 38달러)이며 유럽 또는 미국을 경유하여 한국-브라질 여행 시 왕복 공항 이용요금은 400~500헤알 (170~220 달러) 선이다. 국내항공도 잘 발달되어 있으나 독과점인 관계로 요금이 비싼 편이다.

국내 항공요금

출발지	도착지	왕복 요금 (단위 R\$)
상파울루	리우	500~900
상파울루	마나우스	1700~3000
상파울루	쿠리치바	500~900
상파울루	포르투알레그레	500~900

2) 고속버스

고속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브라질에는 가까운 지방으로 여행할 경우에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다. 장거리 여행용 버스에는 침대 및 화장실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상파울로 시내에는 Tiete와 Barra Funda, Jabaquara 3개의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으며 목적지에 따라 터미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발 전에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한다.

□ 자바파라(Jabaquara)터미널

지하철 자바파라 역과 연결되어 있으며 9개 도시를 연결하는 6개 회사 17개 버스 노선이 운행 중에 있다.

- 주소 : R. Jequitibas, S/N
- 전화 : (55-11) 3235-0322
- 목적지 : Cidade Ocian, Cubatao, Itanhaem, Mongagua, Peruibe, Santos, Sao Vicente, Bertioga, Guaruja, Vicente de Carvalho, Ponta da Praia, Praia Grande, Boqueirao, Rivieira

□ 바하폰다(Barra Funda) 터미널

지하철 바하폰다 역과 연결되어 있으며 466개 도시를 연결하는 168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다.

- 주소 : R. Mario de Andrade, 664
- 전화 : (55-11) 3235-0322
- 목적지 : 파라나 주, 상파울루 남부 지방, 고이아스 일부 도시, 마뚜그로쑈두술(Mato Grosso do Sul) 지역 일부 도시 및 볼리비아(Ribeira Alta)

□ 치에테(Tiete) 터미널

국내 최대 규모의 고속버스 터미널인 치에테 터미널에는 아마존지역과 아크레(Acre) 지역을 제외한 전국 611개 도시로 향하는 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등 국경선을 통과하여 이웃나라로 여행할 수 있는 고속버스 편도 이곳에 있다.

- 주소 : Av. Cruzeiro do Sul, 1800, Vila Guilherme
- 전화 : (55-11) 3235-0322
- 목적지 : 전국 611 개 도시 및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다. 우편

국내 운편 요금	일반 국내 우편 (단위: R\$)		상업용 인쇄물 (단위: R\$)	
무게 (g)	일반 우편	등기 우편	일반 우편	등기 우편
20 까지	0.55	3.05	0.85	3.35
20~50	0.85	3.35	1.10	3.60
50~100	1.30	3.80	1.65	4.15
100~150	1.60	4.10	2.00	4.50
150~200	1.90	4.40	2.35	4.85

우체국 업무시간은 월~금, 9시~18시이며 시가 직영하는 우체국과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우체국이 있는데 어느 쪽을 이용해도 우편물 운송에는 지장이 없다.

□ SEDEX Mundi

우체국 특급우편이며 한국까지는 4일(서류) 또는 5일(소포)이 걸린다. 하지만 브라질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일을 제외한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해야 하며 tracking이 잘 안되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는 다른 방법을 통해 우송하는 것이 좋다.

□ EMS

우체국 특급우편으로 해외로 보내지는 소포 배달 기간은 2 ~ 6일 정도 소요된다. 역시 트래킹이 힘들기 때문에 중요한 소포 등은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서류 우송	소포 우송
수신지: 한국	수신지: 한국
무게: 500g	무게: 1000g
운송방법: EMS	운송방법: EMS
운송료: R\$67.00	운송료: R\$:132.00
무료보험: R\$100.00 까지	무료보험: R\$200.00 까지

라. 특급운송회사

1) TNT

- 주소 : R. Rishin Matsuda, 569, V. Santa Catarina, Zip 04371-000,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5564-8600
- Fax : (55-11) 5564-8620
- 홈페이지 : www.tnt.com

2) DHL

- 주소 : Av. Santa Maria 1660, Lapa,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3618-3200
- Fax : (55-11) 3618-3303
- 홈페이지 : www.dhl.com.br

3) FedEx

- 주소 : Av. Das Nacoes Unidas, 17.891, Terreo, Zip 04795-100,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5641-7788
- Fax : (55-11) 5514-7343
- 홈페이지 : www.fedex.com.br

마. 전화

호텔에서 외부로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사용요금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고 전화를 해야 한다. 일반 전화를 사용하여 국제통화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비싼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국내 통화를 희망할 경우, 현금 또는 카드가 없는 비상시에는 수신자부담 통화를 할 수 있다. 수신자부담 통화는 상대방이 통화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가 연결된 즉시 자신의 이름을 밝혀야만 상대방이 끊어버리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휴대폰, 공중전화 또는 일반 전화를 사용하여 통화가 가능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9090을 누르고 희망하는 번호(1234-5678)를 누른다.
 - 예) 9090 - 1234-5678
- 시외통화 희망 시 9를 누르고 지역번호와 통화 희망번호를 누른다.
 - 예) 9 - 19 - 1234-5678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국제전화를 할 경우 현지통화 요금이 적용되어 매우 저렴하게 한국과 통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atin America Telecom R\$50짜리를 구입하면 중국, 미국, 홍콩, 대만은 11시간 54분 통화 가능, 한국 및 유럽은 7시간 34분 통화 가능, 일본은 6시간 56분 통화가 가능하다. 또한 동 카드로 국내 전화를 할 경우에도 요금이 매우 저렴한 편이다.

50헤알, 30헤알, 10헤알 등 다양한 가격의 전화 카드가 있으며, 구입처는 오푸기 슈퍼, 롯데 식품, 제일 식품 등 한인 타운 소재 식품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인터넷 전화를 통해 국제 통화가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한인 타운인 봉헤찌로 지역에서 구할 수 있다.

8. 호텔/식당

가. 호텔

브라질 호텔은 세계 유명 호텔 체인점과 국내 자본으로 설립된 호텔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국제적인 품격과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시설 및 규모에 따라 별 1개 ~ 5개까지 등급의 호텔이 있으며, 해변의 리조트 지역이나 산장 지대 휴양지 호텔들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건축 및 인테리어 장식으로 투숙객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파울루 시내에는 비즈니스맨을 위해 마련된 저렴한 호텔이 최근 많이 늘어 나고 있으며, 저렴한 숙박료에 비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프랑스 계 호텔인 IBIS 와 Formula 1 등이 경제적인 호텔에 속한다. 특히 IBIS 호텔의 경우 최근 체인점의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바이아(Bahia) 주를 비롯하여 해안에 위치한 휴양지 호텔 들은 남국 특유의 정취를 물씬 풍기는 장식으로 고객을 맞이하고 있고 남부 지방 및 산악 지역에 위치한 호텔들은 원목 가구에 벽난로 등 마치 스위스 샬레와 같은 분위기로 고객을 사로잡고 있다.

비즈니스 출장 시, 접촉할 업체의 위치를 고려하여 호텔을 예약하는 것이 좋으며 숙박료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이 다름), 체크 인/아웃 시간 및 아침 식사의 포함 유무 등도 확인해야 한다.

□ 호텔 서비스 관련 약어

- Solteiro(Individual)- 싱글, Dúplo - 더블
- Ar Condicionado - 에어컨, Telefone - 전화
- Frigobar - 냉장고, Recepção - 프런트
- TV a cabo - 케이블 TV, Café da manhã - 아침 식사
- Cofre - 금고, Diária - 1일 숙박료
- Musica Ambiente - 실내 음악, Televisão - TV

□ 관련 사이트

- <http://uk.hotels.com/index.jsp>
- <http://travel.hotels-and-discounts.com>

□ 상파울루 소재 호텔 리스트

- Maksoud Plaza Hotel
 - 주소: Alameda Campinas 150, Cerqueira Cesar, Zip 01404-000,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3145-8000
 - Fax: (55-11) 3145-8001
 - E-mail: maksoud@maksoud.com.br
 - Site: <http://www.maksoud.com.br>
 - 숙박료: Executive \$113.38
 Jr. Suite \$138.02
 Premium \$126.19,
 Premium Paulistana Suite \$211.97
 Premium Brasiliana Suite \$252.39
- Nh Della Volpe
 - 주소: Rua Frei Caneca, 1199, Cerqueira Cesar, Zip 01307-002, Sao Paulo, SP, Brazil
 - Tel.: (11) 3549-6464
 - Fax: (11) 3288-8710
 - E-mail: l.bernardes@nh-hotels.com
 - Site: <http://www.nh-hotels.com>
 - 숙박료: Standard Room \$90.73
- Gran Estanplaza São Paulo
 - 주소: R. Arizona, 1517, Zip 04567-003, Sao Paulo, SP, Brazil
 - Tel: 55 11 2162 3500
 - Fax: 55 11 2162 3509
 - 예약: 0800 726 1500 / 55 11 3059 3277
 - E-mail: reservas@estanplaza.com.br, granplaza@estanplaza.com.br
 - 숙박료: Exexutive Room의 경우 \$112 정도
- San Raphael
 - Largo do Arouche 150, 01219-000, Sao Paulo

- Tel.: (55-11) 3325-0333
 - Fax: (55-11) 3221-3202
 - E-mail: sanraphael@sanraphael.com.br
 - Site: <http://www.sanraphael.com.br>
 - 숙박료: Standard Room 경우 \$60 정도
- Blue Tree Morumbi Convention
 - Av. Roque Petroni Junior, 1000, Zip 04707-000, São Paulo, SP, Brazil
 - 숙박료: Superior Roomdouble \$95
Superior Roomtriple \$160
Superior Roomquad \$230
- L'hotel
 - Al. Campinas 266, Bela Vista, Zip 01404-000,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3283-0500
 - Fax: (55-11) 3283-0515
 - E-mail: reservas@lhotel.com.br
 - Site: <http://www.lhotel.com.br>
 - 숙박료: Deluxe Room \$250
- Bourbon Sao Paulo Business
 - Av. Dr. Vieira de Carvalho 99, Zip 01210-010, São Paulo, SP, Brazil
 - Tel.: (55-11) 3337-2000
 - Fax: (55-11) 3337-1414
 - E-mail: bourbon.saopaulo@uol.com.br
 - Site: <http://www.bourbon.com.br>
 - 숙박료: Standard : \$72
- Estanplaza Paulista
 - Al. Jau 497, Zip 01420-000, São Paulo, SP, Brazil
 - 숙박료: Executive Room \$70
- The Time Othon Flat
 - R. Hans Oersted 115, Zip 04575-010, Sao Paulo, SP, Brazil
 - 숙박료 : Standard Room \$71
- Augusta Boulevard Hotel
 - 주소: Rua Augusta, 843 Cerqueira Cesar. Zip 01305-100,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3257-7844
 - Fax: (55-11) 3214-3833
 - E-mail: augusta@redepandehoteis.com.br
 - Site: <http://www.redepandehoteis.com.br>
- Best Western São Paulo Inn
 - 주소: Largo Santa Ifigenia, 40, Centro, Zip 01207-010, São Paulo, SP, Brazil
 - Tel.: (55-11) 3228-6033

- Fax: (55-11) 3229-0959
- E-mail: spcenter@uol.com.br
- Site: <http://www.bestwestern.com.br>

- Blue Tree Caesar Towers Berrini
 - 주소: R. Quintana, 1012, Brooklin Novo, Zip 04569-011,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5508-5000
 - Fax: (55-11) 5508-5001
 - E-mail: hotel@bluetree.com.br
 - Site: <http://www.bluetree.com.br>

- Blue Tree Caesar Towers Nacoes Unidas
 - 주소: R. Fernandes Moreira, 1371, Chacara Santo Antonio, Zip 04716-003,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5189-6555
 - Fax: (55-11) 5189-6556
 - E-mail: reservas@bluetree.com.br
 - Site: <http://www.bluetree.com.br>

- Comfort Hotel Paulista
 - 주소: Alameda Casa Branca, 363, Jardim Paulista, Zip 01408-001, São Paulo, SP, Brazil
 - Tel.: (55-11) 283-0066
 - Fax: (55-11) 283-0181
 - E-mail: chstrianon@choiceatlantica.com.br
 - Site: <http://www.choiceatlantica.com>

- Crowne Plaza São Paulo
 - 주소: R. Frei Caneca, 1360, Cerqueira Cesar, Zip 01307-002, São Paulo, SP, Brazil
 - Tel.: (55-11) 3253-2244
 - Fax: (55-11) 3253-5665
 - E-mail: vendas@crowneplaza.com.br
 - Site: <http://www.crowneplaza.com.br>

- Estanplaza Funchal Faria Lima
 - 주소: Rua Funchal, 281,VI Funchal, São Paulo, SP, Brazil
 - Tel.: (55-11) 3897-7500
 - Fax: (55-11) 3897-7509
 - E-mail: funchal@estanplaza.com.br
 - Site: www.estanplaza.com.br

- Estanplaza Ibirapuera
 - 주소: Av Jandira, 501, Moema, São Paulo, SP, Brazil
 - Tel.: (55-11) 5095-2800
 - Fax: (55-11) 5095-2809
 - E-mail: ibirapuera@estanplaza.com.br
 - Site: www.estanplaza.com.br

- Gran Melia São Paulo
 - 주소: Av. das Nacoes Unidas, 12559, Vila Cordeiro, Zip 04578-905, São Paulo, SP, Brazil
 - Tel.: (55-11) 3043-8000
 - Fax: (55-11) 3043-8001
 - E-mail: meliasps@dialdata.com.br
 - Site: <http://www.solmelia.es/>
- Grand Hotel Mercure São Paulo
 - 주소: Rua Joinville, 511, Vila Mariana, Zip 04008-011, São Paulo, SP, Brazil
 - Tel.: (55-11) 5088-4000
 - Fax: (55-11) 5088-4001
 - E-mail: mercure@accor.com.br
 - Site: <http://www.mercure.com.br>
- Hilton Hotel São Paulo
 - 주소: Av. Ipiranga, 165, Centro, Zip 01046-919, São Paulo, SP, Brazil
 - Tel.: (55-11) 3156-4300
 - Fax: (55-11) 257-3033
 - Site: <http://www.hilton.com>
 - 숙박료: \$200 이상

나. 식당

1) Feijoada와 caipirinha



브라질 요리는 다양한 민족의 음식문화가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졌다. 브라질 대륙의 원주민 인 인디오의 음식, 식민지 통치를 했던 포르투갈의 음식, 이탈리아 및 독일 이민자의 전통 요리 등이 어우러져 매우 독특한 음식 문화를 만들어 냈다. 또한 과거 커피 농장 등에서 일하던 아프리카인 노예용 음식인 "훼이조아다(feijoada)"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여러 부위를 검정콩과 함께 끓여 만든 요리인데, 과거의 값싼 요리에서 벗어나 명실 공히 브라질을 대표하는 대중적인 음식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대부분의 식당의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의 단골 메뉴에 포함되어 있으며 "까이빠링라(Caipirinha)"라는 사탕수수 주와 레몬으로 만든 칵테일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다.

2) Bar에서 식사하는 모습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는 거리 곳곳에 산재해 있는 바(Bar)가 있으며 원래는 커피, 음료수, 빵 등을 먹는 곳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간단한 점심 식사도 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상파울루 지역에는 요일별로 대표요리가 있어 어느 음식점에서나 이 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바(Bar)에서 제공되는 점심식사는 대부분의 경우 비슷한 메뉴이다.

예를 들어 목요일은 스파게티, 라비올리, 라자냐 등 파스타 중 한 두 가지를 서비스하고, 금요일은 가톨릭 국가답게 생선요리가 보편화되어 있다.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브라질 국민 요리인 웨이조아다를 볼 수 있다. 물론 요일 별 대표 요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 요일별 메뉴

- 월요일: Virado a Paulista (돈육 T-Born 스테이크, 콩소스, 계란 부침 소세지 쌀밥)
- 화요일: Bife a Role (쇠고기안심에 야채를 돌돌 말아 구운 요리)
- 수요일: Feijoada (검정콩,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다양한 부위와 소세지 등을 장시간 끓여 만든 요리, 쌀밥과 돼지껍질 튀김, 케일 볶음이 함께 서비스됨)
- 목요일: 파스타 요리
- 금요일: 생선요리
- 토요일: Feijoada

상파울루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이탈리아 요리는 어느 곳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지만, 특히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밀집지역인 Bexiga 지역에는 정통 이탈리아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즐비하며, 일본촌인 리베르다지(Liberdade) 지역에는 수십 개의 일본 음식점이 영업 중에 있고 최근 웰빙 음식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대부분의 쇼핑센터에서도 쉽게 일본음식을 먹을 수 있다.

웨이조아다와 함께 브라질을 대표하는 요리는 슈하스코(Churrasco)로 전문식당인 슈하스카리아(churrascaria)에서 맛볼 수 있다. 브라질 전국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슈하스카리아는 1인당 식사 비용을 지불하고 (R\$17~50: 약 7~20 달러 정도) 마음껏 고기와 샐러드를 먹을 수 있는 뷔페 타입 식당이다.



고기 덩어리를 꼬챙이에 끼워 웨이터가 직접 들고 손님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서빙을 하며, 다양한 부위의 쇠고기와, 돼지고기, 소세지, 닭고기, 양고기 등을 원하는 양만큼 먹을 수 있다. 테이블 위에는 표시판이 있어 파란 쪽으로 돌려놓으면 서빙을 계속하고 빨간 쪽은 서빙 중지를 의미하는데, 고기가 너무 빨리 서빙 되어 조금 쉬었다 먹기를 희망할 경우 빨간 쪽으로 돌려놓으면 된다.

3) 한국 요리

한인식당은 주로 상파울루 시에 위치한 봉헤찌로 (Bom Retiro) 지역과 아클리마사옹 (Aclimacao)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으며,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다. 특히 봉헤찌로 지역에는 5~6개의 한인 슈퍼마켓도 있어 한국반찬과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다.

○ 조선옥

- 주소 : Av. Aclimacao, 502, Aclimacao,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3271-9621, 9851-0978
- 주요 메뉴 : 정식, 찌개류, 불고기 등

○ 월궁

- 주소 : Av. Armando Ferrentini, 182, Aclimacao,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3277-7823
- 주요 메뉴 : 불고기, 냉면, 비빔밥 등

○ 서울관

- 주소 : R. da Gloria, 118/122, Liberdade,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3107-7713
- 주요 메뉴 : 회, 해물탕, 불고기, 탕수육 등

○ 한양관

- 주소 : R. Lubavitch, 12, S/12, Bom Retiro,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3223-2631/3361-8947
- 주요 메뉴 : 순대국, 순대, 생선구이, 찌개류 등

- 오뚜기 슈퍼
 - 주소 : R. Tres Rios, 245, Bom Retiro,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3326-1636
 - 주요 상품 : 한국 식료품 및 반찬, 일용잡화 판매

4) 레스토랑 정보

□ 브라질 식당

- Fogo de Chão Churrascaria
 - 주소 : Av. Moreira Guimaraes, 964, Moema,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5056-1795
 - 주요 메뉴 : 슈하스꼬(브라질식 바비큐) 등
- Vento Haragano Churrascaria
 - 주소 : Av. Reboucas 1001, Jd. Paulista,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3083-4265
 - 주요 메뉴 : 슈하스꼬(브라질식 바비큐) 등
- Angelilca Grill
 - 주소 : Av. Angelica, 430, Higienopolis,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3664-0070
 - 주요 메뉴 : 슈하스꼬(브라질식 바비큐) 등

□ 일식당

- 고야마(Koyama)
 - 주소 : R. 13 de Maio, 1050, Bela Vista,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3283-1833
 - 주요 메뉴 : 초밥/사시미, 우동
- 신토리(Shintory)
 - 주소 : Al. Campinas, 600, Jd. Paulista,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3283-2455
 - 주요 메뉴 : 다양한 일식 요리
- 야요이(YAYOI)
 - 주소 : R. Sao Carlos do Pinhal, 451, Bela Vista,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3285-1226
 - 주요 메뉴 : 초밥/사시미 등

□ 중국식당

○ Golden Fish

- 주소 : Av. Divino Salvador 61, Moema,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5561-2536
- 주요 메뉴 : 연어요리 등

○ Guinza

- 주소 : R. Galvao Bueno, 700, Liberdade,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3277-7204
- 주요 메뉴 : 북경오리요리 및 중국음식 전반

○ 아서원

- 주소 : R. Correa de Melo, 166, Bom Retiro,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3326-9488
- 주요 메뉴 : 자장면, 짬뽕, 탕수육 등

□ 이탈리아 식당

○ Massimo

- 주소 : Al. Santos 1.826, Jd. Paulista,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3284-0311
- 주요 메뉴 : 스파게티, 리조또 등

○ Lellis Trattoria

- 주소 : R. Bela Cintra 1,849, Jd. Paulista,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3064-2727
- 주요 메뉴 : 이탈리아 음식 전반

9. 관공서 관행

브라질의 관공서에서 한국에서와 같은 원스톱 서비스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정부기관은 물론 우체국이나 금융기관 등의 업무처리 속도는 매우 느린 편이며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브라질 특유의 관료주의적 성향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줄을 서서 차례를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은 기본이나 노약자나 임산부 등이 있으면 먼저 차례를 양보해야 된다. 같은 일도 한 번에 안되어 여러 번 요청해야 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각 은행에 대해 창구에서 15분 이상 고객을 기다리게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0. 공휴일

1) 국경일

국경일	날짜	내용
Paz Mundial / Ano Novo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 / 신정
Carnaval	매년 변동 2월~3월	카니발 축제 기간으로 공휴일은 하루지만 보통 3~4일을 휴무하게 되는 대 축제 기간 (2006년은 2월 27~28일 이었음)
Paixão	매년 변동 3월~4월	성 금요일: 부활 직전 금요일로 부활절 휴가의 시작. (2006년은 4월 14일)
Tiradentes	4월 21일	Jose Joaquim Xavier: 일명 Tiradentes 라고 불리던 브라질 독립투사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
Dia dos Trabalhadores	5월 1일	노동절
Corpus Christi	매년 변동 5월~6월	성체 축일(2006년은 6월 15일)
Independência do Brasil	9월 7일	독립 기념일
Nossa Senhora da Aparecida	10월 12일	성모 마리아 기념일
Finados	11월 2일	위령일
Proclamação da República	11월 15일	공화국 선포일
Natal	12월 25일	성탄

2) 축제

□ Carnaval(카니발 축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금욕을 해야 하는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고기를 먹고 가무를 즐기는 것을 기원으로 하는 축제로 브라질 전국에서 화려한 가장행렬 축제가 펼쳐진다. 특히 리우에서 열리는 삼바 축제는 각 삼바 스쿨에서 1년 동안 연마한 솜씨를 겨루어 승자를 가리게 된다.

리우카니발

□ Páscoa(부활절 축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로 국교가 천주교인 브라질에서는 이 기간 동안 직장은 휴무이며, 대부분의 상가가 문을 닫는다.

□ Festa Junina (6월 축제)

천주교 성인 중 성 안토니오, 성 베드로, 성 요한의 기념일이 모두 6월에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여 탄생하게 된 축제로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교회 마당에 모여 시골 옷차림과 음식을 마련하고 먹고 각종 게임을 즐기는 축제다. 축제의 꽃인 Quadrilha라는 춤은 포르투갈로부터 전해진 것이며, 남녀가 짝을 이루어 시골 농부 또는 처녀의 옷차림으로 춤을 춘다. 브라질은 6월이 겨울철이라 축제가 열리는 어느 곳에서나 맛볼 수 있는 전통 축제 음식 중의 하나인 Vinho Quente (뜨거운 포도주)가 선선한 날씨와도 잘 어울린다.

Festa Junina



□ Natal(성탄 축제)

가톨릭 국가인 브라질은 거리 곳곳마다 화려한 성탄 장식을 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한다. 한 여름에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브라질에는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에 두꺼운 빨간 솜옷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사탕을 나누어주는 산타클로스의 모습과 눈 대신 스티로폼 조각을 뿌려주는 쇼핑센터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11. 여행시 유의사항

가. 현지 팁 관행

택시를 이용할 때는 요금 외에 별도의 팁을 줄 필요가 없다.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할 때는 무거운 짐을 싣는 경우 나중에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택시를 타기 전에 요금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 좋다.

호텔 등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줄 경우, 여행용 가방 1개 당 2 헤알 정도의 팁을 지불하지만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침실 청소 시 눈에 띄는 곳에 침대 1개당 2 헤알 정도 놓아두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레스토랑에서 봉사료 10%를 포함한 계산서를 청구하는데, 이 때 역시 봉사료 10%는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명시하는 문장이 반드시 있다. 대부분의 고객은 별 이의 없이 봉사료를 지불하지만, 만일 서비스의 품질이 눈에 띄게 불만족스러웠을 경우 봉사료 계산을 거부해도 된다.

나. 체류 시 주의 사항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치안상태가 매우 불안하며 권총강도 및 납치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현지인 가운데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지인과 불필요한 시비 및 언쟁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야간 외출 시에는 현금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목걸이나 시계 등 고가품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권, 신분증, 신용카드 등은 돈지갑과 다른 주머니에 휴대하도록 하고, 저녁에는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1) 강도를 만났을 때 행동요령

양손을 들어 무기가 없음을 확인시킨 뒤 주머니를 가리키며 돈을 꺼내겠다는 제스처를 보인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천천히 꺼내면서 지갑을 완전히 꺼내기 전에 지갑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킨 뒤 꺼내어 돈을 건네준다.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반항하는 것은 위험하다. (참고로 강도를 당할 것에 대비해 100~200헤알 정도가 든 별도의 지갑을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임)

2) 택시

시내 어느 곳에서나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소를 제시하면 거의 어디든지 대부분 찾아갈 수 있다. 거리에서 직접 택시를 부르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호텔이나 사무실에서 택시를 불러서 이동하는 것이 편리하며 안전하다. 특히 시내 곳곳에 설치돼 있는 ‘Ponto de Taxi’ (택시 대기소: 시청에 등록된 택시만이 대기함)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3) 식수

석회질이 많아 수도물을 식수로 이용할 수 없으며, 미네랄워터를 구입하여야 한다. 음식점에서도 식수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으며 별도로 주문해야 한다.

4) 이발소 이용

한국인이 운영하는 이발소가 현지 교포들이 주로 밀집해 있는 봉헤찌로(Bom Retiro)나 브라스(Bras) 등의 지역에 있으며, 요금은 25~30헤알 정도이다.

5) 구두닭이

거리에도 일부 있으나 가급적 건물 내 공공장소에 있는 구두닭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요금은 현지화 5헤알에서 20헤알까지 다양하다.

6) 응급구호

전화번호 '193'을 누르면 앰불런스가 시립병원으로 이송하며, 이송비용은 무료이다. 민간 병원의 응급실 이용 시에는 고가의 진료비, 입원비 등 관련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7) 현지인 가정방문 시 선물준비

현지인 가정에 초대받은 경우 인삼차나 전통적인 한국문화가 담긴 민예품 등 한국적인 선물이면 바람직하나,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꽃이 무난하다.

12. 유용한 연락처

가. 공관 및 무역관

-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 Av. das Nacoes, Lote 14, Zip 70436-900, Brazilia DF, Brazil
 - 전화 : (55-61) 3321-2500
 - 팩스 : (55-61) 3321-2508
- 상파울루 총영사관
 - 주소 : Av. Paulista, 37, 9 andar,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3141-1278
 - 팩스 : (55-11) 3141-1279
-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 주소 : Av. Paulista, 1842, Conj.97, Cetenco Plaza Torre Norte, C.Cesar,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3289-4200
 - 팩스 : (55-11) 3289-4684
- 중소기업진흥공단 상파울루 사무소
 - 주소 : Alameda Santos, 1827 Conj.82 Cerqueira Cesar,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3142-9009
 - 팩스 : (55-11) 3142-9096

나. 병 원

- 나사렛 종합병원
 - 주소 : R.Newton Prado, 88, Bom Retiro,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3331-2774/3337-6703

- 봉헤찌로 종합병원 (원장 김 재수)
 - 주소 : R. dos Bandeirantes, 492, Bom Retiro,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3311-8544
- 녹십자 종합병원 (원장 이 영만)
 - 주소 : R. Bom Pastor, 905, Ipiranga,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6915-7444
- 김명규 안과 (원장 김 명규)
 - 주소 : R. Saturno, 347, Aclimacao,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3209-5440/3209-1418
- 이병훈 치과 (원장 이 병훈)
 - 주소 : R. dos Italianos, 327, Sala 12, Bom Retiro,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3221-8070
- 조 소아과 (원장 조 원극)
 - 주소 : Av. Turmalina, 176, Aclimacao,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3277-7669/3208/9423
- 김현경 산부인과 (원장 김현경)
 - 주소 : R. Newton Prado, 88, Bom Retiro, Sao Paulo, SP, Brazil
 - 전화 : (55-11) 3331-2774 / 3221-7966

다. 공항 및 항공사

- 과를류스(꿈비까) 국제공항: (55-11) 6445-2945
- 콩고냐스 국내공항: (55-11) 5090-9195
- VARIG(바리기) 브라질항공사: (55-11) 4003-7000
- TAM(탐) 브라질항공사: (55-11) 4002-5700
- AMERICAN AIRLINE 항공사: (55-11) 3214-4000

라. 긴급 연락처

- 화재 : 193
- 경찰 : 190
- 긴급구조 : 192
- 교통사고 : 194
- 휴일 약국문의 : 136

마. 교포언론사

- 동아일보
 - 전화 : (55-11) 3272-0711
 - 팩스 : (55-11) 3272-8986

- 조선일보
 - 전화 : (55-11) 5579-9388
 - 팩스 : (55-11) 5575-4083
- 중앙일보
 - 전화 : (55-11) 3326-2522
 - 팩스 : (55-11) 3313-0527
- 한국일보
 - 전화 : (55-11) 3209-9711
 - 팩스 : (55-11) 3341-3076
- 한국방송
 - 전화 : (55-11) 5571-8197
 - 팩스 : (55-11) 5575-3042
- 코리아 온라인(한인닷컴)
 - 전화 : (55-11) 3361-6204

13. 관광명소

가. 상파울루 (São Paulo)



□ 상파울루 시내 Paulista 거리

브라질은 세계적인 관광자원국가이나 국토가 광대하여 관광자원이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이구아수(Iguaçu), 오루 뿌레투(Ouro Preto), 살바도르(Salvador), 마나우스(Manaus) 등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상파울루는 브라질 최대 상공업 도시로서 역사가 깊은 유적지는 많지 않다.

1) SE 성당 (Catedral SE)



상파울루에서 제일 큰 성당으로서 시내 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용능력은 대략 8천 명 정도이다. 이 성당은 1914년에 준공하여 1954년도에 완공되었으며, 공사기간 중에 사망한 인부들의 시신과 역대 신부님들의 시신이 묻혀 있다. 성당의 둘레는 112미터, 폭은 44미터, 높이는 66미터(탑 꼭대기 까지)이다. 상파울루 발원지인 SE성당은 1554년 1월25일 바로 이곳에서 조제 안시에따(Jose Anchieta) 신부와 마누엘 다 노부레가(Manuel da Nobrega)신부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여기가 번지수로는 1번지가 된다.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방사선 모양으로 상파울루가 발전되어 갔다.

2) 이피랑가(Ipiranga) 독립기념 박물관



브라질은 1822년 9월7일 D. Pedro 1세에 의해 독립을 하게 되었다. 이 독립은 어떤 유혈 혁명 의 독립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포르투갈)로부터 내정간섭의 분리가 바로 이나라의 독립이었다. 이 독립기념 박물관내에는 브라질의 독립에 기여했던 인물들과 식민지 역사 박물관, 브라질의 발전상을 그림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3) 동양인의 거리(Liberdade)



1974년 상파울루 시 정부에서 이 거리를 동양인의 거리라고 명명하였다. 사실상 이 거리를 꼭 집어서 말하자면 일본인들의 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본 사람들의 가장 큰 문화 행사인 꽃 축제인 "하나마쓰리"를 이 거리(Rua Galvao Bueno)에서 실시되고 있다. 사실상 이 거리를 가보면 동양인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며, 가게들, 간판들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 대표적으로 이 세 나라 사람들의 음식문화를 가장 손쉽게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4) 이비라뿌에라 공원 (Parque do Ibirapuera)



상파울루가 시(市)로 지정된 지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954년 이 공원을 설립하였다. 보통 주중에는 자동차편을 이용하여 출입이 가능하나 주말에는 자동차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2000년에는 브라질 발견 500주년 행사가 성대하게 벌어져, 지금도 500주년 기념 행사 관련 전시회가 계속되고 있다. 이 공원의 면적은 15만평 정도이며, 주말에는 해변가를 찾지 못한 상파울루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5) 상투스 - 과루자 해변



브라질 5대 항구 중 하나인 상투스(Santos) 항은 무역항으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상파울루 시민들이 주말을 보내는 최대 휴양지로서의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상파울루 시내에서 자동차로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상투스시 해변의 경치는 매우 아름답다. 바닷가에 인접한 레스토랑에서 해물 요리도 맛보고 모래 사장을 거닐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관광 프로그램이다. 상투스 시와 근접한 곳에 과루자(Guarujá) 시가 있는데 역시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는 해변으로 유명한 도시이다.

나. 이구아수 (Iguaçu)

1) 이과수 폭포 (Foz do Iguaçu)



상파울루시에서 1,348km지점에 있는 폭포로, 버스로 약 16시간, 비행기로 약 2시간 거리이며,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3국간 국경을 이루는 빠라나(Paraná)주 포스 두 이구아수(Foz Do Iguaçu)시에 위치한 명물로, 세계에서 2번째로 큰 폭포이다.

2) 이따이부 댐 (Itaipu)



파라과이와 브라질 국경을 이루는 빠라나(Paraná) 강 상류에 위치하였고, 강 하류는 아르헨티나 내륙을 통과하여 대서양으로 이어진다. 이따이부댐은 브라질과 파라과이 양국간 협정에 의거 1976년에 착공하여 1991년 완공되었는데, 총 공사기간은 15년이였다.

다. 리우데자네이루 (Rio de Janeiro)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는 포르투갈어로 "1월의 강"이란 뜻의 도시로, 세계 3대 미항의 하나로 손꼽히는 아름다운 항구도시이다. 주요 관광지로는 다음과 같다

1) 예수상 (Corcovado)



리오 시내 해발 720미터 산 정상에 세어져 있는 예수상. 높이는 38미터, 무게 1,100톤으로서 리우 시민 모금에 의하여 1931년 이태리 천문학자 설계로 완성되었다. 동 예수상은 과나바라(Guanabara)만을 향하여 팔을 펴고 있으며, 이곳에서 리우 시내를 사방으로 바라볼 수 있다. 특히 야간에는 조명에 의하여 예수가 재림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승용차로 정상에 도착할 수 있으며, 전철 이용도 가능하다. 전철 운행시간: 08:30~20:00 (30분 간격으로 운행)

2) 빵 지 아수까르(Pão de Açúcar, 설탕빵山)



원래 인디오의 발음을 흉내 내어 부르게 된 산으로, 빵을 세워놓은 듯한 2개의 바위산(해발 396미터)으로서 과나바라(Guanabara)만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동 관광지는 식민지 이전에는 인디오 부족이 살고 있었다. 1865년 포르투갈 식민지 이후에는 군부대 기지로 사용, 관측소로도 이용되었으나 1909년 케이블카 공사를 시작, 1912년부터 운행(케이블카 길이 1.4킬로미터)하고 있고, 리오 해안을 가로지르는 13킬로미터의 니테로이(Niteroi) 다리와 시내 측면을 바라볼 수 있으며 예수석상과는 맞은편에 위치하였다. 관광시간은 오전 08:00~22:00 이다. (케이블카는 30분 간격으로 운행)

V. 무역

15. 교역관련 주요법규

1990년대에 들어와 브라질은 국내 시장 보호 정책, 수입대체 산업 육성책으로부터 수입 자유화 정책 등 시장개방에 의한 경제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수입품목 규제를 철폐하고 국산 유사품이 없는 품목의 관세면제 실시, 비관세 장벽의 대폭 축소 등의 조치와 함께 1990년 중 32%에 달하던 평균 관세율을 2000년말 9%까지 인하하였다.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1999년 1월 헤알화의 평가절하조치가 수출 경쟁력 회복에 효과가 없자 2000년 9월 개발부(MDIC)를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진흥정책을 입안하였다.

1995년 1월 발효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주도 국가인 브라질은 무역자유화에 합의하였다. 무역자유화의 내용으로 브라질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역내 무관세 교역 원산지 규정(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제품은 60%, 우루과이, 파라과이 제품은 50% 이상의 자국 내 부품 및 재료가 포함되어야 원산 물로 취급함) 적용, 무관세 교역 예외품목조항 설정(Negative System) 이 포함된다.

또한 2004년 1월, Mercosur 회원국은 지난 1997년부터 남미지역의 경제 불안에 따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해오던 대외공동추가관세 1.5%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브라질의 연방정부 부처 가운데 하나인 개발부(MDIC)는 무역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 부처는 연방정부의 재무부, 외무부 등과 합동으로 대외무역위원회(CAMEX: Câmara do Comércio Exterior)라는 대외무역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 브라질에는 Camex에 의해 제정된 200여 개의 무역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개발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2000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는 동 부서 홈페이지에서는 그 동안 발표된 법규를 연도별로 정리해, 무역관련 법률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

○ 홈페이지: http://www.desenvolvimento.gov.br/sitio/legislacao/res_Camex

개발부 산하에는 대외무역국(Secretaria de Comercio Exterior: Secex), 연방 세무국(Secretaria da Receita Federal: SRF),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 BCB)이 있어 각각 대외무역 실무, 수출입 관세, 외국환 거래 등 무역관련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모든 무역업자는 대외무역국(SECEX)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되고, 수출입 관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늘 연방 세무국의 발표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대외무역 시 발생하는 모든 금융 관련 문제는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된다.

또한 재무부(Ministério da Receita Federal) 홈페이지에도 무역 관련 법률 및 임시 조치 등이 주제별로 잘 정리되어 있다. 브라질-아르헨티나 자동차산업 협정, 원산지 증명, 제품 분류코드, 무역, 수입신고, 통관 및 통관사, 수출관련 서류, 세관조사, 국제우송, 수입관세, 관세 면제, 공산품세, 수출 인센티브 등에 관한 법률, 임시 조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홈페이지: <http://www.receita.fazenda.gov.br/Aduana/Legislacao.htm>

중앙은행 사이트 역시 외환거래 관련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조항을 열람할 수 있다.

○ 홈페이지: <http://www.bcb.gov.br/?RMCCI>

16.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허가

수입 허가서(I/L)는 SISCOMEX를 통해 발급되는데 수입 희망 품목에 따라 발급 필요 여부가 달라진다.

1) 자동발급 수입허가 (Licenciamento Automatico)

사전 통제 또는 특별 수입규제 품목이 아닌 대부분의 제품은 수입신고 시 자동으로 수입 허가서가 발급된다. 수입자는 수입품목의 사양, HS 코드, 수량, 가격, 운송료 등 SISCOMEX(무역서류 전산화 시스템)가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수입허가 자동발급대상 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입허가 자동발급 품목에 속하더라도 일부 제품의 경우는 통관 전 특별허가를 취득해야 하는데 주로 위생이나 환경 관련 제품이 그 대상이다.

○ 특별허가 요망 품목

- 육류, 해산물, 식품, 우유, 낙농가공품, 달걀, 꿀, 과일, 야채 등: 농림부 허가
- 천연 고무나 인조 고무: 환경부 허가
- 비료, 화장품, 약품, 향수: 보사부 등 유관 기관에 사전 등록 필요

2) 자동발급 불가 수입허가(Licenciamento Não-Automático)

수업 허가를 자동 발급할 수 없는 품목들은 선적 전에 또는 수입 신고에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SISCOMEX 행정조치표”에 열거되어 있으며 Drawback, BEFIEX, CNPq, ZFM 제도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도 모두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 선적 전

SECEX의 특별관리를 받는 제품이나 다른 정부기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물품이 이에 해당한다. 중고품, 수입세 감면 상품, 무가 상품(샘플, 기부품, 일시적 체류, 인체 및 동물 연구용품, 정신질환 치료제, 군수품, 방사능 물질, 원유, 원유 가공품, 환경 유해 물질, 항공기 등)

□ 세관 통관 전

Drawback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제품, 자유무역지대로 들어가는 물품, CNPq를 통해 들어오는 물품 등

나. 수입금지 품목

과거에는 자유 수입, 사전 수입 승인, 수입금지 품목 등으로 구분했으나 2006년 기준으로, 더 이상 이와 같이 분류하지 않는다. 단 정부 승인이 필요한 품목의 리스트는 DECEX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 무역 관세집(Tarifa Externa Comum: TEC)에는 해당 품목 옆에 "E"라는 표시와 함께 하단에 관련 법규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또한 수입 금지 품목에는 품목 옆에 "P"라고 표시했다.

수입 금지는 주로 해당 품목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취하는 조치이며 2006년 기준 수입금지 품목 수는 많지 않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중고품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중고차, 의류 등의 국내 반입은 거의 불가능하나, 일부 중고 기계의 경우 타당성이 인정되면 수입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브라질 정부는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로 수입되는 중고 기계나 설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다. 관세 비관세 장벽

브라질은 1990년 시장개방을 선언한 이래 관세, 비관세장벽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여타 무역국가에 비해서는 관세율이나 비관세 장벽의 벽은 아직도 높은 편이다. 주요 무역장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입 관세율이 아직 높음

브라질의 관세품목은 총 8자리 숫자에 대해 10,000여 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관세율은 0~35%까지 분포되어 있다. 모든 관세는 종가관세(ad valorem tariffs)이며 일부 통신제품을 제외하고는 CIF가격에 대해 부과된다.

브라질의 평균관세는 10.73%로 과거(1990년 32%)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다. 관세율의 적용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원자재(8~9%)나 반가공 품(11.9%)은 완제품(평균 15.8%)에 대해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 무역서류 전산화 시스템(SISCOMEX)은 아직 비 효율적이고 비용이 높음

1997.1월 대외무역국(SECEX)은 무역서류 전산화 시스템(SIS COMEX)를 도입하여 수입허가에 관한 절차를 전산화하기 시작했으나, 아직 상당히 많은 품목이 수입자동허가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SISCOMEX의 설치는 일반인에게는 아주 불편하다고 할 수 있다.

수입업체가 수입규제 규정을 알아보려면 SISCOMEX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는 등록된 수입업체만을 통해 가능하다.

3)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 품목에 대한 행정규제

1998.10월부터는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 품목에 대해 여러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위생요건, 품질요건, 안전요건 등의 승인을 취득해야 하는 일련의 행정조치가 발표되고 있다.

4) 통관지연

1998년부터는 under-invoicing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자동수입허가 불가 제품에 대해 따로 허가를 받게 하는 조치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범위를 넓혔다. 비록, 자동수입허가(licença automática) 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자동수입허가 불가 품목이 더 많다. Under-invoicing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관은 통관심사를 강화했는데 의심이 가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산정될 때까지 통관을 지연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5) 보건부의 제품등록기간

건강용품, 의약품, 음료 등은 보건부에 제품등록을 해야 수입 또는 판매가 가능한데 등록을 위한 자격 심사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라. 수입쿼터

브라질의 경우 무역보호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1988년부터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무역보호 제도를 사용하려는 국내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 덤핑행위에 대한 구제를 호소하고 있는데, 특히 전년도부터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6월 기준, 총 52건의 무역보호조치가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중 한국은 현재까지 총 3건의 덤핑조사가 있었으나 2건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1건은 덤핑판정을 받았는데, 인조 섬유건은 현지 변호사를 통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나일론의 경우 미흡한 대응으로 덤핑판정을 받게 되었다.

브라질에서 무역 구제소송의 경우 현지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나일론 6 번사 가 유일한 수입규제 품목이었으나 2006.6.28 일부로 반덤핑규제가 종료되어 (태광산업 5.2%, 기타기업은 52.2%의 상계관세 적용) 8월 현재 브라질의 대한 수입규제 품목은 없다.

브라질 정부는 장난감 수입에 대해 2004. 12. 15.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했는데 2005. 12. 31 까지는 현행 수입관세(20%)에 9%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고, 2006.6.30 까지는 8%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동 조치는 중국산 장난감을 겨냥한 것으로 한국은 동 조치의 적용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어 있다.

17. 관세제도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일원으로 회원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외 무역 공동 관세(Tarifa Externa Comum: TEC)를 사용한다. HS 코드와 마찬가지로 Mercosur 회원국이 사용하는 NCM은 8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절한 분류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통관사 또는 관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대외무역공동관세 과세 기준

- 특별세율(Aliquota Especifica): 관세법에 의해 특별히 규정된 경우
- 종가세율(Aliquota "Ad Valorem"): 수입할 당시 자유경쟁의 조건 하에 팔릴 수 있는 정상 가격에 부과 되는 세율로, 보통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가격이 많다.
- 압수 또는 유기된 상품: 이러한 수입 상품들은 경매 처분되는데 그에 대한 과세 기준은 경매 시의 낙찰 가격이다.

가. 관세율의 종류

기본적으로 수입 통관 시에 부과되는 기본적인 세금은 다음의 3가지가 있다.

- 수입세(Imposto de Importacao: I.I.)
- 공업제품세 (Imposto sobre Produto Industrializado: I.P.I.)
- 주 유통세(Imposto sobre Circulação de Mercadorias e Serviços: I.C.M.S.)

2004.5.1부터 수입품에 대한 사회기여세(Programa de Integração Social: PIS - Importação/ Contribuição Social para o Financiamento da Seguridade Social: Cofins - Importação)의 부여가 실시되었다.

1) 수입 관세(I.I.)

연방정부에서 관장하는 특별세로, 남미공동시장 형성 후 대외공동관세율에 적용되고 있다.

2) 공업제품세(I.P.I.)

공업제품세도 연방세이며 대부분의 국내 생산품과 외국 수입품에 대해 적용된다. 공산품세는 국내 생산품의 경우 제조업체의 판매 시, 수입품의 경우 통관 시에 적용된다. 하지만 수입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공업 제품세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수입관세가 높은 품목은 공업제품세도 높으며, 수출업체의 경우 동 세금이 면제된다.

3) 주 유통세(I.C.M.S.)

주 유통세는 국산품이나 수입품에 모두 적용하는 주(州) 부가가치세이다. ICMS 또한 수입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주 유통세는 1965년 제정되어 연방의 각 주와 브라질리아 연방 특구가 징세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정부의 가장 큰 세수원이다.

동 세금 상품의 유통, 서비스 제공, 주간(州間) 운송 시에 부과되며 수입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 유통세는 일반적으로 주에 따라 7%, 12%, 또는 18% 가 부과되며 상파울루 주의 경우 통상 18%가 부과되지만 품목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아 13% 또는 9% 정도인 경우도 있다.

4) 사회기여세(PIS/Cofins)

사회통합기여금(PIS)은 연방 보완법(Lei Complementar 07/1970)으로 시행된 사회 통합기여세(PIS)는 모든 법인에 대해 부과되며, 예외적으로 SIMPLES의 적용을 받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만 면제혜택 SIMPLES는 법률 제9317호(Lei 9317/96)로 제정된 영세기업을 위한 조세통합법이다. 세율은 법률 제10637호(Lei 10637/2002)에 따른 경우 2002.12.1.부터 1.65%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사회복지기여금(Cofins)은 모든 법인에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SIMPLES(Lei 9317/96)의 적용을 받는 영세 기업은 예외다. 일부 예외가 있으나 기준세율은 7.6%(지난 2001. 2.1부터)이 과세기준은 PIS와 같다.

나. 관세율 계산법

CIF 가격 100달러, 수입세 14%, 공업 제품세 15%의 제품이 상파울루 주에서 유통되는 경우(주 유통세 18%), 관세 포함 최종가를 계산하는 법

브라질 관세체계

브라질은 남미 공동시장 회원국으로서 대외 공동관세를 사용하며 수입 관세, 공업 제품세, 유통세, 사회 보장세가 누진 적용됩니다.

유통세의 경우 주마다 유통세율이 상이하며 상파울루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18%가 적용되며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사회보장세의 경우 수입자가 내게 됩니다.

아래 계산은 귀사 제품을 100달러로 가정하고 세금을 누진 적용하여 최종가격을 참고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며 실제 세금적용 시 주유통세, 사회 보장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IF 가격	100	USD
수입관세 (I.I)	14	%
공업세 (IPI)	15	%
유통세 (ICMS)	18	%
사회 보장세 (PIS/Cofins)	9.25	%
Example)		
CIF 가격	100.00	USD
수입관세 (I.I)	14.00	%
수입관세 산정가격	14.00	USD
공업세 산정기준 (CIF+I.I)	114.00	USD
공업 제품세 (IPI)	15.00	%
공업 제품세 산정가격	17.10	USD
유통세 산정기준 (CIF+I.I+IPI)	131.10	USD
새로운 유통세 산정기준 $[(CIF+I.I+IPI)*100]/(100-ICMS)$	159.88	USD
유통세 (ICMS)	18.00	%
유통세 산정가격	28.78	USD
사회 보장세 산정기준 (CIF+I.I+IPI+ICMS)	188.66	USD
사회 보장세 (PIS/Cofins)	9.25	%
사회 보장세 산정가격 (수입자 부담)	17.45	USD
최종가격	177.33	USD

18. 주요인증제도

가. 인증기관

1) 브라질 기술표준협회 ABNT

□ Associação Brasileira de Normas Técnicas

1940년에 설립된 브라질 국립 기술표준 협회로 국내 각종 기술 분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세계 규격을 갖추도록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ISO, IEC, COPANT, AMN 등 세계적인 인증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어 동 기관을 통해 자격 심사를 받은 후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COPANT-Comissão Panamericana de Normas Técnica
	AMN-Associação Mercosul de Normalização

2) 국립 산업품질 도량형 연구소 INMETRO - Instituto Nacional de Metrologia Normalização e Qualidade Industrial

브라질 연방 정부의 개발산업무역부 소속 기관으로 ABNT/ISO의 심사 기준에 의거하며 실제로 인증을 발급하는 기관으로, 각종 산업 제품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INMETRO는 인증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전문 부서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 품질시스템인증기관(OCS)

ABNT ISO 9001, 9002 e 9003의 규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 이러한 인증서 발급기관의 허가 기준으로 INMETRO는 ABNT ISO/IEC Guide 62와 이러한 규범에 대한 IAF와 IAAC의 해석을 따름. 이러한 기관들은 QS 9000의 기준에 따라 발급기관에 신청가능. (** 인증 ISO 9001, 9002, 9003 등)

□ 제품인증기관(OCP)

국내/지역/국제 규범에 따라 강제검사 분야 또는 임의검사 분야의 제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임. INMETRO는 이러한 제품인증서 발급기관에 대한 허가 기준으로 ABNT ISO/IEC Guide 65와 IAF 와 IAAC의 해석을 적용.

□ 환경 통제제도 인증기관(OCA)

NBR ISO 14001, 14004, 14010, 14011과 14012의 규범을 적용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 INMETRO는 이러한 발급기관의 선택기준으로 ABNT ISO/IEC Guia 62와 IAF, IAAC의 해석을 적용. (***) 인증: ISO 14001, 14004, 14010, 14011, 14012 등)

□ 인력증 기관(OPC)

SBC(Sistema Brasileiro de Certificação) 기관의 허가기준으로 ABNT ISO/IEC Guia 62, na EN 45013 e nas orientações da IATCA e IAAC를 적용.

□ 훈련 기관(OTC)

훈련기관은 인력양성(훈련)을 하는 기관에 대한 INMETRO의 인증임. INMETRO는 이러한 훈련 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EN 45013와 IATCA e IAAC의 지침 참조.

나. 인증서 발급

인증서의 발급은 INMETRO가 허가한 인증서 발급기관(OCC)이 수행한다. 그 방식은 규격/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브라질 인증제도의 확인마크(Marca de Conformidade do Sistema Brasileiro de Certificação SBC)를 발급하는 것으로 INMETRO는 인증기관, 검사기관, 테스트기관 등의 활동허가 및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브라질 인증마크인 SBC의 사용을 국내외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독립과 공정의 원칙에 따라 OCC는 자신의 회사나 관련 협력회사의 검사/규격/인증 행위를 할 수 없다. 브라질의 SBC 인증마크는 브라질 인증위원회(Comitê Brasileiro de Certificação CBC)가 결정한다.

강제인증(certificação compulsoria)의 경우 SBC 인증마크의 부착은 의무적이며, 임의인증(certificação voluntária)의 경우 OCC는 자신의 판단으로 SBC 인증마크의 부여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소비자로부터 자사 제품의 품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신용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SBC 인증마크를 획득하려는 경향이다.

인증가격은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데 강제인증의 경우 그 비용은 국제기준에 따르되 브라질 현실에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INMETRO가 국제가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INMETRO를 통해 강제인증의 경우 SBC의 국제인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OCC의 경우는 국제협력, 협회, 하청 등을 통해 브라질인증시스템인 SBC의 국제인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WTO의 규정에 준해 강제인증을 받아야 하는 외국제품에 대한 대우는 유사한 국내 제품에 대한 대우와 같다.

다. 강제인증(Certificacao Compulsoria)

강제인증행위는 강제인증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 ISO/CASCO로 표시된 모델을 참조한다. 규범의 우선적용 순위는 국내/지역/국제규범의 순이다. 강제인증은 안전, 국익, 시민의 이익이 문제되는 분야를 우선으로 하며 짐승, 야채, 보건, 환경 등에 관한 문제 등을 포괄하며, 상업화 또는 적용을 위해서는 연방기관이 채택한 인가/승인/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제품, 공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연방기관이 요청할 시 SBC에 포함할 수 있다.

강제인증은 SBC의 규정에 따라 OCC가 해야 하며, 감시는 INMETRO와 협정이 체결된 주 감시기관이 할 수 있는데, 주로 IPEM이 수행한다. 외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 공정, 서비스의 경우 강제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브라질의 해당품과 같은 규범의 적용을 받는다.

강제 인증에는 외국기관의 참여도 가능하다. 즉 해당기관을 승인한 제도와 INMETRO의 허가제도 간에 상호 인정협정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어떠한 상황에서건 SBC제도에서 강제 인증의 책임은 OCC가 진다. 강제인증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서비스는 현재까지 24개 분야가 발표되어 있다.

라. 임의인증(Certificacao Voluntaria)

임의인증은 신청자가 자신의 제품, 공정, 서비스의 질을 공인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법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다. 임의인증도 SINMETRO 제도 내에서 인정된 기관이 만든 규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SBC 시스템 하에서 임의인증은 OCC가 담당하게 된다. 기업들은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공인 받기 위해 임의인증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마. 인증형태

인증방식은 규격/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브라질 인증제도의 확인마크인 SBC 마크 (Marca de Conformidade do Sistema Brasileiro de Certificação: SBC)를 발급하는 것이다. 강제인증은 INMETRO 심볼 우측에 인증기관 (OCC)의 마크를 부착하는 것으로 의무적이다. 임의인증의 경우 인증서 부착 여부는 기업의 자유재량이다.

바. SBC 시스템에서 인증서의 획득절차

인증 신청을 하는 자는 인증규범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품질시스템을 이미 적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품질 시스템의 운용절차와 그 정책 및 시스템 운용 팀의 책임에 대해서는 품질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 인증신청기업은 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인증신청 기업은 기업의 품질 정책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고, 이러한 품질관리정책이 기업 전반에 걸쳐 적용/이행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사. 인증신청기업의 권리

□ 인증마크 사용권

인증을 획득하는 기업은 인증기관의 로고를 사용할 권리를 향유한다.

□ 인증 시스템에 대한 정보 접근권

인증기관은 승인획득 기업에게 승인 시스템의 변경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야 한다.

□ 새로운 규칙에 적응할 기간

승인과 관련 새로운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은 기업과 합의하여 그 적응기간을 정한다.

□ 이의신청/불복/분쟁

신청기업이 인증과 관련된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증기관에 공식적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신청이나 불복을 제기하는 기업 또는 타방 이해 당사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인증기관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모든 인증기관은 모든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인증신청은 이미 인증 받은 기업의 숫자나 그 규모 또는 협회원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 인증 받은 기업의 의미

□ 적절한 시스템 유지 의무

인증 받은 기업은 인증의 근거가 되었던 품질시스템을 유지해야 함. 인증기관은 주기적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함.

□ OCC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통보의무

법적 지위, 설치물, 인력, 장비 등 승인 받은 기업의 구조에 상당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인증기관이 통보해야 한다. 기업의 구조변경은 인증의 근거가 되었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다.

□ 고객에게 상황통보 의무

만일 인증 받은 기업의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될 경우 기업은 그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보하고 인증이 포함된 광고물의 사용을 금해야 한다.

□ 인증의 오용

광고물, 명함, 사무용품, 기타 인증마크가 포함된 서류를 준비할 경우 기업은 인증기관에 그 인증마크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증 받은 기업은 인증기관과 계약 체결을 완료한 후에 그 인증 사실을 기업의 광고문, 서비스 알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인증 받은 분야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제한을 받는다.

자. 외국제품의 인증

외국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는 우선 해당제품에 대한 특별규칙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 후 적절한 OCP에 인증신청을 한다. 인증신청이나 절차는 국내 제품의 경우와 같다. (동등 대우의 원칙) 만일 공장 검사(현장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원은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하는데 그 부대비용은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그 비용은 제품, 해외검사의 필요성 등 검사의 특수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차. 미 이행 시 제제조치

SINMETRO 시스템의 설치법인 연방법 제 5966호(1973.12.11.)에 따르면 CONMETRO는 도량형, 산업표준화, 공산품의 품질인증과 이에 관련된 규범행위에 관련된 법률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의 적용을 위한 기준과 그 절차를 정할 수 있는(제3조 f) 권한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위반에 대한 벌칙적용 시 INMETRO에 항소가 가능하다(제7조). 동법의 위반이나 CONMETRO가 제정한 규범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제제가 단독 또는 병합 적용된다.

- ① 경고
- ② 벌금: 최대 최저임금의 60배까지
- ③ 정지
- ④ 압류
- ⑤ 취소

19. 지적재산권

가. 개황

브라질은 지적소유권 보호협약인 '파리'협약과 문학, 예술작품 보호협약인 베른 협약의 가입국이며 세계 지적 소유권 기구(WIPO)를 발족시킨 1967년의 스톡홀름 협약에도 가입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파리협약을 중심으로 기술이전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지적소유권은 문학, 과학, 예술 소유권을 포괄하여 민법상 규율을 받는데 반하여 산업재산권은 상법에 의해, 특히 산업재산권법인 법률 제9279호 (1996.5.14)로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과 상표권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과거 기술이전 계약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해 왔으며 외국업체와 브라질 정부의 끊임없는 분쟁이 있었다.

지난 1991년 5월 콜로르(Fernando Collor de Mello) 정부가 종전에 비해 보다 자유화된 "기술사용허가 및 지적재산권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92년5월 브라질의회가 원안의 일부를 수정 통과시켰다. 동 법안은 의약품에 관한 모든 형태의 특허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과 비교할 때 상표권 및 산업재산권 보호를 보다 강화한 것이 특징적이다.

- 특허권의 보호기간 : 20년
- 실용신안의 보호기간: 15년
- 상표권의 보호기간 : 10년
- 저작권의 보호기간: 70년
-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기간: 50년
- 동일한 국산 Software가 존재하는 한 외국산 Software의 도입은 금지

나. 기술이전 관련 법규

- 특허청(INPI : INSTITUTO NACIONAL DE PROPRIEDADE INDUSTRIAL) 설립 법률 : 법률 제 5648 호
- 산업재산권법 (LPI) : 법률 제 9279 호
- INPI규범 제 15 호 : 기술이전계약 체결 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정형조항에 관한 사항 규정
- INPI 규범 제 32 호 : 기술이전 계약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명시
- INPI 결정 제 243 호 : TRADEMARK의 등록이 필요한 상품 분류기준 설정

- 외국인 투자법 (법률 제 4131 호)
- FIERCE 결정 제 19 호와 FIERCE 통첩 제 37 호
- 소득세법 : 법령 제 85450 호
- 재무부 결정 제 436 호 : 기술이전 계약 시 INPI 사전등록에 관한 규정
- ANTITRUST법

다. 특허청(INPI)

1) INPI의 역할

기술이전에 관한 등록, 감시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에 관련된 정책수립 및 집행을 직접 책임지고 있음

- 특허신청, TRADEMARK 등록, 양도, 양허 사항 감독
- 특허의 이전 및 허여 조건 개선
- 기술이전을 원활히 하도록 유도
-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가입과 관련, 정부 보조

2) INPI의 재량권

로열티의 결정, 감세기준, 해외송금 등 외국 특허 양허인의 이익에 직접 관련된 모든 문제를 망라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재량권을 부여 받고 있음.

- 외국기술도입 여부 결정
- 기술도입계약 조건 심사, 결정
-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도입계약의 등록거부
- 정부정책, 법률에 위배되는 계약의 수정을 결정
- 도입 및 양수 기술의 양수기업에 의한 습득방법 등에 관한 정보 제공요구

3) INPI의 기능

특허와 상표의 등록 및 인정을 실시하며, 특히 외국기술 이전 시 정부정책 및 경제개발의 기여도를 고려, 기술이전의 승인을 결정

기술이전, 특허 및 상표권 허여 시 관계 정부기관과 사전 협의를 가짐. 즉 국세청과는 소득세 중 ROYALTY와 기타 경비의 감면문제를, 중앙은행과는 ROYALTY와 경비의 송금문제를 협의.

라. 브라질 가입 국제협약

특허, 상표, 기술이전에 따른 로열티 보호 등 산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중 브라질은 파리협약의 서명국이며, 동 협약의 개정판인 브뤼셀 협약에도 가입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를 발족시킨 1967년의 '스톡홀름'협약에 가입했으며, 문학예술작품 보호협약인 베른 협약에도 가입했음

실질적으로 파리협약을 중심으로 기술이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

마. 기술도입계약 신고

기술이전 계약은 INPI가 발표한 결정 제 22호 (1991.2.27)와 규범 제1 호 1991.7.2 발표)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

INPI 결정 제 22호는 기술이전, 특허권 사용, 상표권 허여 및 기술이전, 기술 및 과학원조에 관한 계약을 열거하고 있음

기술이전 계약의 INPI 승인은 로열티의 해외송금, 조세감면 등의 목적뿐만 아니라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양수인이 사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임.

기타 기술이전과 조건 등을 증명하는 송장 등의 서류는 INPI 승인을 얻는데 유효한 자료임

바. 기타 수출 입 관련제도

1) 수입 관리 제도

수입자유화 정책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대부분의 비관세 장벽은 폐지되었으며, 1997년 1월부터 모든 수출입 업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무역관리시스템(SISCOMEX)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수입품의 대부분은 MERCOSUR 역내 공동관세 (TEC)의 적용을 받으며, 소비재에 대해서는 2~23%, 기계류 16.5%, 자동차가 35% 정도 적용되고 있음

무관세 교역 예외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 외의 품목에 따라 10%의 해운세, 15%의 부가세, 18% 주유통세 가 추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음

전자무역관리시스템이 취급하지 않는 품목은 수입물량의 40% 정도로 혈액, 무기, 원자력 폐기물 등은 사전에 대외 무역청 등 관련 기관의 허가가 필요

브라질은 WTO 가입 후 국내관련 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의 일환으로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2) 수출관리제도

수출도 수입의 경우와 같이 1997년 1월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무역관리시스템(SISCOMEX)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수출 상품은 자동승인품목, 특별관리품목(커피, 설탕 등), 잠정중지 품목(안보 및 국내 수급안정 목적), 금지품목(국제협정 또는 법률에 의거)으로 분류되는데 대부분이 자동승인 품목이다. 특별관리품목 및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수출거래는 관계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BNDES를 통해 자본재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대외무역에 필요한 부대시설(항만시설, 철도, 보관창고 등)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00년 10월 종전의 8.9%의 수출세도 폐지하였으며 수출투자 장려 기구인 APEX(Agência de Promoção de Exportações e Investimentos)의 업무를 대폭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수출 장려용 인센티브로 일부 공업제품 수출의 경우 공업제품세(IIPI), 상품유통세(ICM) 및 소득세의 감면과 수입품에 대한 관세 환급제도 등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수출 시에는 각종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출가공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은 수출입관련 제세 및 대외송금 관련 세금 등을 면제하여 준다.

20. 소비자보호제도

브라질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와 제조업, 상업, 서비스업체 및 수입업체 등과의 관계를 규율 하는 법으로 법률 제 8078/91호로 규정되어 있다. 소비자 보호법은 브라질 법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공정거래 질서의 유지와 큰 관련이 있다. 물론 공정거래법(경쟁법)이 기업간의 질서를 규율 한다고 하지만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소비자이고 소비자 보호법이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를 규율 하기 때문에 양 경제 질서는 그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 차이가 있으나 그 최종 수혜자가 같기 때문에 동일 기관이 양 질서를 규율 해야 한다는 주장도 크다.

소비자 보호법은 제품의 생산 전부터 제품의 생산 및 출고, 그리고 시장판매 및 광고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제조업체에까지 대인 관할의 범위를 확대(소비자 보호법의 역외적용)하고 있다.

가. 소비자의 기본권리

소비자 보호법이 보호해 주려는 소비자의 기본 권리는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서부터 소비자의 생명, 건강 및 안전 보호, 제품의 질, 특성, 양, 성분, 품질, 가격 및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및 과대광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다.

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보증

시장에 내놓은 제품과 서비스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어서는 안되며, 공급자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원하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공산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급자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공급된 경우, 그리고 이러한 사실 또는 어떠한 구체적인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라디오, TV, 신문 등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책임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법은 연대책임의 원칙을 정했다. 그래서 국내외 생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하자(설계, 생산, 조립, 판매 등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각자의 책임 여하에 불구하고 보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리고 제품의 사용이나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러한 연대책임자들을 상대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라. 항의기간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기간은 내구재가 아닌 경우는 제품 인도일 또는 서비스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내구재인 경우에는 90일 내에 해야 한다.

마. 광고

광고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공급자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광고를 할 때 기만적이거나 남용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 기만적인 광고(propaganda enganosa): 누락 또는 일부 허위적인 것을 불문하고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성격, 특성, 품질, 수량, 소유주, 원산지, 가격이나 관련 정보에 대해 잘못 이해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광고를 말한다. 즉 광고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숨기는 것 자체도 기만적인 광고가 된다.
- 남용적 광고(propaganda abusiva): 소비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위험하게 유도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광고를 말한다. 그 범위는 상당히 넓어 환경에 위해가 되는 것도 남용적 광고에 해당되며, 폭력, 차별, 공포, 미신 등을 악용하거나 선동하는 광고도 이에 해당되며, 아동의 판단력이나 경험미숙을 이용하는 광고도 이에 해당된다.

바. 처벌

소비자보호법은 그 위반의 양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 처벌을 예정하고 있어 경제법의 성격을 보여준다.

-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표시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6개월~2년간의 구류와 벌금
-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후에 제품의 하자나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 그 사실을 관계기관과 소비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나 관계기관이 시장에서 제품수거를 명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2년간의 구류와 벌금
- 관계기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높은 위험도의 서비스를 수행한 경우: 6개월~2년간의 구류와 벌금

- 제품이나 서비스의 형태, 성격, 특성, 품질, 수량, 안전, 성능, 수명, 가격, 품질보증 등에 관해 속이는 경우: 3개월~1년간의 구류와 벌금
- 기만적이고 남용적인 광고라는 것을 알면서 광고하는 경우: 3개월~1년간의 구류와 벌금
- 소비자의 허락 없이 중고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수선하는 경우: 3개월~1년간의 구류와 벌금
- 소비자에서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1~6개월의 구류와 벌금

21. 교역관련 국가기관

모든 대외거래를 총괄하는 최고기관은 국가통화위원회(CMN)이며, 개발부, 재무부, 중앙은행의 대표가 모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CMN을 중심으로 수입허가, 통관, 외환관리 등 수입과 관련된 행정사무는 개발상공부(MDIC)산하 대외무역국(Secretaria de Comercio Exterior, SECEX), 재무부 산하 연방 세무국(Secretaria da Receita Federal, SRF),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 BCB)이 각각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개발 상공부는 대외무역에 관한 정부 주무부서가 되며 그 산하 대외무역국(SECEX)이 재화나 서비스의 대외거래를 총 관장하는 정책 실무를 담당한다. 그래서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모든 업체는 SECEX에 무역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중앙은행은 대외거래에 관한 모든 금융활동을 감독·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개발상공부(Ministerio de Desenvolvimento, Industria e Comercio Exterior)
 - <http://www.mdic.gov.br>
- 재무부(Ministerio da Fazenda - Receita Federal)
 - <http://www.receita.fazenda.gov.br>
- 대외무역국(SECEX)
 - <http://www.desenvolvimento.gov.br/sitio/secex/secex/competencia.php>
-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
 - <http://www.bcb.gov.br>

22. 시장특성

가. 브라질 시장 특성

1) 시장 규모

브라질의 2005년도 총 GDP는 7,960억 달러로 남미 최대 경제대국이다. 브라질의 인구는 1억 8천만 명 이상으로 세계 5위이며 면적도 851만㎢로 세계 5위이다.

2) 내수중심 시장

브라질은 막대한 천연자원과 인구로 인해 수출 촉진보다는 내수중심시장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제위기 타파를 위해 1998년부터 수출촉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3) 시장개방 역사가 짧다

브라질은 1990년부터 시장개방이 시작된 전문 수입상들이 많지 않고 수입상들도 무역실무에 밝지 않은 경우가 많다.

4)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커

브라질은 세계 500대 기업 중 450개 이상의 기업이 브라질에 현지 투자를 하고 있거나 사무실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다국적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높다. 반면 다국적 기업들의 기술이전 기피와 과거 브라질정부의 고 이자율 정책 및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 추진으로 중소기업이 발달되지 않는 상강 하약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5) 빈부격차가 심하여 소비구조 이분화

브라질은 빈부격차가 심하여 부유층의 경우 선진국의 유명브랜드, 고가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나 중산층 이하의 경우 저가제품,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6) 완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 적용

브라질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완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현지 생산이 부족한 부품 및 원자재의 경우 영 세율 또는 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7) 중남미 국가 중 제조업 기반 최고

브라질은 세계적인 자동차, 항공기, 철강 생산국으로서 중남미 국가 중 제조업 기반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

8) 지역별로 특성 달라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파울루의 경우 이태리계와 함께 독일계, 시리아 및 레바논계, 유대계, 일본계, 중국계, 한국계들이 주로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빠라나 주, 산타카타리나 주, 리우그란지두술 주 등 남부지역의 경우 독일계와 이태리계가 다수를 차지한다. 북동부의 바이아 주의 경우 포르투갈계와 흑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해당 민족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나. 수출전략

1) 경기회복 관련품목에 대한 수출확대노력 배가

브라질정부가 콜금리 인하 및 경기부양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투자 및 소비심리가 호전되고 있고 2006년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5%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IT, 기계류, 석유화학제품, 부품소재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경기회복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마케팅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2) 수출용 원부자재 수출확대노력 배가

브라질 수출이 지난해 21.1% 증가에 이어 2006년에도 24%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어 수출용 중간재 수요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다.

브라질 주요 수출호조 품목으로는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신발류, 섬유류 등으로 이에 소요되는 원부자재에 대한 수요가 확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브라질 관련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용 부품소재 판매 확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첨단 IT분야에 대한 수출 역량 배가

브라질의 경우 해외 다국적기업 진출로 전반적으로 전기전자분야가 고르게 발달되어 있으나 첨단 IT분야의 경우 아직도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일례로 일반 휴대폰의 경우 대부분 현지조립생산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나 첨단 칼라 휴대의 경우 수입을 통해 조달되고 있으며, 첨단 핵심부품의 경우 주로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 확대 노력 배가 필요하다.

특히 금년부터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전망임에 따라 IT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수요가 확대될 전망임에 따라 IT 분야 공략강화가 필요하다.

4) 지방상권 개척 노력 확대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수출은 주로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한 동남부 지역에 편중되어있어 주요 지방상권에 대한 마케팅 능력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파라나주, 쏘타까타리나주, 바이아주, 미나스제라이스주, 마나우스 등과 같은 주요 지방 상권에 대해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한 지방상권 개척 노력이 필요하다.

5) 전시사업 참가 확대

브라질의 상파울루는 IT, 기계류, 의료기기, 보안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남미 최대 전문품목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전시회를 통한 거래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 보안장비, 의료기기, 문구 등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현지 전시회 참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6) 주요 플랜트 프로젝트 참가 확대

브라질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철도, 도로, 항만 등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석유화학설비와 전력분야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유망 플랜트 프로젝트로는 전동차, 석유화학설비, 발전설비, 변압기, 전력 케이블, 철탑, 제어기, 차단기류, 개폐기류 등이다.

현지 플랜트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미주개발은행 회원국 가입과 함께 현지투자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한-브라질 기술□산업협력 강화

브라질은 주요 다국적기업들이 일찍이 진출하여 조립생산체제를 구축해 제조업기반은 강한 편이나 중소기업들이 발달해 있지 않아 산업 내 불균형이 심하고 부품조달이 어렵다.

특히 전기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의 경우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이며 이에 따라 한국과 브라질 주요 산업간 제휴 및 협력 강화를 통해 현지시장 확대 필요하다.

23.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가. 시장조사 의뢰

KOTRA와 같이 정부 기관이나 믿을만한 전문 컨설팅업체 등을 통해 수출 희망 아이템에 관한 시장조사 대행을 의뢰하면 유력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다. KOTRA의 경우, 본사를 통해 해당 무역관에 조사대행 서비스를 신청하고 시장조사의 방향과 희망 수집 자료의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나. 전시회 참가

국제 전시회는 바이어 발굴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적은 비용으로 커다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다양한 전시회 정보가 KOTRA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브라질 전시회 정보 전문 사이트 UBRAFE, 개발 상공부 홈페이지 등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 전시회 정보 사이트 UBRAFE: www.ubrafe.com.br 영문 서비스
- 개발상공부: www.mdic.gov.br
 - (http://www.desenvolvimento/sdp/calFeirasexposicoes/feiExposicoes_P.php)
- 전시회 전문 업체
 - Alcantara Machado - www.alcantara.com.br
 - Francal - www.francal.com.br
 - CIPA - www.cipanet.com.br
 - Messefrankfurtfeiras - www.messefrankfurtfeiras.com.br
 - VNU Business Media - www.vnu.com.br

다. 무역 상담회 참가

국내외에서는 끊임없이 무역 상담회가 열린다. 최근에는 서울시 등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KOTRA, 무역협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협력하여 사절단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으며 상담회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 경우 출장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므로, 경비를 줄일 수 있다.

라. 대사관 및 영사관 활용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 수출 희망 분야 관련 정보 또는 유망 바이어 리스트를 구해 줄 것을 부탁해본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의외로 쉽게 바이어를 발굴할 수도 있다.

마. 카달로그 활용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라면 카달로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바이어를 찾을 수 있다. 무역협회 도서관을 이용하면 잠재 바이어들의 카달로그를 볼 수 있다.

바. 외국기업 및 단체 이용

국내에는 각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하여 수없이 많은 외국 경제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곳에 가면 해당국 경제사정은 물론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명단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사. 외국 유통업체 활용

국내에 진출해 있는 유통업체를 활용하여 자재 등의 공급을 일단 시도해보는 것도 훗날 바이어 발굴에 많은 도움이 된다.

아. 국제 입찰

산업설비나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라면 국제입찰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산업설비가 아닌 소비재라도 국제입찰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브라질 국제 입찰 정보는 <http://tender.kotra.or.kr>에서 얻을 수 있다.

24.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가. 무역관련 사이트 활용

국내외 무역사이트에 수없이 많은 buying offer가 등록되어 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이용이 편리하며, 관심 바이어를 찾아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사용하여 접촉을 시도해 본 뒤 업체가 관심을 보일 경우 카달로그 및 제품 샘플을 보낸다.

- 국내 무역 관련 사이트
- www.kotra.or.kr
- www.kita.net,
- www.alibaba.com
- www.ec21.com,
- www.thomasregister.com
- www.ecplaza.net
- www.silkroad21.co.kr

나. 브라질 산업협회 사이트 활용

포르투갈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브라질 산업 연맹 및 산업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확한 시장 정보 확보 및 바이어를 발굴하는 방법도 있다. 일부 사이트는 영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접속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대부분의 협회 사이트에는 회원 명단이 분야별로 등록되어 있어 관심 바이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관심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고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바이어와 접촉한다.

- 상파울루 경제인 연합회
 - FIESP(Federação das Indústrias do Estado de São Paulo)
 - www.fiesp.org.br
- 화학공업 협회
 - ABIQUIM(Associação Brasileira de Indústria Química)
 - <http://www.abiquim.org.br/>
- 소프트웨어업체 협회
 - ABES(Associação Brasileira de Empresas de software)
 - <http://www.abes.org.br/>
- 포장 협회
 - ABRE(Associação Brasileira de Embalagem)
 - <http://www.abre.org.br/>
- 전기전자산업 협회
 - ABINEE(Associação Brasileira das Indústrias Elétrica e Eletrônica)
 - <http://www.abinee.org.br/>
- 식품산업 협회
 - ABIA(Associação Brasileira das Indústrias da Alimentação)
 - <http://www.abia.org.br/>
- 커피산업 협회
 - ABIC(Associação Brasileira de Indústria de Café)
 - <http://www.abic.com.br/>
- 기계장비산업 협회
 - ABIMAQ(Associação Brasileira da Indústria de Máquinas e Equipamentos)
 - <http://www.abimaq.org.br/>
- 플라스틱공업 협회
 - ABIPLAST(Associação Brasileira da Indústria do Plástico)
 - <http://www.abiplast.org.br/>

- 섬유 협회
 - ABIT(Associação Brasileira da Indústria Têxtil e de Confecção)
 - <http://www.abit.org.br/>
- 환경기술위생 협회
 - CETESB(Companhia de Saneamento de Tecnologia Ambiental)
 - <http://www.cetesb.sp.gov.br/>
- 보건국
 - ANVISA(Agencia Nacional de Vigilância Sanitária)
 - <http://www.anvisa.gov.br/>
- 전기에너지 협회
 - ANEEL(Agencia Nacional de Energia Elétrica)
 - <http://www.aneel.gov.br/>

25. 상담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가. 외상거래 선호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높고 상관행상 D/P, D/A 등 외상거래를 선호한다. 현찰거래를 고집하기 보다는 제품에 대한 반응과 수입상의 신용도를 파악해 외상거래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 상거래 시 인간관계 중시

상거래 시 직접대면 상담을 통한 상담이 보다 효과적이며 상품의 질과 가격 못지않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상담에 앞서 현지 축구, 음악, 기후, 음식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 이민으로 구성된 다양성의 국가

브라질은 1500년부터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었으나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화란,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일본, 중국, 한국 등으로부터 이민이 정착하면서 발전해 온 나라이다.

라. 낙천적인 성격

현재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민족은 이탈리아(포르투갈계는 현재 소수민족에 불과)로 낙천적이며 여유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마. 상술에 능함

이태리, 유대인, 중동계, 일본계, 중국계 등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고 과거 금융위기 경험으로 인해 상술에 뛰어나고 실리적이다.

바. 과장법을 많이 씀

대국적인 기질로 인해 과장법을 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얘기하는 규모보다 적게 받아들이면 무난하다.

사. 아마냥(Amanhã) 문화

중남미국가들과 유사하게 브라질에도 아마냥(내일) 문화가 강하여 급한 것이 없고 느긋하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중요하다면 절대로 느긋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 소비성향이 높다

브라질은 일반적으로 저축률이 낮고 소득수준에 비해 소비수준이 높다.

자. 작은 선물이라도 상대를 감동시킨다

브라질인들에게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도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다. 브라질인들은 직원 생일은 물론이고 부활절, 성탄절 등 명절의 경우에도 선물을 교환한다.

26. 계약체결시 유의할 점

가. 여유를 가져야

브라질 인들에게 한국식으로 독촉할 경우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오해 받기 쉬워, 급할 경우에도 느긋하게 축구, 삼바, 기후 등 부드러운 화제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나. 대국의식이 강하다

브라질 인들은 자국이 중남미 최대 경제대국이란 자부심을 늘 가지고 있어 브라질 인들이나 브라질산 제품을 무시하는 발언은 절대 삼가야 한다.

다. 이민국가라는 점을 잊지 말 것

상파울루에서 상권은 주로 이태리계, 독일계, 중동계, 유대계, 스페인계가 주로 장악하고 있고 우리가 상대하는 기업인들도 대부분 이들로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중동계 바이어와 상담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편든다거나 이태리계 바이어와 만나면서 이태리인들의 단점을 얘기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라. 신뢰관계가 중요

브라질은 이민사회로 구성되어 있고 과거 식민지와 군정시대를 경험하면서 신뢰관계와 인맥을 중시한다. 브라질인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거래선을 잘 바꾸려 하지 않는 것도 인간관계와 신뢰의 중요성 때문이다.

마. 외상거래 비중이 높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이고 관행적으로 외상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어 외상거래를 선호한다. 따라서 상담 시 융통성 있는 상담자세가 필요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용상태 파악이나 수출보험에 확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비 정상 상거래 잔존

최근 통관검사 강화로 밀수, 언더밸류 등 비정상 상거래가 많이 축소되었으나 아직도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사. 분쟁 발생 시 해결 어려움

브라질에는 상사 중재원이 없고 상사분쟁관련 국제협정 미 체결 되어 있어 분쟁발생시 해결이 어려우므로 사전에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만일의 경우 필요한 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27. 통관절차

가. 통관절차

1) 수입신고

수입 상품이 브라질에 반입되면 브라질 관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내국물품화를 위한 통관 절차를 밟게 된다. 일단 도착한 화물은 통관절차를 거치기 위해 보세창고에 보관된다. 수입자 또는 통관사는 수입신고(Declaração de Importação: DI)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입신고는 SISCOMEX를 통해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수입세(Imposto de Importação), 공업제품세(IPI), SISCOMEX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모든 세금 및 비용 납부가 완료되고 화물 검사 및 확주 확인이 끝나면 연방 세무국은 SISCOMEX를 통해 수입면장(Comprovante de Importação)을 발급하며, 이것으로 통관이 완료된다.

□ 제출서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수입허가증(LI), 선하증권(Conhecimento de Embarque), Commercial Invoice (Fatura Comercial) 및 각 화물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다.

2) 물품 검사

수입신고를 완료하면 SISCOMEX 는 자동적으로 세관반출을 위한 화물검사를 지시한다. 화물 검사는 녹색, 황색, 적색, 회색채널의 4가지로 구분된다.

- 녹색: 자동 통관
- 황색: 서류심사 필요
- 적색: 서류 심사 및 화물 검사
- 회색: 서류 및 화물의 정밀 검사

자동통관인 녹색채널을 제외한 기타 세관검사는 수입자가 연방 세무소에 직접 수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브라질은 FTAA 협상국 중 통관절차 및 기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국가로 분류된 적도 있다.

3) 수입 통관 비용

수입세(I.I), 공업 제품세(I.P.I), 주유통세(I.C.M.S) 등의 기본 세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통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 창고세: CIF 가격의 0.65%(15일 기준)
- 터미널 사용세
- 상해운세: 해운송비의 25% (항공운송 면제)
- 세관사용인조합 기여금: CIF의 2.2%
- SISCOMEX 사용료
- 화물운송비
- 은행 제비용: FOB 의 2%

나. 관세

1) 주요 관세

- ① 수입 관세(I.I.): 연방정부에서 관장하는 특별세로, 남미공동시장 형성 후 대외공동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② 공업제품세(I.P.I.): 공업제품세도 연방세이며 대부분의 국내 생산품과 외국 수입품에 대해 적용된다. 공업제품세는 국내 생산품의 경우 제조업체의 판매 시, 수입품의 경우 통관 시에 적용된다. 하지만 수입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공업 제품세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관세가 높은 품목은 공업제품세도 높으며, 수출업체의 경우 동 세금이 면제된다.
- ③ 주 유통세(I.C.M.S.): 주 유통세는 국산품이나 수입품에 모두 적용하는 주(州) 부가가치 세이다. ICMS 또한 수입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주 유통세는 1965년 제정되어 연방의 각 주와 브라질리아 연방 특구가 징세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정부의 가장 큰 세수원이다. 동 세금 상품의 유통, 서비스 제공, 주간(州間) 운송 시에 부과되며 수입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 유통세는 일반적으로 주에 따라 7%, 12%, 또는 18% 가 부과되며 상파울루 주의 경우 통상 18%가 부과되지만 품목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아 13% 또는 9% 정도인 경우도 있다.

2) 관세율 계산법

*** CIF 가격 100달러, 수입세 14%, 공산품세 15%의 제품이 상파울루 주에서 유통되는 경우 (주 유통세 18%), 관세 포함 최종가를 계산하는 법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으로서 대외 공동관세를 사용하며 수입관세, 공업 제품세, 유통세, 사회보장세가 누진적용 된다.

유통세의 경우 주마다 유통세율이 상이하며 상파울루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18%가 적용되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사회보장세의 경우 수입자가 지불하게 된다.

아래계산은 귀사 제품을 100달러로 가정하고 세금을 누진적용 하여 최종가격을 참고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며 실제 세금적용 시 주유통세, 사회보장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IF 가격	100	USD
수입관세 (I.I)	14	%
공업제품세 (IPI)	15	%
유통세 (ICMS)	18	%
사회보장세 (PIS/Cofins)	9.25	%
Example)		
CIF 가격	100.00	USD
수입관세 (I.I)	14.00	%
수입관세 산정가격	14.00	USD
공업제품세 산정기준 (CIF+I.I)	114.00	USD
공업제품세 (IPI)	15.00	%
공업제품세 산정가격	17.10	USD
유통세 산정기준 (CIF+I.I+IPI)	131.10	USD
새로운 유통세 산정기준 $[(CIF+I.I+IPI)*100]/(100-ICMS)$	159.88	USD
유통세 (ICMS)	18.00	%
유통세 산정가격	28.78	USD
사회보장세 산정기준 (CIF+I.I+IPI+ICMS)	188.66	USD
사회보장세 (PIS/Cofins)	9.25	%
사회보장세 산정가격 (수입자 부담)	17.45	USD
최종가격	177.33	USD

28. 운송

가. 주요 무역항

항구명	소속주	위도	경도
Angra dos Reis	RJ	23 ° 01' S	44 ° 19' W
Antonina	PR	25 ° 30,1' S	48 ° 31' W
Aracaju	SE	-	-
Aratu	BA	12 ° 45' 30" S	38 ° 30' 10" W

Areia Branca	RN	04 ° 49' 06" S	37 ° 02' 43" W
Barra do Riacho	ES	19 ° 49' 24" S	40 ° 04' 20" W
Belém	PA	01 ° 27' S	48 ° 30' W
Cabedelo	PB	06 ° 58' 21" S	34 ° 50' 18" W
Cubatão	SP	–	–
Forno	RJ	22 ° 58' 18" S	42 ° 54' W
Fortaleza	CE	03 ° 41' 15" S	38 ° 29' W
Ilhéus	BA	14 ° 47' S	39 ° 02' W
Imbituba	SC	28 ° 17' S	48 ° 40' W
Itajaí	SC	26 ° 54' S	48 ° 39' W
Itaquí/Madeira	MA	02 ° 34' S	44 ° 21' W
Macapá	AP	0 ° 04' N	51 ° 04' W
Maceió	AL	09 ° 40' S	35 ° 44' W
Madre de Deus	BA	–	–
Manaus	AM	03 ° 09' S	60 ° 01' W
Natal	RN	05 ° 47' S	35 ° 11' W
Niterói	RJ	22 ° 52' 30" S	42 ° 08' 30" W
Paranaguá	PR	25 ° 30' S	48 ° 31' W
Pecém	CE	03 ° 25' S	38 ° 35' W
Pelotas	RS	31 ° 45' S	52 ° 25' W
Ponta do Félix	PR	–	–
Porto Alegre	RS	30 ° 02' S	51 ° 12' W
Recife	PE	08 ° 04' S	34 ° 52' W
Rio Grande	RS	32 ° 10' S	52 ° 05' W
Rio Janeiro	RJ	22 ° 55' S	43 ° 12' W
Salvador	BA	12 ° 58' S	38 ° 30' W
Santarém	PA	02 ° 25' S	54 ° 43' W
Santos	SP	23 ° 56' S	46 ° 20' W
São Luiz	MA	–	–
São Francisco do Sul	SC	26 ° 14' S	48 ° 42' W
São Sebastião	SP	23 ° 47' 30" S	45 ° 23' W
Sepetiba	RJ	22 ° 52' S	43 ° 52' W
Suape	PE	08 ° 24' S	34 ° 57' W
Vila do Conde	PA	01 ° 32' 42" S	48 ° 45' W
Vitória/Tubarão	ES	20 ° 18' S	40 ° 20' W

나. 브라질 5대 주요 항

□ 상투스(Santos) 항



- 커피 농업의 발달과 함께 유명해진 브라질 최대 항구.
 - www.portodesantos.com.br
- 항만관리업체
 - Companhia de Docas de Sao Paulo (CODESP)
 - 주소: Av. Conselheiro Rodrigues Alves, s/n - Macuco
 - CEP: 11015-900 - Santos (SP)
 - Tel.: (55-13) 234-1580, 233-9464 , 233-9114
 - Telefax: (55-13) 233-3080 / (55-13) 235-3115
 - E-mail: codesp@carrier.com.br

□ 파라나과(Paranaguá) 항



- 상파울루, 산타카타리나, 마투그로수두술 주 등과 파라과이를 연결하는 국내 주요 항구 중 하나
- 항만 관리업체
 - Administracao dos Portos de Paranagua e Antonin (APPA)
 - 주소: BR-277 - Km 0 CEP: 83221-030 - Paranaguá (PR)
 - Tel.: (41) 422-0185 e (41) 423-1413
 - Telefax: (41) 422-6389 e (41) 422-5324
 - E-mail: administ@pr.gov.br

□ 비토리아(Vitoria) 항



- 커피 및 사탕수수 농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겨난 항구로, 에스피리토산토, 리우데자네이루, 바이주 등을 연결하는 항구
- www.portodevitoria

□ 리우그란데(Rio Grande) 항



- 브라질 남부 3주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를 연결하는 항구
- 항만관리업체
 - Superintendencia do porto de Rio Grande (SUPRG)
 - 주소 : Av. Honório Bicalho, s/n - Caixa Postal 198, CEP: 96201-020 - Rio Grande (RS)
 - 전화 : (55-53) 231-1366 / (55-53) 231-1996
 - Telefax : (55-53) 231-1857 e 231-1740
 - E-mail : suprg@portoriogrande.com.br

□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항



○ 세계 3대 미항이자 시설 및 규모 면에서 국내 최대항구 중 하나임.

○ 항만관리업체

- Companhia Docas do Rio de Janeiro (CD RJ)
- 주 소: Rua do Acre, 21 - Centro, CEP: 20081-000 - Rio de Janeiro (RJ)
- 전 화: (55-21) 296-5151/(55-21) 516-1231, 233-9345 e 233-8137
- Telefax: (55-21) 253-6811, 203-5228 e 516-2417
- E-mail: cdrj@portosrio.gov.br

항구 사용료

항구	컨테이너 20'	컨테이너 40'
Fortaleza	R\$105,00	R\$125,00
Itajaí	R\$102,25	R\$102,25
São Francisco do Sul	R\$91,00	R\$106,00
Rio de Janeiro (Exp)	R\$98,18	R\$98,18
Rio de Janeiro (Imp)	R\$89,25	R\$89,25
Rio Grande	R\$96,00	R\$122,00
Salvador	R\$117,00	R\$117,00
Santos (margem esquerda)	R\$180,00	R\$180,00
Santos (margem direita)	R\$183,36	R\$229,18
Santos (COSIPA)	R\$183,36	R\$229,18
Paranaguá	R\$129,00	R\$129,00
Vitória	R\$166,00	R\$166,00

통관서비스 회사 리스트(한인 통관 업체)

상호	분류	대표	전화
(주)조양항공해운	운송, 통관, 해외이사	윤일균	02-326-2489
NC통관	통관	김형광	3361-8902
C . Hor	통관	박종구	3331-5648
C . L Express	통관	이주엽	3337-4787
GRT	통관	정 Joao	3333-7339
NEW KOBRAS	통관	강환철	3311-9540
NON STOP	통관	김광조	3331-7091
YURI 통관	통관	-	3313-5488/3315-8077

29. 분쟁해결 절차

가. 중재심판위원회의 구성

중재심판위원회의 구성은 중재인으로 지명 받은 인사들이 지명을 수락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중재법 제19조)

나. 중재인의 기피절차와 기타 선결문제

중재심판위원회가 구성되면 중재인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다. 이 때 중재계약의 내용에 관해 의문이 있으면 중재인은 당사자들과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합의하고 이를 중재계약의 부속문서로 첨부할 수 있다. (중재법 제20조 본문)

당사자들은 구성된 중재심판위원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중재인 기피사유나 중재계약의 무효화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중재인의 기피사유가 받아들여질 경우 중재법 제16조에 따라 중재인이 대체될 수 있다. 중재인의 기피사유가 중재인의 권리에 관련돼 있거나 중재계약의 무효/무효화/유효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중재심판위원회는 동 문제의 해결을 법원에 의뢰한다. 법원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동안 중재절차는 정지된다.

다. 중재절차

중재인은 중재절차가 개시되면 우선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도록 조정을 시도해야 한다. (중재법 제21조 제4항) 이 때 당사자들이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합의되면 중재인은 중재판정을 통해 중재를 완료할 수 있다. 조정이 실패하면 정상적인 중재절차에 들어간다.

중재인은 필요 시 당사자의 심문, 증인의 심문, 전문가 감정 등 중재판정에 필요한 모든 심문절차를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증인이 증인심문에 불응할 경우에는 중재심판위원회는 법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증거 보존 또는 재산 보존 등 잠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도 법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중재법 제25조) 중재는 당사자 평등의 원칙, 자유심증의 원칙, 중재인 중립의 원칙, 항변의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라. 중재판정

중재판정의 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그 기간을 합의할 수 있다. 그리고 판정기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당사자와 중재인이 합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재법 제23조 단독항) 중재판정의 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중재심판위원회의 설치 또는 중재인의 교체 시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한다. (중재법 제23조)

중재판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중재판정의 방법은 다수결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해야 한다. (중재법 제24조 제2항) 중재인의 개별 의견이 있을 경우 판정문에 개별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판정문에는 (1)당사자의 성명과 분쟁의 요지(주문) (2)판정의 근거(이유)기재, 형평으로 판정했을 경우 이를 명시 (3)문제 해결의 기초가 된 (법률)규정과 판정이행의 기간 (4)판정일과 장소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중재법 제26조)

판정문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판정 내용이 권리청구에 관한 판정일 경우 판정문은 집행권을 수반하며, 따라서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마. 판정의 취소와 재심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에 절대적으로 구속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불복당사자는 일정한 취소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취소사유에는 절대적 취소사유와 상대적 취소사유가 있다. 절대적 취소사유에는 중재합의의 무효, 중재인의 부 적격성, 판정이 협박/부정/매수에 의해 작성된 경우, 합의된 판정기간을 넘어 판정된 경우, 제21조 제2항의 중재절차의 원칙들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다. 상대적 취소 사유로는 제26조의 중재 판정문의 필요기재 사항을 누락한 경우, 중재계약의 범위를 넘어 판정을 한 경우, 분쟁의 일부를 판정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중재판정이 절대무효에 해당되는 경우는 중재판정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며, 상대적 무효로 판결될 경우에는 중재심판위원회는 무효원인을 제거하고 재판정을 해야 한다.

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중재판정은 당사자간 자발적인 이행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패소 당사자가 자발적 이행을 하지 않고 또한 집행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집행지 법원의 협력이 필요하게 된다. 브라질 중재법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확인에 대한 대원칙으로 첫째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둘째 해당조약이 없을 경우 중재법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브라질이 가입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이행에 관련된 국제조약으로는 제네바 협약(1923년), 뉴욕 협약(1958년)과 파나마 협약(1975년)이 있다. 한편, 한국이 가입한 조약은 뉴욕 협약(1958년)이기 때문에 양국 간에는 국제조약의 적용을 통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가능하다.

중재법은 외국 중재판정의 판별기준으로 판정지주의를 택했다. 즉 브라질 영토 외에서만 판정되면 외국 중재판정으로 간주된다. (중재법 제34조 단독항) 브라질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심사하는 기관을 연방대법원으로 통일했다.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의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일반권리 확정소송 절차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권리를 요구하는 이해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요구하는 소장과 함께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공증 복사본과 중재계약 원본 또는 공증 복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브라질 영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야 하고 브라질 공인번역사의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사. 승인과 집행의 대상인 외국 중재판정

승인과 집행의 대상이 되는 외국 중재판정의 범위는 협약이나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브라질 중재법은 영토주의에 기초를 두어 외국 중재판정을 정의하고 있다. 즉 외국 중재판정이란 영토 밖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의미한다. (중재법 제34조 단독항) 뉴욕협약

도 영토주의에 기준을 두고 있으나 이보다 해석의 폭이 넓고 자유롭다. 즉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요구 받는 국가 밖에서 내려진 판정뿐 아니라 자국법에 의해 국내 중재로 인정되지 않는 중재판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뉴욕협약 제1조 제1항)

뉴욕협약의 주목적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쉽게 함으로써 국제무역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승인/집행이 뉴욕협약보다 쉬울 경우에는 국내법이나 기타 국제협약 등 이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을 유리한 조건의 우선적용원칙이라 한다. (뉴욕협약 제7조 제1항)

브라질중재법은 국제협약을 따르거나 이러한 협약이 없을 경우에 중재법에 따라 승인/집행을 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중재법의 규정을 뉴욕협약과 파나마협약의 규정과 거의 일치하도록 했다. 따라서 브라질에서의 승인과 집행은 원칙적인 면에서는 뉴욕협약의 규정과 큰 차이가 없다. 한국과 브라질 간에는 뉴욕협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뉴욕협약과 브라질 중재법의 규정의 규정에 따라 승인/집행이 보장된다.

아. 중재승인집행 관련 국제협약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브라질이 가입한 것은 1923.9.24 제네바에서 채택된 중재조항에 관한 의정서(현재 대략 60여 개국이 가입)와 1927.9.26 제네바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협약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1958년)이 있다. 그 외에도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협약(1975년 파나마협약)과 외국 사법재판과 중재판정 역외유효성에 관한 미주협약(1979년 몬테비데오 협약), 남미공동 시장(Mercosur)에서 체결된 민사.상사.노동.행정분야의 관할협조와 원조에 관한 의정서(1992년 라스 레냐스 의정서) 등이 있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국제조약은 1958.6.10 뉴욕에서 채택된 뉴욕협약이다. 전문 16조로 된 뉴욕협약은 제네바협약에 비해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쉽게 했다. 1966.10.14. 발효된 워싱턴 투자협약은 국가와 타국민간의 투자분쟁에 관한 중재를 규정하고 있다. 동 협약을 준거법으로 하여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에 의해 중재판정이 되면 가입국은 중재판정상의 금전채권을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브라질은 동 협약의 가입국이 아니다.

1975년 파나마 협약과 1979년 몬테비데오 협약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간의 중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들 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해서는 뉴욕협약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브라질의 중재법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자. 승인과 집행의 방식

뉴욕협약은 국내 사법기관이 어떠한 절차를 밟아 외국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즉 이러한 국내절차에 대해서는 각국의 자유재량권에 맡기고 있다. 이에 관해 브라질 법은 외국 사법판결에 적용되는 전통적인 절차를 답습하고 있다.

즉 외국 중재판정이나 외국 사법판결의 승인과 집행은 모든 연방대법원(STF)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중재법 제35조) 그리고 그 절차는 민소법의 일반 확인소송 절차를 밟도록 했다. (민소법 제483조 제484조) 이러한 허가절차는 외국판결이나 판정의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에서 승인의 효력을 취득하고 집행하는 것이 브라질의 사법질서와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차. 승인 신청서류와 신청 당사자

신청은 민소법의 일반소송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그 형식은 권리확인 소송에 준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연방 대법원의 단심으로 외국 중재판정으로 확인된 권리를 브라질 사법질서상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공공 질서상의 수용성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권리확인 또는 강제집행의 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결과가 된다.

뉴욕협약(제4조)과 브라질 중재법(제37조)이 요구하는 서류는 동일하다. 즉 중재 판정문 원본 또는 브라질 영사인증을 받은 사본(또한 공인번역사의 포르투갈어 번역본 첨부) 중재 판정문 원본 또는 브라질 영사인증을 받은 사본(또한 공인번역사의 포르투갈어 번역본 첨부)이 그것이다.

카. 승인과 집행의 거부사유

연방대법원에 제기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의 소는 피 신청인의 요청 또는 법원의 자발적 조치로 그 허가를 거절할 수 있다. 이는 뉴욕협약과 파나마협약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즉 뉴욕협약은 제5조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와 연기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제5조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승인/집행의 조건이 된다.

타. 브라질 중재판정의 한국에서의 승인과 집행

한국 중재법의 문제점 중 하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국제협약은 헌법 규정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면 된다. 한국과 브라질은 뉴욕 협약의 가입국이기 때문에 그 규정이 적용된다.

브라질에서의 중재와 한국에서의 중재를 비교하면 시간과 집행의 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브라질보다는 한국에서 판정하여 브라질에서 승인과 집행을 받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 그 이유는 승인과 집행의 거절사유가 국내 중재절차나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보다 훨씬 단순하고 또한 그 절차도 단순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서의 중재소송은 브라질에서의 담보물의 확보 등 중재법원 잠정조치나 법원의 보존조치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양국간에 국제사법공조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중간 조치는 연방대법원(STJ)에서 외국중재판정으로서 별도로 승인과 집행의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브라질과 무역하는 한국 기업들은 거래액수나 거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양국의 중재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계약체결 시 중재조항을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브라질이 집행지가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담보물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은 사전에 여러 중재기관의 성향을 검토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중재기관을 미리 설정하여 현지에서의 분쟁해결에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사 중재원에서는 브라질에 아직 대표적인 상사중재기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교적 신뢰도가 있는 상사중재기구를 선정하여 중재협정을 체결하되 협정기간을 정하여 그 상황을 관찰해 가면서 협정을 연장 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만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중의 하나는 브라질에 가칭 한-브라질 상사 중재원이 설치되어 대한상사 중재원과 업무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30. 유형별 분쟁사례

대부분의 한국기업은 계약서 작성시 별 생각 없이 브라질 법원에서 상사분쟁을 해결할 생각을 한다. 문제는 브라질 법원의 소송기간이 너무 길어 채권자의 경우 보통의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1심이 보통 1-2년, 2심이 4-5년, 3심까지 10년 정도 소요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

채권집행 소송의 경우에도 2-3년은 그냥 지나간다. 그리고 채권보전조치를 하기가 어려워 한국기업으로서는 보통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상사중재제도가 있지만 아직 공신력 있는 중재기관이 없어 중재해결도 쉽지는 않다

그래서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웬만한 채권액이 아니면 아예 채권추심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브라질에서의 소송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상책이며 처음부터 무역대금회수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해야 한다.

VI. 투자

31. 외국기업 투자동향

브라질은 2000년까지 중국과 함께 개도국 중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FDI)유치국이었으나 2001년부터 경기둔화, 치안불안 등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 브라질에 대한 대외신인도 향상, 경기회복 등에 따라 회복세로 전환되는 듯 하였으나 2005년에 들어와 다시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 2005년 152억불로 전년대비 약 16.4% 감소 하였다.

대 브라질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단위 : 억불)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금 액	189.9	288.6	285.8	327.8	224.6	165.9	101.4	181.7	151.9

자료원 : 브라질 중앙은행(BCB), * 2006년 공식 통계는 2007년 초에 발표됨

대 브라질 외국인 직접투자의 특징은 브라질 국내자본이 부족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높은 분야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2차 산업의 경우 다국적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자동차, 화학제품, 식료품, 전자제품 등에 집중되어 있고 3차 산업의 경우도 외국계 자본비중이 높은 통신, 금융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2005년 기준, 주요 FDI 업종은 1차 산업의 경우 석유화학, 2차 산업은 자동차, 화학제품, 식료품, 전자제품 및 기기 등이고 3차 산업은 통신서비스, 전력 및 가스, 금융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가별 FDI 비중

(단위: %)

국가	2004	2005
미국	19.6	21.5
네덜란드	38.0	14.8
멕시코	0.3	7.7
프랑스	2.4	6.7
캐나다	2.9	6.6
독일	3.9	6.4
스페인	5.2	5.6
카이만 제도	7.5	5.0
호주	0.0	4.0
일본	1.2	3.6
기타	19	18

가. 일본의 브라질 진출현황

아시아의 경우 일본이 1970년대부터 가전제품, 자동차, 오토바이, 기계, 식품, 화학, 부품 등을 중심으로 가장 빠르게 진출했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 브라질 경제위기를 계기로 둔화되다가 최근 현지투자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및 중국 기업 투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관계자들은 브라질 투자진출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지난 2006년 3월에는 일본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마라냐옹 주 투자 설명회가 열려 많은 브라질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일본 기업이 참가하였다. 100년 이상의 이민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은 한국에 비해 투자규모 및 투자분야가 훨씬 다양하며(아래 표 참조), 경제 전문지 Valor 이 선정한 브라질 1000 대 기업 중 총 10개의 일본계 기업이 상위 300위 내에 포함되었다.

주요 일본기업들의 브라질 투자현황 (1달러= 2.14 헤알)

(단위: 백만 헤알)

순위	전체순위	업체명	활동분야	지역	자본	2004년 매출액
1	62	Honda da Amazonas	자동차	AM	일본	3,120
2	79	Toyota	자동차	SP	일본	2,545
3	151	Mitsubishi Motor	기계	SP	일본	1,424
4	161	Brideston Fireston 2	플라스틱/고무	SP	일본	1,381
5	188	Honda SP 2	자동차	SP	일본	1,174
6	200	Cenibra	셀룰로즈	MG	일본	1,120
7	208	Politeno	석유화학제품	BA	일본/브라질	1,091
8	256	Ajinomoto	식품	SP	일본	903
9	262	Sony	전자제품	AM	일본	862
10	284	Angeloni	광산업	ES	일본/브라질	792

주 : 2004년은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를 반영

AM(아마조나스) SP(상파울루) MG(미나스 제라이스) BA(바이아) ES(에스피리토산토)

자료원: Valor 2005, (2005년도 통계자료는 하반기 발표 예정)

나. 중국의 브라질 진출현황

중국은 브라질을 세계 최대 원자재 공급 국가이자 신흥 수출시장으로 보고 브라질정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룰라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브라질 방문을 통해 재확인 되었으며, 브라질 정부는 중국에 대해 시장 경제 국가 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

중국은 브라질의 대두, 철광석 등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CVRD철강회사와 철광석 장기공급계약 체결, 대두농장 매입, 내륙횡단 철도공사 참여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브라질 등 남미시장 공략을 위해 브라질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브라질에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Huawi, Gree, ZTE, SVA 등이 통신 및 가전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향후 브라질에 중국인들이 200만 명 이상 활동토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국계가 브라질에 40~50만 명에 달하고 한국교민이 50000 만여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엄청난 규모로 볼 수 있다.

□ 중국의 브라질 투자현황

- 기업명 : Huawi
 - 1999년 브라질시장 진출, 2004년 매출 1억불
 - 생산품 : 통신장비(초고속 인터넷 단말기, 랜 스위치 등), 휴대폰
- 기업명 : Gree
 - 2001년 브라질시장 진출이래 매출 매년 배가
 - 생산품 : 에어컨
- 기업명 : ZTE
 - 생산품 : 저가형 휴대폰, 2004년 브라질 최대 CDMA 사업자인 VIVO에 CDMA 휴대폰 125만대 판매(약 1억불 규모) 계약
- 기업명 : SVA
 - 생산품 : 저가형(약 125불) DVD기기 생산, 저가형 PC 생산

32. 우리기업 투자동향

1995년 메르코수르 관세동맹 공식출범 및 시장 확대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투자가 1994년 이후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브라질의 경기회복 현상과 1996년 한국 정상외의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투자가 1996년부터 본격화 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2004년 브라질 방문과 이듬해 룰라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이후 대 브라질 투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투자는 브라질 국내시장 확대와 인근 메르코수르 국가 등 남미시장 진출확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골드만 삭스 발표 이후 브릭스 국가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면서 대 브라질 투자 관심도도 한층 상승하고 있다.

수출입 은행 자료 기준 2006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총 투자 신고액은 U\$10억 1129만(72건)이며 순 투자금액은 U\$4억 8천 341만(60건)으로 제조업(U\$5억8298만)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건, 천불)

업종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총계	72	1,011,292	60	483,412
제조업	35	582,986	31	380,713
농림, 어업	1	23,780	0	0
광업	1	163,012	1	68,028
건설업	4	9,052	2	3,495
도, 소매업	15	85,352	12	23,864
운수창고업	4	774	3	389
통신업	3	135,268	2	2,183
숙박, 음식업	1	2,000	1	2,000
서비스업	8	9,068	8	2,740

자료원: 수출입 은행 (2006년 6월 기준)

33. 투자 환경

가. 남미최대시장

브라질에 대한 투자장점으로는 우선 거대한 내수시장을 들 수 있다. 즉 인구와 면적 면에서 세계 5위 대국이고 GDP면에서도 남미 최대국가이다.

나. 남미진출거점

브라질은 브라질은 남미대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남미 10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최적의 남미진출 거점으로 꼽히고 있다.

다. 남미경제통합의 중심

브라질은 1995년 1월부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과 메르코수르 관세동맹을 공식 출범시켰고 멕시코와 800개 품목에 달하는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안데스공동체(CAN)와도 FTA를 체결했다. 또한 미주 자유무역지대, 메르코수르-EU 자유 무역협정 등 자유 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

라. 중남미 국가 중 제조업기반 최고

중남미국가 중 제조업 기반이 가장 발달되어 있어 부품조달이 수월하고 제조업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남미 인근국으로의 수출이 용이하다.

마.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하지 않다

브라질의 주요 기간산업은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순수한 국내 기업들은 미약한 편이다. 따라서 한국 등 외국기업들이 진출해 시장에 진출 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이나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브라질에 대한 투자는 주로 미국, 유럽계 다국적기업들이 주를 이루며 최근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진출이 활기를 띄고 있다.

사. 투자유치 분야

연방헌법과 외자법은 외국자본과 내국자본과의 동등대우를 명문화했다. 즉, 동등대우원칙에 따라 법규정에서 외자의 참여제한이나 특정요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은 없다. 특히, 브라질은 건국 이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하등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1971년에 제정된 외국인 법에는 브라질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50 MODULE 이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외국인이 시 면적의 1/4이상을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동일국가의 외국인이 전체 외국인 소유면적의 4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 목적의 외국인 법인체는 국가의 허가를 받고 구입할 수 있으며, 외국인으로 브라질에 거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산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 투자장려분야

투자장려는 마나우스나 북동부 지역 등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역투자 인센티브와 정보 산업 등 연방차원에서 특정산업분야의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특정산업 인센티브가 있다. 이러한 투자인센티브는 주정부와 시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 정보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정보산업법에 따라 공업제품세 우대조치 등을 부여하고 있다.

1991년 법률 제8248호에서 제정되고, 2001년 법률 제8248호(정보법)에서 개정된 정보통신 법에서는, 브라질에서 제조된 정보기기에 소요되는 공업제품세(IP1)의 면제 또는 삭감을 정하고 있다. 단 브라질 남부·남동부의 기업과 중서부·북부·북동부의 기업에서 공업제품세의 삭감률에 차이를 두고 있다.

브라질 남부와 남동부에 본사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정보통신법은 아래의 비율에 따라서 공업제품세를 감면하는 특전을 정하고 있다. 2002년 90%, 2003년 85%, 2004/14년 80%, 2015년 75%, 2016년 1월 1일부터 감세가 중지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70%이다.

2) 투자제한분야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연방헌법 경과규정의 제52조에 의거하여 국익에 관련 되는 경우에 브라질 정부의 사전허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브라질 내 외국은행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허용되며, 외국은행은 현지 투자은행의 지분을 3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신문, 잡지 및 기타 간행물과 라디오와 TV방송국의 소유 및 운영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에는 제한이 있다. 연방헌법의 제36차 수정을 통해 2002년부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투자를 30%상한까지 허용하였다.

통신, 내륙 및 연근해 해상운송, 천연가스 보급 및 석유산업, 전기배전사업 등은 공기업 민영화와 함께 규제를 해제하고 있다. 어업의 경우 외자비율 40%, 항공업은 2/3 이하, 해운업 50% 이하, 금융업 30% 이하 등을 정하고 규제하고 있다.

3) 투자금지분야

외국인 투자금지 업종으로는 원자력 에너지 관련 개발분야, 보건서비스, 국경지역에서의 거래와 토지소유, 우편 및 전신서비스, 국내선 항공, 항공우주산업 등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할지라도 브라질 정부의 국산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산화 사용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세금면제혜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아. 투자허가

□ 수속절차

- 유망업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 부여 여부를 확인한다.
- 신규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을 인수한다.
- 차후 과실송금을 위해 브라질 중앙은행에 등록한다.
-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한다.
- 건축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고 환경규제 저촉여부를 검토한다.
- 인력충원을 위한 노동부 허가를 받는다

34. 투자 인센티브

가. 세제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출 시 얻을 수 있는 정부지원 제도로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 감면

수출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수출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업 전체 소득에서 차감하는 제도가 있다.

2)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상품수출에 따른 커미션 송금액, 외국에서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등, 시장개척 활동비, 광고비, 시장조사비, 전시회, 박람회 참가비, 해외지사 설치유지비 등은 소득세 원천징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3) 공업 제품세, 상품유통세, 금융거래세 감면 혹은 면제

4) 소비세 환급

수출품 제조에 사용된 전기, 유류의 원가비중이 2% 이상인 경우, 이에 한 소비세 환급 등

나. 지역 인센티브

투자 인센티브는 투자기업의 투자금액 및 고용창출 정도와 함께 해당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에 대한 협상력에 따라 상이하다. 북부, 북동부, 중서부의 국경개발을 위해, 연방 정부에 의한 각종 세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다.

투자인센티브는 주세의 감면이 대부분이며 감면률이 각주마다 상이하다. 연방세는 마나우스(MANAU) 지역, 북부 9개 주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인센티브에는 보통상환 기간이 180일 이내인 저리의 수출금융 지원, 지방정부의 저가 토지 제공, 지방세 혜택 부여 (상품유통세 지급기일 연장 최대 6개월), 인프라 및 공공이익 프로젝트는 경제 사회개발은행(BNDES)을 통한 융자 등이 있다.

한편, 브라질의 중서부, 북부, 북동부에서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업제품세가 면제되었고 2004년 1월 1일 이후 IPI의 삭감률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95%, 2005년 90%, 2006년 1월 1일부터 감세가 중지되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85%이다.

특히 북쪽의 바이아 주는 바이아 주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산업, 농업, 광업, 전력생산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주 유통세(ICMS) 일부를 장기저리 산업융자로 대체해 주고 있다. 투자장려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브라질 북동부은행(BNB) 등 지역개발은행의 중장기 금융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우선산업 분야에 투자 시에는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으로부터 차입도 가능하다.

35. 타당성 조사

브라질 시장의 매력은 거대한 국내소비시장과 이를 기반으로 인접국가로 판매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브라질에 대한 투자규모는 우선 브라질 시장에 맞추고 그 후 인접시장에 대한 수출가능성을 보아가며 투자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브라질의 단점으로는 소위 Brazil Cost라는 투자의 장애요인, 즉 과도한 조세부담, 노무관리부담, 과도한 금리, 부족한 인프라 시설 등이 있다. 브라질정부는 1990년 시장개방정책을 표방한 이래 지금까지 14년 동안 이러한 브라질코스트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 왔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

외국기업들이 브라질에 투자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브라질 국내시장이 주는 매력이다. 브라질의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브라질의 소비시장은 국내생산품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즉 정부의 시장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정책에서 수입은 수출에 비례하여 조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완제품이건 부품이건 수입품에 절대적인 의존을 하는 기업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수입업체들이 판매망과 서비스망을 확보하면 제조업체로 변신을 꾀하는 것이 브라질 업체들의 특징이다. 여하튼 브라질이 주는 매력은 남미최대의 소비시장이라는 사실이며, 이곳을 거점으로 인근지역으로 판매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브라질을 남미 또는 중남미시장의 지역본부로 이용하고 있음이 이를 실증한다.

그런데 국내시장판매를 우선으로 하고 이를 거점으로 인근지역에 대한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브라질 투자시장의 장점을 형성하는 요인들에 문제점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인접국들과 비교할 때 숙련노동력의 공급,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의 장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직까지는 브라질에서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나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 지대 등의 형성과 각종 투자유인을 통해 브라질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이 전통적인 투자유인 요소만을 갖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편, 브라질에 투자를 한 외국기업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공통사항들은 거시경제의 불투명성,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지나친 치안부재현상, 사법부의 소송적체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부족 등이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투자기업의 3대 골치 덩어리인 복잡한 세무 구조, 경직된 노동제도와 높은 이자율에 따른 자금조달의 문제라는 전통적인 3대 기업 관리의 문제가 외국기업에 괴롭히고 있다. 또한, 브라질이 시장개방을 한 후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부족한 인프라의 문제, 엄청난 물류비용, 낙후된 부품산업에 기인하는 안정된 부품조달의 문제와 일관성이 없는 정부의 수출입정책이다.

외국기업이 본격적으로 투자의 사업성 검토(feasibility study)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본사에 브라질의 실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브라질담당자가 투자에 대해 개인적인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본사의 투자결정권자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우선, 브라질의 투자 여건을 설명할 때 복잡할 뿐만 아니라 높은 세율의 브라질 세제, 기업이 그렇게 높은 이자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점, 경직된 노사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투자결정 때에도 본사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투자 후 기업을 운영할 때 가장 곤란한 문제점의 하나가 브라질의 조세제도를 이해하는 것이다. 브라질에는 80개가 넘는 조세가 있고 담세율이 너무 높다. 브라질전체 GDP의 40%를 정부가 직·간접세로 거둬들이기 때문에 국민이나 기업은 정부를 쳐다보며 살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브라질의 우수한 두뇌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에 몰려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것이 개도국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여하튼, 조세제도의 문제점은 과도한 담세율 외에도 과세방식이 너무 복잡하여 기업이 약간만 부주의하여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탈세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 과세기준에 여러 가지 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려면 소위 세무관리비용이 너무 높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예 탈세하는 것이 세무 관리에 더 유리하다는 말도 있다. 정부가 조세개혁을 위해 지난 14년간 꾸준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조세의 종류를 줄이려는 노력이 없는 한 근본적인 조세개혁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기업의 세무관리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어 끓아터지기 때문에 기업 관리자의 입장에서 조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세무 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하여 관련 담당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필요하다면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기업 내 세무 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사를 설득하기 어려운 또 다른 문제는 노동고용의 경직성에 관한 문제다. 노동자를 한 번 고용하면 사회복지비등 부담해야 부대비용이 너무 많고 해고하는데도 절차가 복잡하다.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많고 복잡한 노동법규를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고용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부담이 늘어가기 때문에 투자초기에는 큰 부담이 안될 수도 있으나 갈수록 아킬레스건으로 모양새가 바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브라질의 금리는 가히 살인적이라 할 수 있어 기업들도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은행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즉, 기업의 부채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기업들은 국제신용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국내기업은 공공개발은행 등의 저금리를 적기에 이용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런데 해외자금은 항상 외환변동에 노출되어 있어 기업들은 외환관리를 하는데 대단한 신경을 쓴다.

지난 카르도 주 정부나 현 룰라 정부도 이러한 3대 고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장담을 해왔으나 아직 그때그때 땀질만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룰라 정부 들어서 전반적으로 경제 펀더멘탈이 호전되면서 각종경제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에는 잘 들어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인프라문제, 물류비용, 부품조달의 문제이다.

안정적인 부품조달의 문제는 브라질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브라질의 부품산업은 이민들이 세운 영세기업규모의 부품공장이나 다국적 기업들이 세운 초일류 부품기업으로 양분되어 있다. 전자는 국내시장에 대한 조달이 주 임무고 후자는 다른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동반진출의 경우다. 그래서 조립공장의 경우 부품조달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으면 국산화율이 올라가면서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취하는 무역조치들이 겉보기보다 훨씬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부품산업이 아직 활발하지 않아 제조업체들이 상당한 양의 부품을 수입한다. 그런데 어떤 부품은 수입관세가 완제품의 수입관세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 기업들을 헛갈리게 한다. 정부입장에서는 부품의 국내조달을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투자인센티브의 혜택을 누리고 고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현지에서 조립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서는 난감할 때가 있다.

반면, 부품의 국내생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 이러한 산업정책의 일관성부족문제는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큰 문제가 된다. 투자인센티브의 대가로 기업들은 일정율의 국산화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국내에서 구입할 만한 국산부품이 없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입장에서도 보통 시장점유율이 올라갈수록 국산화율에 대한 요구가 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업인들의 경험적인 진술에 따르면 브라질의 물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산화율이 70% 정도는 되어야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물류문제는 최근 브라질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농산물, 시멘트, 철광석, 철강 등 원자재의 소비량이 급증하자 물류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갈수록 힘을 더해가고 있다. 브라질의 운송능력이나 보관능력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바로 물류적체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룰라 정부는 취임 첫해에 긴축재정을 취하느라 인프라 투자는 등한시 했다. 그 와중에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도로, 철로, 연안운송, 항구, 공항 등의 운송 및 보관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물류대란에 대해서는 기업인이나 공무원 모두가 수긍하는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기업들이 수출입시 선적이나 하적의 문제는 둘째 치고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와 운송편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프라 문제에 더하여 발생하는 잦은 파업(특히 항구, 세관) 등으로 기업들이 적기에 제품을 공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기업은 수입기업대로 수출기업은 수출기업대로 국내외 판매시장에 적정량보다 많은 재고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끝으로 브라질의 경기지수는 너무 단기적이고 불규칙한 사이클을 형성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장기투자의 불확실성이 크다. 우리나라기업들 중 투자한지 2~3년 내에 철수하는 기업의 경우는 이러한 경기불안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처리를 위해 철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기업의 경우는 막대한 초기투자, 현지전문경영인 고용, 자금력 등의 여유 있기 때문에 5~6년씩 버틸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그러한 여력이 없다. 그런데 브라질시장은 이러한 불규칙한 경기 사이클을 예측하기 힘들고 판매망이나 A/S망의 확보 및 기업의 입맛에 맞는 현지 전문인력을 키우고 현지상황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3년의 단기투자로는 성공적인 정착을 하는 것이 어렵다.

정리해 보면, 브라질에 투자를 할 경우 세무관리, 노무관리, 금융관리의 전통적인 투자관리 외에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족한 인프라에 따른 물류비용과 안정된 부품조달 등의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브라질의 문제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 물류 관리에 대한 투자, 부품산업에 대한 투자, 도소매판매유통망에 대한 투자 등 새로운 진출 시장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한국의 앞선 IT기술을 잘 이용할 경우 좋은 투자기회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36. 투자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가. 법인

현재까지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법적 형태를 보면 대부분 현지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브라질법상 사무소나 지점의 설치와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립된 현지법인이 내용상 지사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법률형태는 본사와 법적으로 독립된 현지투자 법인이 된다.

현지법인은 브라질 기업이기 때문에 브라질법의 적용을 받으며 노동법과 외국인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브라질 외국인 법은 제99조에서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브라질 법인의 경영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사 파견직원이 현지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 즉, 본사 파견직원이 영주권이 없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를 현지 법인의 대표로 임명하여 대리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노동부는 영주권 부여조건으로 다양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브라질의 노동법(CLT)은 제 3 편(노동보호에 관한 특별 규범 편)의 제 2 장(노동의 국산화)에서 내국인의 의무고용에 관한 규정하고 있다.

제352조는 피고용인이 3인 또는 그 이상인 기업의 경우 브라질인의 고용비율을 동법에서 설정하는 비율이하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소위 2/3비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유한책임회사 (Sociedade Limitada)

유한책임회사는 브라질 민법 제 1,052조 내지 제 1087조에 따라 규정된다. 부수적으로 1976년 12월 12일 발효된 주식회사법인 법률 제 6404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한국 투자 진출기업들이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택하고 있다.

□ 주식회사 (Sociedade Anonima 또는 S.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법인 법률 제6404호 (1976.12.12.)에 의해 규율 되는데 동 법은 법률 제9457호 (1997.6.5.) 및 법률 제10303호 (2001.10.31.)에 의해 부분 개정되었다.

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에 비교하여 기업 활동, 경영진과 주주간의 관계, 재정적인 유연성, 경영의 투명성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들이 있으며, 유한책임회사에 비해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 한편, 주식회사는 경영권을 보호하면서 외부 투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사전준비 단계

- 변호사 선정: 회사정관 작성(정관은 변호사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
- 계리사 선정: 법인설립 관련 세금 자문 및 법인서류의 준비
- 현지 고용인 물색: 회사설립 후 회사운영에 필요한 인력준비

2) 필요서류

- 투자회사: 회사설립정관, 회사설립 신청양식, 대리장 (POWER OF ATTORNEY)등
- 주재원: 개인 이력서, 가족사항, 신원 증명서 등
- 특기사항: 상기 서류 등 외국에서 준비하는 모든 서류는 공증사무소에서 서명공증을 받아 브라질 영사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아서 브라질로 보내야 함. 브라질에 도착한 서류는 공인 번역사를 통해 포르투갈어로 번역한 후 서류등기소(cartorio)에 등기해야 브라질에서 효력이 있음.

3) 설립 소요기간

설립 소요기간은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르다. 회사설립은 법인등기소(Junta Comercial)에 등기하여 등기번호(NIRE)를 받으면 설립된 것으로 간주되나, 연방국세청(Receita Federal)으로부터 법인납세번호 (CNPJ)를 받아야 차량구입, 임대계약 등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4) 송금 방법 및 부과세

처음 법인 설립 시 미화 5만 불을 자본금 형식으로 유입하는데 이 경우 세금이 부과 되지 않는다. 이를 사용하여 파견사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물론 자본금이 유입됨과 동시에 경비(임대료, 문구류, 전화비) 혹은 자산(차량 및 사무가구) 구입이 가능하다.

그 다음부터는 매월 유지비(경비) 조로 매월 송금 받을 수 있으며 동 송금액은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5) 절 차

- JUNTA COMERCIAL에 회사설립 신고
- 회사등록번호 (CIC NO) 부여, 회사설립
 - 신설회사의 사장은 반드시 현지인이어야 한다. (노동법상의 현지인 범주에는 영구 영주권 유효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도 포함됨)

- 투자자본금 국내 반입
 - 외국인 임원 수에 따라 1인당 5만 불씩 투자자본금을 증액하여야만 영주비자 획득 가능하며 브라질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에 자본금 반입을 신고한다.
 - 주재원의 '임원' 증명은 본사의 주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단순한 직명 부여만으로는 임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 현지 고용인 채용은 임원이 아닌 일반 주재원 1인당 현지인 2명이어야 하며 변호사를 통해 연방정부 노동성에 주재원의 영주비자를 신청한다.
- 브라질 연방정부 노동부의 통지서 접수 후 귀국, 서울주재 브라질 대사관에서 영주비자 획득한다. 무역업의 경우에는 브라질 대외무역국(DECEX)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브라질 현지인과의 동업을 포함한 개인 단독투자도 US\$ 5만 이상을 투자로 본다.

6) 투자이민에 대한 영주권 부여규정

연방이민위원회 규범 (Resolução Normativa; Normative Resolution) 제 60호 (2004.10.6.)에 따라 브라질에 투자이민 하려는 외국인은 영주권을 소지해야 한다. 영주권은 최소 미화 5만불 이상에 해당되는 외화를 투자하는 경우에 부여되며 동 투자는 신설회사 또는 기존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투자금액이 미화5만 불에 미달되는 경우에 향후 5년 내에 최소 10명 이상의 브라질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창출계획이 있는 경우에 CNI는 영주권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CNI가 영주권부여를 결정하면 노동부는 외무부에 비자를 허여하도록 통보한다. 투자이민의 경우 최초 발급되는 영주권 신분증(Cédula de Identidade)에 외국인투자자 및 5년 유효기간을 명시해 준다. 연방 경찰국(법부부 산하)은 투자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영주권의 갱신을 금할 수 있다.

7) 현지법인 관리직에 대한 영주권부여 규정

법인투자 규정내 연방이민위원회 규범(Resolução Normativa; Normative Resolution) 제 62호 (2004.12.8.)에 따라 최고경영자, 이사, 부장 등 회사의 경영권을 부여 받는 직위로 오는 외국인은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 관리직에 대한 영주권부여는 그 직위와 권한을 결정한 회사결정문서(주주의결서, 정관)가 관계기관에 적절히 등록된 경우에 부여한다.

외국인을 초청하는 브라질기업은 초청하는 관리직 1인당 현금, 기술이전 또는 자본재를 5만 불 또는 그 이상을 투자해야 함. 이 경우 기업설립 또는 관리자입국 후 2년 내에 10개의 신규고용창출이 있어야 한다. 또는 상기 고용창출의 의무를 벗어나려면 미화 20만불 상당의 투자를 해야 함.

최초에 발급되는 외국인신분증(Cédula de Identidade do Estrangeiro)에 그 직위를 명기하며 계약기간 또는 주주 합의록에 기재된 기간에 따른 유효기간을 명시한다. 영주권의 연장시 동일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관리직에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9년 기간의 영주권을 발급해 준다.

영주권자가 초청기업의 동의 하에 퇴사하거나 계열기업과 관계없는 기업으로 옮기려는 경우 노동부의 의견을 받아 법무부가 그 허락여부를 결정한다. 영주권자가 관리직을 떠나는 경우 초청회사는 노동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만 후임자 초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비자 취득관련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 신청절차
 - 법인설립
 - 자본금 유입
 - 비자 관련 업무 보는 변호사 계약하여 비자 신청
- 구비서류
 - 법인 설립 후 자본금 유입증명서
 - 재직/전근 증명서
 - 소득 명세서 (한국에서의 수익 및 브라질에서의 예상수익)
 - 무범죄 증명서

나. 지 점

브라질법상 외국기업이 지점을 설치하는 것에 제약은 없으나 지점설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브라질 정부는 지점이란 브라질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투자금의 도입과는 거리가 멀고 새로운 선진기술의 이전방법으로도 부적합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본사에 종속되기 때문에 정부의 객관적인 통제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브라질 현지에서 지사설립은 하기 사유로 어렵다.

1) 지점 설립은 대통령 허가를 받아야 함

2) 지점은 어떤 영업활동도 할 수 없음

거래선 상담, 시장조사, 중개업 등은 현지에서 영업으로 간주함

3) 지점일 경우 본사에서 발생하는 내역들을 현지에 신문 공고하여야 함.

이는 영사확인, 공인번역비 및 공증비가 상당히 높아 오히려 부담이 더하기 때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현지에서는 유한회사로 설립되어 있다.

- 설립절차
 - 브라질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점설치의 허가는 대통령이 한다. 연방정부의 허가는 연방관보를 통해 공시되며 이와 동시에 합법적인 지점설치를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지점이 소재한 해당 주 상업등기소에 신고, 등록할 수 있다.

다. 합작투자

합작투자는 일반적으로 소유권과 경영구조 및 비밀유지 등을 고려하여 유한책임회사 또는 비공개 주식회사의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는 구조를 가진다.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계획하는 사업투자 및 그 구조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당사자들의 예비적 합의를 양해각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이는 배타적 협상 및 실사조사로 이어진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완결되면 합작투자회사가 설립된다. 당사자 간의 관계는 합작투자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규제되지만,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주/지주합의서 형식으로 그러한 관계를 규정할 수도 있다.

기본적인 합작투자 수단이 외국자본기업일 경우, 법적으로 필요한 기업문서는 포르투갈어로 작성하여 완성하고 브라질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른 합작투자 관련 문서에도 같은 요건이 반드시 적용되지는 아니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서는 그러한 문서도 적격한 브라질 변호사가 포르투갈어로 작성하여 완성하고, 브라질 법을 준거법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브라질 법원 또는 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번역가가 포르투갈어로 번역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 단독투자

단독투자는 다국적 기업이 주로 선호하는 방식으로 현지경영에 대한 자신감과 기술력의 공개기피 및 세계경영의 필요성 등에 기인한다. 투자규모가 클 경우에는 브라질에서 능력과 경험이 있는 현지경영인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들의 노하우를 통한 시장개척이 수월하기 때문에 합작투자의 장점을 상쇄할 수 있다.

한편 단독투자는 기업설립부터 경영, 판매, 고객관리에 이르기까지 투자기업이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투자위험이 크다. 외국기업의 예를 볼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모기업의 경영 전략과 현지경영전략의 상충으로 초기에 그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는 점이다. 다국적 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브라질 경영층의 노하우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데 유효하다.

마. 프랜차이징을 통한 진출

1990년대 들어서 급성장한 진출방식이다. 주로 미국의 패스트푸드산업과 도매서비스 업종에 의해 선도되고 있다. 프랜차이즈를 통한 진출은 헬스클럽, 언어학원, 문구류 등 전산업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전자제품의 대리점 방식도 시험 도입단계에 있다.

바. 합병과 인수

합병과 인수거래는 매매조건, 진술 및 보증, 겸업금지 및 면책조항에 관한 당사자들간의 예비협상에서 시작되며 그 내용은 배타적 협상과 실사조사로 이어지는 양해각서에 반영된다. 일차적으로 중요한 논의점은 거래 당사자가 이를 자산 또는 주식인수를 통해서 이행할 지 여부인데 실사조사의 결과가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37. 입지선정

가. 주요 지역별 입지조건

□ 브라질 투자 유망 7대 도시

- 상파울루 주 (São Paulo): 인다이아투바 (Indaiatuba- SP), 수마레 (Sumaré-SP), 따우바테 (Taubaté-SP), 상 카를로스 (São Carlos-SP)
- 미나스 제라이스 주 (Minas Gerais): 뽀수스 지 까우다스 (Poços de Caldas-MG)

○ 파라나 주 (Paraná): 상 주제 두스 삐냐이스 (São Jose dos Pinhais-PR)

○ 히우 그란지 두 술 주 (Rio Grande do Sul): 그라바타이 (Gravataí-RS)

위의 각 도시들은 각 주의 주도(州都) 또는 대도시에 인접한 위성도시로, 교통 요충지나 물류시설이 들어서기 쉬운 전략적인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질의 산업 인프라는 물론 높은 생활수준을 가진 인구 5만~35 만 명 정도의 도시 중에서 선정하였다. 이미 브라질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과 전문 컨설팅 기관인 Simonsen Associados의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수년간 투자 유치 실적이 우수한 도시를 선정하였다.

투자 유망 지역으로 선정된 도시들은 대부분 상업 활동이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접 지역에 위치하여 상당한 정도의 산업 인프라가 이미 형성돼 있는데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고 기계 수리 및 관리, 수송, 보안을 담당하는 각종 서비스 업체가 주변에 많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투자 유망 도시에는 Toyota, Audi, Renault, GM, Chrysler, Volkswagen, Fiat 등 주로 자동차 생산업체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산업이 투자 유망 도시 선정기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인다이아투바 (Indaiatuba)

경제중심지인 상파울루 시에서 9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구 12만 명의 도시이다. 철도를 이용한 물자 수송이 가능하며 항공 화물의 80%가 거쳐가는 비라코푸스 Virascopos 공항이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을 연결하는 국내 주요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브라질 내에서 산업생산능력과 기술개발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이다. 현지투자 기업에 대해 재산세(IPTU) 면세 또는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투자한 사례로는 Toyota를 들 수가 있는데 Toyota는 1998년 1억5천만 달러를 투자해 자동차 생산공장을 설립하였으며 시로부터 10년간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음. 현재는 직원이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따우바페 (Taubaté)

상파울루 시에서 134km 떨어진 인구 22 만의 도시로, 상파울루와 리우 데 자네이루를 연결하는 Dutra 고속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1993년 현지투자 유치방침에 따라 26개 생산 공장 설립을 허가했으며, 이후 시가 조성한 2개 산업단지에 32개 업체가 추가로 들어섰다.

산토스 항구 또는 상 세바스티아웅 항구에서 불과 45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수송이 편리함. 국내 주요 공업지역 중 하나인 발레 도 빠라이바(Vale do Paraíba) 지역의 중심 도시인 상 조제 도스 캄보스(São Jose dos Campos)에 인접한 도시이다. 우주공학으로 유명한 ITA 대학 출신 우수 인력 확보가 용이한 것이 장점이다.

따우바페에는 LG, Volkswagen, Ford 등이 대표적인 현지투자 기업이다. LG전자의 경우 기존의 모니터 생산공장 외에도 2005년 7월 휴대폰 생산 공장을 개설하였으며 새로운 공장 설립으로 인하여 500명의 직접 고용과 450명의 간접고용 효과를 내고 있다.

3) 쌍 주제 두스 삐냐이스 (Sao Jose dos Pinhais)

빠라나 주의 주도인 꾸리치바(Curitiba) 시에서 가까우며 17만 인구가 거주하는 이 도시는 주로 독일, 폴란드, 우크라이나 계통의 이민이 많은 도시이다.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회원국을 위해 중요한 수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빠라나과(Paranaguá) 항구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아폰소 페나(Afonso Pena) 공항은 연간 4백만 명의 승객을 수송한다. 브라질 내에서 인구규모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0대 도시의 하나로 꼽힌다. Renault, Nissan, Volks/Audi의 주요 생산지역 중 하나이다.

4) 그라바타이(Gravataí)

리오 그란데 도 술 주의 주도인 포르토 알레그레(Porto Alegre) 시에서 34km 정도 떨어진 그라바타이 지역은 "GM 왕국"이라고 불릴 만큼 General Motors사의 영향력이 큰 도시이다. GM은 메르코수르 시장 공략을 위해 6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12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1천 여 개의 자동차부품 생산업체가 시의 주력산업이 되고 있으며 시와 가까운 곳에 공항, 철도, 항만 시설이 형성되어 있어 수송이 편리하며 인구는 21만 명 가량이다.

투자사례로는 GM, Albarus, Suloy, Maxiona-CEV, Moas Weber, Pirelli Pneus, Tinatas Renner 등이 있다.

5) 상 까를로스 (São Carlos)

상파울루 시로부터 24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파울루 대학(USP)과 상까를로스 연방대학(UFSC)이 근교에 위치해 우수한 인력확보가 용이한 '고급 두뇌 도시'로 꼽힌다. 국내 5,000여 개 도시 중 가장 많은 수의 박사 학위 소유자가 거주하는 도시로 선정되었다. 고급 두뇌들이 많이 모인 도시답게 산학협력이 활발하며 창업 인큐베이터 관련 기업인 Parctec가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는 18만 명 정도이다. 투자 사례로는 Volkswagen, Parqtec가 있다.

6) 수마레 (Sumaré)

상파울루 시에서 1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구 17만 명의 도시로 교육 및 산업도시인 캄삐나스(Campinas) 시와 인접해 있다. 최근 브라질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인 캄삐나스 시의 영향을 받아 외국기업의 현지 투자를 크게 환영한다. 투자사례로는 Honda, Villares, Fortilit가 있다.

7) 뽀수스 데 까우다스 (Poços de Caldas)

Minas Gerais주의 주도인 Belo Horizonte 시에서 450km 떨어져 있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할 정도의 시설을 갖춘 공항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최근 들어 이 도시에 대한 투자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구는 약 13만 명이다.

투자사례로는 Alcoa, Fertilizantes Mitsui, Cia. Brasileira de Alumínio, Ferrero Rocher, Rhodia, LPC-Danone가 있다.

나. 산업단지

□ 마나우스 산업단지

브라질 최대 산업단지인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는 1957년 법률 제3173/57호로 설립되고 1967년 2월 대통령령 제288호를 통해 마나우스 시를 중심으로 약 10,000km²에 달하는 지역에 설치되었다. ZFM은 조세 인센티브 지역이기 때문에 비교적 경쟁력 있는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고,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1) 기업설립

ZFM에 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ZFM 관리청(SUFRAMA, www.suframa.gov.br)에 산업프로젝트안(roteiro de Projeto Industrial)을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Suframa 행정 위원회(Conselho Administrativo da Superintendencia)의 승인을 받으면 신청기업은 확정된 산업프로젝트와 건축설계 프로젝트를 제출한다.

ZFM투자의 특색은 투자요건 중의 하나로 일정비율의 국산화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생산과정(PPB: Processo Produtivo Basico)이 그것인데, 생산품별로 원자재 준비, 가공부터 최종품의 생산과정까지를 자세하게 나누어 국산화 비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ZFM가 단순한 수입제품의 조립지대로 전락하는 것을 막도록 한 것이다.

2) 투자인센티브

ZFM에 대한 조세 및 기타 투자인센티브는 SUFRAMA와 SUDAM을 통한 연방인센티브와 마나우스 주 상공관광국(SIC)을 통한 주정부의 인센티브 및 마나우스 시의 인센티브로 나뉜다.

3) 마나우스 진출기업

마나우스에는 500개사가 진출해 8만 5천 명을 고용하고 있고 연간매출도 135억 불에 달하고 있다.

마나우스에 투자진출 한 주요기업으로는 노키아, 혼다자동차, 필립스, 삼성전자, 썬프도시바, 혼다 부품, 삼성SDI, 파나소닉, CCE, LG전자 등이 있다. 주요 판매시장은 브라질 내수 시장(80억불), 미국(6억 2천만 불), 멕시코(7천 4백만 불), 콜롬비아(6천 3백만 불), 베네수엘라(5천 9백만 불), 칠레(4천 1백만 불), 페루(3천 7백만 불), 아르헨티나(3천 4백만 불), 파나마(3천 3백만 불), 독일(2천 6백만 불), 파라과이(7백만 불) 등이다.

주요 판매제품은 휴대폰(1천 3백만 대), TV(6백만 대), 모니터(2백만 대), DVD (120만 대), 오토바이(87만 대) 등이다

38. 공장설립

브라질은 국토도 넓고 기후도 다양하다. 공업발전이나 소비인구는 주로 남부와 남동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특색이 있다. 공장입지와 관련하여 브라질 전체를 놓고 볼 때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산업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에컨대 미나스 제라이스 주에는 기계, 제철, 광산업이 강하고 신타 까타리나 주는 세라믹 공업, 빠라나 주는 제지와 펄프, 리오그란데 두 술 주는 제화와 포도주 산업이 왕성하다. 또한 북쪽의 바이아 주는 석유화학이 발달되었고 최근에는 제지업과 섬유산업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마나우스 지역으로는 경공업과 가전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반면 GDP의 37%가 집중되어 있는 상파울루 주는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골고루 발달되어 있는 특색이 있다.

법인설립은 임시 주소로 하고 설립 후 법인명으로 임대하는 것이 경비 절감 효과도 있고 유리하다. 임대비로 장소에 따라 차이가 많으며 임대 시 보증인, 보증 보험 혹은 3개월 임대료 개런티를 요구할 수 있다.

건물 건설 시 건설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건설계획은 주정부의 건설조례와 상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주정부의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외국인 토지소유는 제한되고 있지 않으나 국경에서 150Km는 벗어나야 한다. 주정부에 따라서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제한하거나 목축업 등을 위한 토지취득만을 허용하므로 사전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강화, 환경오염 범죄에 대해서는 최장 1년의 실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책 금융기관들도 사업심사 시 환경평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주에 따라서는 산업구역, 환경구역 등의 세부설정을 통해 환경오염을 규제하고 있으며 마나우스 자유 무역지대 등에서는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도 한다.

토지관할권

	관 할	규 제
연방	국경지대와 국가안보지대, 국립공원, 환경보호, 멸종위기 자연자원보호, 인디언 보호 등	일반산업활동과 관련해서는 연방정부의 규제는 거의 없다. 단, 국경지대에서 공장시설물이 필요하거나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사전주의를 요한다.
주	관할환경보호, 수력자원 등규제	연방헌법은 각 주로 하여금 환경보호에 관한 입법을 하고 시행토록 규정한다. 주 환경법은 그 필요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공장입주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시	도시토지사용, 교통정리, 소음, 진동, 공해문제 등	각 시는 연방법에 따라 지역편제에 관한 입법을 해야 하며 모든 토지는 용도에 따른 구분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시가 이러한 연방정부의 규율을 지키지 않고 사전확인을 요한다. 연방정부의 토지편제는 용도별로 Z-1, Z-2 등으로 구분하는데 대부분의 시도 이러한 연방편제를 따르고 있다.

자료원 : 브라질 비즈니스 진출 안내백서

상파울루 주의 토지편제

ZUPI 1	산업용도지역으로 공장부지 크기에 대한 제한이 없음
ZUPI 2	산업용도지역이지만 공장부지 크기에 제한이 있다. 총 건축 면적이 10,000m ² 이하로 제한
ZUPI 3	용도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산업시설물의 경우 그 규모는 2,500m ² 이하로 제한

자료원 : 브라질 비즈니스 진출 안내백서

상파울루 주에서 시행하려는 산업프로젝트는 상파울루 주의 환경기준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심사를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주 환경국에 제출하고 주 환경기술 공사(CETESB)의 환경기준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장부지설정과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매매의 경우 중개 수수료는 보통 거래액의 5-10%이며 일반적으로 매각인이 지불한다.

39. 투자관련 정부기관

가. 브라질 무역 투자진흥청 : APEX/BRASIL

- Agência de Promoção de Exportações e Investimentos
- Brazil Export and Investment Promotion Agency
- 기관장 : Juan Queiroz
 - 이 력 : 42세, 국적 브라질, 무역진흥 분야에서 오랜 경력 쌓았음.
- 구 성
 - 본사 : 브라질리아 위치
 - 직원수 : 약 100명
 - 현재 APEX는 브라질리아 본사 외에 지방 사무소나 해외사무소가 없으며 해외에는 공관을 통해 마케팅 지원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사업분야 : 프로젝트팀, 국제사업팀, 유통지원팀, 투자유치팀, 무역전략팀 등 5개 분야로 분류됨.
- 역 사
 - 1997년 대통령령으로 무역진흥기관 APEX 신설
 - SEBRAE(중소기업 진흥 센터) 하부기관으로 기능이 한정되어 있었음
 - 2003년 2월 6일부로 APEX/Brasil로 명칭을 정정하고 상공개발무역부 산하기관으로 변경되었음.
 - 2004년 12월부터 투자부서가 신설되어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도 병행하기 시작함.

○ 연락정보

- 위치 : SBN Quadra 1, Bloco B, 10^a andar - Ed. CNC, Brasília - DF / Brasil, 70041-902
- 전화/팩스 : +55 61 3426 0202/+ 55 61 3426 0263
- 홈페이지 : www.apex.org.br

나. 브라질 중앙은행

- 국가 통화 위원회의 규범시행, 금보유 및 외환보유, 모든 형태의 신용통제, 외자통제, 수표지불 등이 주요 업무이다.

○ 연락정보

- 위치 : SBS, Quadra 3, Bloco B, 70074-900, Brasília, DF, Brasil
- 전화/팩스 : 55-61)3414-1414/3414-2553
- 홈페이지 : www.bacen.gov.br

40. 투자관련 서비스기관**가. 법률 사무소****1) Demarest & Almeida Advogados**

- 담당변호사 : 조희문 변호사
- 주 소 : Av. Pedroso de Moraes, 1201, Centro Cultural Ohtake, Sao Paulo, SP, Brasil
- 전화/팩스 : 55-11)2245-1800 / 2245-1700
- 이메일 : hmoon@demarest.com.br
- 홈페이지 : www.demarest.com.br

2) Tozzini Freire Teixeira e Silva Advogados

- 담당변호사 : 김신재 변호사
- 주 소 : R. Libero Badaro, 293, 21 andar, 01009-907, Sao Paulo, SP, Brazil
- 전화/팩스 : 55-11)3291-1000 / 3291-1111
- 이메일 : skim@tozzini.com.br
- 홈페이지 : www.tozzini.com.br

3) Machado, Meyer, Sendacz e Opice Advogados

- 담당변호사 : 조인희 변호사
- 주 소 : Rua da Consolação, 247, 4 andar, 01301-903, São Paulo, SP
- 전화/팩스 : 55-11)3150-7000/3150-7071
- 이메일 : mmso@mmso.com.br
- 홈페이지 : www.mmso.com.br

4) Pinheiro Neto Advogados

- 담당변호사 : 김윤정 변호사
- 주소 : Rua Boa Vista 254, 9 andar, 01014-907, São Paulo, SP
- 전화/팩스 : 55-11)3247-8400/3247-8600
- 이메일 : yoonkim@pinheironeto.com.br
- 홈페이지 : www.pinheironeto.com.br

5) Veirano Advogados

- 주소 : Av. das Nações Unidas, 12995, 18 andar, 04578-000, São Paulo
- 전화/팩스 : 55-11)5505-4001/5505-3990
- 이메일 : spoffice@veirano.com.br
- 홈페이지 : www.veirano.com.br

규모로 본 라틴아메리카 10대 대형 로펌

순위	법인명	국가	파트너 수	구성원 변호사 수
1	Demarest & Almeida Advogados	브라질	79	365
2	Tozzini Freire Teixeira e Silva Advogados	브라질	61	346
3	Pinheiro Neto Advogados	브라질	61	325
4	Marval, O'Farrel & Mairal	아르헨티나	48	321
5	Machado, Meyer, Sendacz e Opice Advogados	브라질	32	293
6	Veirano & Advogados Associados	브라질	25	223
7	Baker e McKenzie	멕시코	53	152
8	Mattos Filho, Veiga Filho, Marrey Jr e Quiroga Advogados	브라질	25	146
9	Trench, Rossi e Watanabe Advogados	브라질	27	138
10	Barbosa Müssnich & Aragão	브라질	15	129

출처: Latin Lawyers

나. 회계 서비스 회사

세계 5대 대형 회계법인인 Deloitte Touche Tohmatsu, KPMG, Ernst & Young, Andersen, PricewaterhouseCoopers(PwC)는 모두 브라질에 진출해 있고 브라질 토종 회계법인인 Trevisan을 포함하여 브라질의 6대 회계 법인이라 한다. 한편, Wintec은 한국교포가 운영하고 있어 소규모의 법인이 이용하기 좋다.

1) Deloitte Touche Tohmatsu

- 담당자 : Mr. Willian Malfatti
- 이메일 : wmalfatti@deloitte.com.br
- 주소 : Rua José Guerra, 127 Cep:04719-030 São Paulo SP
- Tel/Fax: 55 11 5186-1000/ 5181-2911
- 홈페이지 : www.deloitte.com

2) KPMG – Peat Marwick

- Mr. Gilmar Farias
- 이메일 : gfarias@kpmg.com.br
- 주소 : Rua Dr. Renato P. de Barros, 33, Itaim Bibi Cep:04530-904 – São Paulo – SP,
- Tel: (55-11)3067-1512
- 홈페이지 : www.kpmg.com.br

3) Ernest & Young Auditores Independentes S/C Contábil e Empresarial S/C Ltda.

- 담당자 : Mr. Adilson Galdeano
- 이메일 : adilson.galdeano@br.ey.com
- 주소 : Av Pres Jucelino Kubitschek, 1830/5, 04543-900 – São Paulo - SP Bairro: Itaim Bibi
- Tel: 11- 3841-5200

4) Pricewaterhouse Auditores Independentes

- 담당자 : Mr. Wilson Marques
- 이메일 : primeiro.contato@br.pwc.com
- 주소 : Av. Francisco Matarazzo, 1400 Cep:05001-903 – São Paulo/SP Torre Torino – Água Branca
- Tel/Fax: 55-11) 3674-2000/ 3674-2077
- 홈페이지 : www.pwc.com

5) Allianz Consultoria Tributária e Empresarial

- 담당자 : Mr. José Carlos Lima Barbosa
- e-mail: juridico@allianz.com.br
- 주소 : Av. Brigadeiro Faria Lima, 2.355, 9^º andar, conj 913 São Paulo/SP – CEP 01452-000
- Tel/Fax: (11) 4183-3693
- 홈페이지 : www.consultordetributos.com.br

6) CSE Contábil - Accounting Services

- 담당자 : Mr. João Pedro Gomes Neto
- 이메일 : joaopedro@csecontabil.com.br
- 주소 : Rua dos Buritis, 128 Sala 301 Bloco b - Jabaquara/SP
- Tel/Fax: 55 11) 5017-0937
- 홈페이지 : www.csecontabil.com.br

7) NK Assessoria Contabil e Fiscal Ltda

- 담당자 : Mr. Wander Mitsushima
- 이메일 : legal@nkcontabilidade.com.br
- 주소 : Rua Frei Eusébio da Soledade, 60 Vila Mariana Cep: 04106-030 São Paulo - SP
- Tel/Fax: 55-11) 5080-3300/ 5080-3310
- 홈페이지 : www.nkcontabilidade.com.br

8) Wintec Servicos Contabeis SC Ltda.

- 주소 : Rua Professor Hilario Veiga de Carvalho No. 100, Ed. Lyon, Cj. 71, Vila Suzana, CEP-05641-070, Sao Paulo, SP, Brasil
- 전화/팩스 : 55-11) 3742-6411
- 이메일 : sanokkim21@hotmail.com

41. 노무관리

브라질에서 모든 피고용인은 노동수첩을 소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수첩에는 노동법에서 정하는 모든 고용관계를 기입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고용인은 채용한 모든 피고용인들에 관한 신상카드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록부는 반드시 노동부 산하 지역 노동부 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노동 기록부에는 모든 노동자들의 명단과 외국인 고용자, 미성년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고용조건

한번 체결한 고용조건은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나 다음 사항은 노사 간의 상호 합의 여하를 불구하고 준수되어야 한다.

1) 근무지 이동 및 직책 변경

피고용인은 종전의 위치를 되찾는 조건하에서만 책임직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 정상적인 경우, 고용인은 피고용인으로 하여금 거주지 이전을 필요로 하는 근무지 이동을 발령할 수 없다. 단 피고용인의 동의가 있거나, 회사가 장소이동을 할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나 피고용인이 책임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용인이 근무지 이동을 명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제공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근무지 이동이 일시적 성격일 경우에는 봉급의 25%에 해당하는 근무지 이동 수당 및 이전에 필요한 모든 부대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2) 복직

피고용인이 군복무 또는 시민의 의무이행을 위해 직장을 떠날 경우에는 피고용인은 의무이행이 종료될 경우 다시 복직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피고용인은 부재기간 동안 그가 도달할 수 있었을 직위에 상당 하는 혜택과 함께 전 직위에 복직할 수 있다. 피고용인은 외부 활동이 종료된 후 30일 내에 복직의사를 고용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고용인이 건강사유로 근무를 못하게 될 경우, 피고용인은 사회보장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며, 건강이 회복될 경우 모든 누적된 혜택과 함께 전 직위에 복직할 수 있다.

3) 미성년자

모든 미성년자는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조절해 주어야 하며 노동법상 제조업체 및 수송, 통신, 어업관련 업체의 미성년 견습공 비율은 총 숙련공의 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피고용인들 친척들에게 우선권 있다.

나. 고용절차

최초 채용되는 피고용자에 대해 3개월 이내의 일정기간(고용계약서에 명시)을 수습기간으로 간주하여 이 기간 동안 기본 급여보다 낮게 지급할 수도 있다.

고용계약에 근거, 지역 노동감독국에서 발행한 노동수첩을 모든 노동자는 항시 지참, 사용자는 노동대장을 비치하여, 매년 감독국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수첩 : 직종, 급여, 채용일, 계약기간, 근무조건 등 명시
- 대장 : 노동부 등록내용, 종업원 자격, 초과근무 및 근로시간, 휴가 등
 - 외국기업의 현지법인인 경우, 주재원 1인당 2명의 현지인을 채용하여야 한다. 영주권 소지자로 10년이 경과한 자는 노동법의 적용상 현지인으로 간주한다.

다. 외국기술자 초청

외국인 기술자는 2년 계약으로 초청 가능하며, 2년간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계약 갱신과 함께, 거주비자 신청은 법무부에 하여야 하며, 노동부는 단순히 의견만을 제시한다.

계약 갱신 후 현지거주 비자는 갱신 신청 접수 중 발급일로부터 유효하며, 직계 가족의 현지거주 초청이 가능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21세 이상의 자녀는 초청이 불가능하나, 부양가족이라는 영사관의 증명이 있을 경우에만 현지거주 초청이 가능하게 된다.

□ 외국회사의 주재원 교체

주재원이 교체된 경우, 신규 채용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교체 사실은 당해 현지회사가 브라질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교체증명은 종전 주재원의 출국확인이 날인된 여권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노동부 신고 즉시, 종전 주재원의 비자는 무효화된다.

라. 채용 시 유의사항

채용 면접 시 기혼 또는 미혼 여부와 퇴직 당시 회사의 추천서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노동수첩 등 고용 관련 서류와 건강진단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근로시간과 관련, 토요일 휴무를 위한 보충노동 시간 결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근무개시 48시간 이내에 관련 기관 및 조합에 등록시켜야 한다.

1) 임신부

여성 노동자가 임신한 경우, 임신 사실이 통보된 때부터 출산 후 5개월까지는 해고가 불가능하다.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반드시 노동조합 대표가 합석하여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조합 대표의 확인이 없는 경우, 임신부를 재고용 하거나, 퇴직 보상을 하여야 한다. 출산 후에는 근무개시와 동시에 건강 진단서를 징구하여 두어야 한다.

2) 미성년자(14~18세)

취업, 경고, 해고, 급여 또는 가불 등의 지불 등 여하한 경우에도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참석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화된다.

3) 건강진단서(EXAME MEDICO)

종업원의 건강에 커다란 문제가 예상되지 않는 소규모의 회사는 매 2년마다 건강진단서를 징구, 보관 하여야 한다. 그러나 18세 미만과 45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매년 징구, 보관하여야 하며, 취업 및 퇴직 시에도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징구,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30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결근한 노동자가 재 출근할 때에도 건강진단서를 징구, 보관하여야 한다.

4) 환자확인(ATESTADO MEDICO)

피고용인이 환자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처(개인 또는 공립병원 의사 여부), 병원 진료 및 입원 기간과 1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에는 국제공용표기로 된 이유와 병명이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병명이 기재된 환자확인서를 24시간 이내에 제출치 못할 때에는 결근일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족 또는 친지의 병환으로 인해 결근을 하였을 경우에도 급여 공제가 가능하다.

42. 조세제도

가. 조세 구조

브라질의 조세체계는 연방, 주, 시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세금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연방세: 수출수입세, 토지세, 소득세, 공산품세, 금융거래세, 사회보장세, 수표세
- 주 세: 자동차 소유세, 상속 및 증여세
- 시 세: 토지가옥세, 서비스세, 유류세 등

나. 조세 행정

연방세의 관리와 징수는 재무부의 관할 하에 있으며, 관세를 포함하여 브라질의 모든 국세의 행정은 세법과 관련된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책임이 있는 국세청을 통해 수행된다. 연방정부는 사회 및 국민경제 이익에 관련된 주세 혹은 시세를 면제할 수 있다.

재무부는 연방국세청을 통해 법인과 개인에게 납세인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는 CPF, 법인의 경우는 CNPJ 번호라고 하며, 이러한 납세번호가 있어야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브라질의 세금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브라질 헌법에서는 「보족법」이 행정기관(주, 연방 직할구, 시)의 사이에 있어 과세권(課稅權)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또한 각종 세금의 과세한도, 각각의 세법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정한다. 징수를 시행하는 단체는 연방, 주, 시이고, 이로 인해 세금은 연방세, 주세, 시세로 분류할 수 있다.

다. 세제의 대원칙과 법체계

브라질에 있어 세제의 대원칙은 아래와 같다. (연방, 주, 시 모두 적용)

- 조세법률의 원칙: 법률의 규정 없이 増稅 또는 세무강제의 금지
- 공평의 원칙: 동일한 조건하의 납세자에 대해, 격차를 두는 것을 금지
- 적용소급 금지: 과세나 증세를 제정한 법률의 발효이전에 발생한 稅源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의 금지
- 공포년도 적용금지: 새로운 세금이나 기존 세금의 세율인상이 발령되었을 때, 그 동일한 연도에 同 법의 적용을 시행하는 것의 금지

각종 세금의 과세한도, 각각의 세법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정하는 보족법이나, 조세에 관한 기본 규칙을 설정하는 조세법이 있다. 보족법이 정한 내용에 대한 각각의 변경은 법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정령」이나 「세칙」으로서 나와 있다.

또한 대통령만이 내리는 잠정 조치령에 따라, 발령된 내용은 발령 후 30일 이내에 국회가 승인해서 법률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령 후 인정된 법률의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회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동일 내용을 발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라. 세 제

연방세(聯邦稅)인 수입세(輸入稅, II- Imposto de Importação), 소득세(所得稅, IR- Imposto de Renda), 공업제품세(工業製品稅, IPI - Imposto de Produtos Industrializados), 금융거래세(IOF), 수표세(CPMF) 등의 외에, 주세(州稅)인 상품유통 서비스세(ICMS), 시세(市稅)인 서비스세(ISS) 등이 있다. 이 외에 각종 사회부담금(PIS-COFINS)이 존재한다.

1) 연방세

- 소득세(IR): 실질이익에 따라, 세율은 15%.
- 법인세(IRPJ): 실질이익에 따라 월액 2만 헤알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

- 공업제품세(IPI): 수입공업제품의 통관, 제조시설 및 제조시설로 간주할 수 있는 장소로부터 공업 제품의 반출에 대해 과세. IPI 세율표에 의한다.
- 수입세(II): 수입 시 과세
- 수출세(IE): 어떤 상품이 국내에서 공급부족이 발생했을 때 과세
- 농지소유세(ITR): 시가지 외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
- 금융거래세(IOF): 금융기관/보험회사에 의해서 행해진 신용거래, 외환거래 등에 관계된다. 같은 기업 그룹 또는 다른 기업간, 법인과 자연인 사이에서 체결된 대부금 계약에 대해서도 과세된다.

2) 주세

- 상품유통 서비스세(ICMS): 일종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것으로 각 주에 따라 징수되고, 상품의 유통 이나 통신, 운수서비스 등에도 적용된다. 상파울루 경우 일반적으로 18 ~ 25%가 적용된다.
- 자동차보유세(IPVA)

3) 시세

- 도시부동산 소유세(IPTU): 부동산의 시가에 대해 산정
- 부동산 양도세(ITBI): 생존자간의 부동산 양도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에 대해서 누진적으로 과세된다.
- 서비스세(ISS): 역무(노동력을 요하는 작업) 제공을 행하는 법인이나 개인의 受取 대가에 대해서 부과 된다.

라. 사회부담금

사회부담금(PIS-COFINS)은 국민의 건강이나 연금 및 약자구제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고용주, 노동자,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복권 등의 부담자에 의해서 재원이 확보된다. 세액이 법인의 매출액이나 이익에 대해서 부과되고, 징수는 연방 국세청이 시행하기 때문에, 세금에 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금, 부담금 외에 공공요금도 헌법에 조세의 일종으로서 규정되어 있다.

- 사회보험 융자부담(COFINS): 모든 서비스나 상품의 총 매출액을 대상으로 3%이며 수출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 사회통합계획(PIS): 매출액과 제공된 서비스에서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 0.65%. 수출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 공무원 후생연금(PASEP)
- 잠정 금융거래 부담(CPMF): 현금 및 수표의 발행, 자금운용 등 당좌 예금으로부터의 인출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과세된다.
- 사회기부금(CSLL): 국내에 주소를 소유하는 모든 법인과 법인지위의 대우를 받는 자에게 부담의무. 부담금 표준액은, 법인세 공제하기 전 이익에 몇 가지 加算항목, 減算항목에 대해서 조정을 행한 금액으로 한다.

마. 기타 주요 부담금

1) 사회복지원(INSS)에 대한 부담금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 실업보험, 노령연금의 역할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다. INSS는 법인, 개인이 징수 대상이고, 개인의 경우, 급여에 대응해서 비율이 결정되고 있고, 고용주(법인)의 경우, 일반기업과 금융·보험회사에서 부담율이 다르다.

2) 근속연수 보상기금(FGTS)

각 종업원의 급여지급액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과세되고(8.5%), 그 금액은 종업원 명의 FGTS 전용구좌로 예금된다. 종업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해당구좌의 FGTS잔고에 40%가산한 금액을 고용 주는 지급해야 한다.

43. 외환관리

국내통화발행 및 유통 통화금액은 중앙은행만이 관리할 수 있다. 외환시장은 1999년 2월에 무역, 금융외환시장으로 결합되어 있다.

가. 통화관리

브라질 중앙은행이, 지표금리와 인플레이션 목표에 기초해서, 국내통화발행 및 유통통화금액을 관리한다. 통화의 국외로의 유출입에 대한 컨트롤은, 국내통화의 유통규정(모든 채무는 국내통화만으로 정산)에 따라, 중앙은행만이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브라질 국내에서 외국 통화의 유통은 허가되고 있지 않다.

브라질의 외환시장은 무역·금융외환시장(무역거래, 브라질 국내에서 외화기준 투자, 브라질 거주자에 대한 외화기준 대부 등) 및 관광외환시장(당초 관광산업용으로 설치, 후에 다른 거래도 커버하기 위해 쓰여짐)의 2종류가 있었지만, 1999년 2월에 무역·금융외환시장으로 통합되었다.

나. 자본도입을 위한 기본제도

브라질에 대한 외국자본도입은, 기본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투자 형태로 시행할 수 있다. 직접투자로는, 브라질 국내 기업에 대해서 투자되는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유한회사, 주식회사, 기타). 간접투자자는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이고, 국내에 회사를 설립할 필요는 없다. 브라질에 대한 간접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외국투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매커니즘이 존재한다. 아래는 주요한 사례이다.

1) AnnexIV

이 매커니즘은, 외국에 설립되어 있는 기관투자자로, 증권거래위원회(CVM)에 등록되어 있고, 브라질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시행하는 자가 대상. 본 매커니즘에서 발생한 자본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고 있다. 단, 외국자본이 Tax haven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1987년 3월 20일 중앙은행 決議 1289호)

2) CC5(Carta Circular N-5 중앙은행 通達 5번에 의한 비거주자용 회계)을 개입시켜 투자

비거주자용 고정수익증권 및 변동수익증권에 대한 금융투자. 이와 관련해서, 상기 2종류의 투자(Annex IV 및 CC5)는 중앙은행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다. 자본의 등록

외국자본은 브라질 중앙은행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록함으로써 등록증명이 발행된다. 이 등록증명은, 이익의 국외송금, 자금 상환, 재투자자의 등록, 무역·금융의 환산을 설정을 위해 필요하다. 투자는 항상 실제 투자가 행해진 외국통화기준으로 등록된다.

라. 재투자

외자법에서 재투자라는 것은, 브라질에 설립된 기업이 취득해서, 외국에 거주 또는 주거를 가지는 사람에게 귀속하는 이익을, 동일 기업 또는 국내의 다른 경제부문에 재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의 투자자가 이익을 송금하는 대신 재투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액을 최초의 투자와 함께 외국자본으로서 등록할 수 있다.

마. 자본의 본국상환

중앙은행에 등록된 외국자본은, 언제라도 사전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본국으로 회수할 수 있다. 등록 필한 금액을 초과하는 송금은, 외국 투자자의 자본이익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로서 15%가 징수된다.

바. 조세협약

브라질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나라들과 조세협약을 맺고 있다.

일반적으로 브라질은 브라질 법이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세협약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 및 시민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소득세에 관한 공제를 허용한다

□ 이중과세 방지 조세 협약국

한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중국,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덴마크, 에쿠아도르,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인도,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44. 이주정책 가이드

가. 거주지

브라질은 치안이 불안하여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대체로 한정되어 있다. 임대기간은 쌍방간 계약에 의거하여 결정하나 30개월이 보통 법정 계약기간이다. 계약해지 시에는 계약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로 1~3개월 전 통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간 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게 되어있다.

부동산업체들이 잘 발달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사무소에 가서 가격, 교육여건, 치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주택을 구하면 된다.

1) 이지에노폴리스(Higienópolis)



상파울루 중심가에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지역으로 대부분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며, 과거에는 대규모 단독주택도 많았으나 지금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세기 말, 앵글로 색슨계 이민자인 마르띠뉴 부샤르(Martinho Buchard)와 빅토르 노트만(Victor Nothman) 등이 상파울루 시내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부자(주로 상파울루 근교에서 커피 농장을 경영하는 업주들)들을 위해 건설한 대형 주택 단지로, 전망이 수려하고 녹지대가 많아 공기가 깨끗한 것이 장점이다.

20세기 초에 들어서 아름다운 정원과 분수 등을 갖춘 본격적인 주택 단지가 들어 서기 시작했으며, 이어서 병원, 학교, 은행 및 상가 시설도 점차 생겨났으며, 현재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 페르난도 엔리케 카르도주 전 대통령, TV 토크쇼 진행자인 조 소아레스, TV 진행자이자 모델인 아드리아니 갈리스테우 등이 거주하고 있다.

브라질은 물론 중남미 최대의 경제중심지인 상파울루 시에서 전통적인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한국의 성북동처럼 나름대로 부의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부유층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치안 상태가 양호하고 은행, 슈퍼마켓, 쇼핑센터, 학교 등이 많이 들어서 있으며 지역 내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 공간 등을 소개하는 신문과 잡지가 발행되고 있다.

중남미 국가에서 생활여건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치안 상태, 편의시설 현황 등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거주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꼽힌다. 과거 주거지역 형성 때부터 유대인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도 유대인 회당이 다수 존재하는 등 독특한 유대인 문화를 많이 볼 수 있다.

2) 모에마 (Moema)



상파울루 중심가에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흥주택지역으로 대부분 아파트이며 단독주택은 찾아보기 힘들다.

브라질에서는 거의 최초로 주상복합아파트가 선보인 지역이며 수영장, 헬스클럽, 미용실, 약국 등 단지 내에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지역이 탄생한 것은 20세기 초이나,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된 시기는 쇼핑센터 이비라뿌에라 (Ibirapuera)가 건설된 1970년대 중반이다. 쇼핑센터 주변을 중심으로 레스토랑, 술집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상파울루 시내 최대 규모인 이비라뿌에라 공원에 근접하여 공기가 깨끗하다.

15년 전쯤부터 인근 베히니(Berrini) 지역이 새로운 비즈니스 타운으로 개발되면서 이곳과 가까운 모에마 지역이 주택지역으로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주로 외국의 상사주재원이나 장, 단기 출장자들이 많이 찾으면서 일반 아파트는 물론 단기임대 아파트도 많이 등장하였다.

강남과 같은 신흥부촌으로 부유층들이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편의시설과 레저시설이 많아 젊은 층의 선호가 높은 편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 레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많아 단지 내에서 수영 또는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많으며 이지엔ópolis 보다 상대적으로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도보 보다는 주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단지 교통이 복잡하여 출퇴근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3) 모룸비(Morumbi)



상파울루 지역 주재원들의 경우 현지의 치안이 불안하므로 치안상태가 비교적 좋은 모룸비 (MORUMBI)에 주로 거주한다. 나무가 많고 거주환경이 좋아 중상류층이 많이 사는 동네이나 상파울루 중심지와 1시간 이상 걸릴 정도로 멀다는 것이 단점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심하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엄격하게 출입을 관리하여 입주자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콘도미니엄 안에서는 새벽에도 산책이 가능하다. 단지 내에 수영장, 테니스장 등 운동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식당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가 가깝고 주지사궁과 상파울루 축구경기장이 근처에 있다.

4) 봉헤찌로(Bom Retiro)

봉헤찌로(BOM RETIRO)라는 말은 “좋은 안식처”란 뜻으로 이 지역은 1940년도부터 유대인들의 정착지였다. 한국 교포들이 이곳에 상가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1978년에 3개의 점포가 들어서면서부터이며, 지금까지 약 1,000개의 한인점포가 밀집, 이제는 명실공히 한인 상가타운을 이루고 있다.

이곳은 브라스(Bras)지역과 함께 소위 남미의 양대 의류공급지역으로 이웃국가인 파라과이, 볼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도 이곳에서 많은 의류를 구입해 가는 국제 시장이다.

한국식당이나 한국식품점, 안경점, 약국, 미용실, 골프연습장 등 한국관련 산업이 가장 발달해 있다. 최근 들어 봉헤찌로는 한인점포들로 인하여 상파울루에서 상업용 임대료 및 땅값 등이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였다. 단 한국기업들이 많이 주재해 있는 빠울리스타 지역이나 주재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모룸비 지역과 거리가 멀고 치안이 불안한 것이 단점이다.

5) 아끌리마싸웅(Aclimação)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로 최근 들어 많은 고급 아파트 건설 및 개발 등으로 인하여 고급 주택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동네이다.

아끌리마싸웅은 상파울루 시의 주요 동네들인 Liberdade, Cambuci, Vila Mariana와 Paraíso와도 거리상 붙어 있으며 동 지역의 특징은 1892년 만들어진 아끌리마싸웅 공원이다.

총 112평방미터의 이 공원은 각종 식물과 호수 등으로 유명하다.

6) 알파빌리(Alphaville)

상파울루시에서 약 45분 가량 고속도로로 가다보면 나오는 동네로 특징은 단독주택 콘도미니엄이다. 유럽풍 등 최신식 디자인의 주택들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보안이 가장 철저히 보안되는 곳이다. 상파울루 시의 주택들에 비해 콘도미니엄 안에 주택들은 특별한 담이나 대문 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최고급 주택가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많은 회사/기업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이제는 주택들 외에도 여러 상업용 빌딩 또는 상업 콘도미니엄 등도 많이 생겼으나 상파울루 중심지에서 너무 멀다는 것이 단점이다.

나. 교육



1) 현지공립학교

브라질 현지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 수준이 사립학교에 비해 많이 낮은 편이며 교육시설 역시 낙후되어 있다. 학비 및 급식, 책, 교복 등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관계로 공립학교를 다닐 경우, 학비나 기타 비용은 들지 않는다.

정부의 지원 및 관리가 부족한 관계로 교사진이 부족하며 학생 수에 비해 학교 수가 적어 새로 입학할 해야 하는 학생들이나 전학이 필요할 경우, 자리가 나올 때까지 다소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

2) 현지사립학교

현지에는 많은 크고 작은 사립학교들이 있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만 있는 학교도 있고 유치원 과정부터 대학 과정까지 다 갖춰진 학교도 있다. 학비의 경우, 일 년에 총 12번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매달 등록금 1회 + 학비 11회로 나눠 지불하는 방식이다. 학비는 약 R\$800 ~ R\$1,500 가량이다.

□ 상파울루 시내 유명 사립학교

- Colegio Bandeirantes (www.colband.com.br)
- Colegio Etapa (www.colegioetapa.com.br)
- Colegio Objetivo (www.objetivo.br)
- Colegio Rio Branco (www.crb.g12.br)
- Colegio Mackenzie (www.emack.com.br)
- Colegio Dante Alighieri (www.dantealighieri.com.br)
- Colegio Sao Luis (www.saoluis.org)
- Colegio Anglo Latino (www.anglolatino.com.br)
- Escola Barifaldi (www.barifaldi.com.br)

* 모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운영

3) 외국인 학교

□ Graded School – Associacao Escola Graduada de Sao Paulo

- 주소: Av. Prof. Giovanni Gronchi, 4710, Morumbi, Zip 05724-002,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747-4896
- 팩스: (55-11) 3742-9358
- 담당자: Mrs. Lisa Peixoto (Admissions Office)
- 이메일: lpeixoto@graded.br
- 웹사이트: <http://www.graded.br>

- 입학비
 - R\$25,200.00 (약 USD 11,333.00) - 첫 번째 학생
 - R\$19,125.00 (약 USD 8,500.00) - 두 번째 학생

- 학비: 월 R\$3,710.00 (약 USD 1,648.00)

- 참고: 등록금의 경우, 3개월 단위로 받기 때문에 만약 3월에 등록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1, 2월 학비도 지불해야 한다. 미국인 학교로 상파울루 외국학교 중 가장 좋은 학교로 꼽히며 입학 시 시험(test)이 엄격하고 빈자리가 많지 않다.

□ Saint Paul's School – Escola Britanica de Sao Paulo

- 주소: R. Juquia, 166, Jd. Paulistano, Zip 01440-903,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085-3399
- 팩스: (55-11) 3085-9708
- 담당자: Mrs. Sandra
- 이메일: spshead@stpauls.br
- 웹사이트: <http://www.stpauls.br>
- 입학금: R\$10,500.00 (약 USD 4,670.00)
- 학비: 월 R\$2,500.00 (약 USD 1,111.00)
- 참고: 영국계 학교로 엄격한 편이며 입학을 위해서는 Admission Test를 받아야 한다.



□ PACA – Pan American Christian Academy

- 주소: R. Cassio de Campos Nogueira, 393, Zip 04829-310,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5928-9655
- 팩스: (55-11) 5928-9591
- 담당자: Mrs. Linda
- 이메일: linda@paca.com.br
- 웹사이트: <http://www.paca.com.br>
- 등록금: R\$3,500.00 (약 USD 1,555.00)
- 학비: 월 R\$1,450.00 (약 USD 645.00)
- 참고: Pan American Christian Academy는 크리스찬 학교로 Non profit학교이다. 1960년 상파울루에 설립되었다.

□ Chapel School – Escola Maria Imaculada

- 주소: R. Virgilio Jose de Pontes, 200, Alto da Boa Vista,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5687-7455
- 팩스: (55-11) 5521-7763
- 담당자: Mrs. Vera Prado
- 이메일: admissions@chapel.g21.br
- 웹사이트: <http://www.chapel.g21.br>
- 등록금: R\$4,470.00 (약 USD 1,986.00)
- 학비: 월 R\$2,909.00 (약 USD 1,293.00)
- 참고: 가톨릭 재단 학교로 1947년 상파울루에 설립되었으며 약 700명 가량의 학생이 있다.



4) 한국학교

한국학교로는 Colegio Polillogos가 있는데 학생은 약 400명 가량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현지에 거주하는 교포 학생들이며 일부는 브라질 현지인들이다. 오전에는 브라질 학교 과정, 오후에는 한국 과정을 가르치며 학비는 다른 학교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 종일반 (브라질/한국 과정): R\$490.00 ~ 650.00
- 오전반 (브라질 과정): R\$300.00 ~ 450.00
- 오후반 (한국 과정): R\$250.00 ~ 300.00
- 점심비: R\$100.00

□ Colegio Polilogos (브라질 한국학교)

- 주소: R. Solon, 1018, Bom Retiro,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 3224-0044
- 팩스: (55-11) 3337-0906
- 이메일: colegiopolilogos@terra.com.br
- 웹사이트: N/A



다. 전화 및 휴대폰 신청

1) 일반전화

- 절차 및 기본금액 (Telefonica, 상파울루 전화국)
 - 가입비: R\$88.00
 - 기본요금 (100 pulse): R\$38.13
 - 내부설치비: R\$50.00

2) 휴대폰

휴대폰 가입의 경우, 본인의 ID, CPF(납세자 번호) 및 주소 증명서 사본(전화, 인터넷, 전기세 등 전달 요금지불서 가능)을 전화상에 제출시 즉시 개통할 수 있다.

상파울루에는 VIVO(CDMA), TIM(GSM), CLARO (TDMA)의 3대 주요 휴대폰 회사가 있다. 지불 방법은 2가지로 선불과 후불 방식이 있으며 선불제도의 경우, 입금 가능 금액이 R\$30.00/50.00/100.00 단위로 있다. 이 외에 별도의 가입비는 없으므로 전화를 거는 것 보다 받는 것을 더 많이 하는 이용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단, 단말기 금액 및 통화료가 일본 통화료가 R\$1.40로 후불제도보다 조금 더 비싼 편이다.

후불방식의 경우, 여러 패키지가 있는 편이며 본인의 사용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다. Vivo 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패키지들이 있다. 이 외에도 Light 패키지(월 60분, R\$35.00) 등 매우 다양한 패키지들이 특별 세일 기간 등에 있음.

통화 시간 (분)	패키지 가격	초과액 (분당)
150	R\$119.90	R\$0.47
300	R\$190.40	R\$0.34
500	R\$258.40	R\$0.30
1000	R\$408.40	R\$0.28

라. 정부 등록



□ 신분증 신청

공무원들의 경우 관용여권으로 들어와서 현지 외무부에 공용 ID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주재원들의 경우에는 현지 도착 후 영주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ID가 발급되기까지는 주로 1개월 내지 2개월이 소요되며 발급 이후 한국에서 가족들을 데려오는 것이 보통이다. 영주비자의 경우에는 1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마. 자동차



1) 자동차 메이커

주요 자동차 메이커로는 Alfa Romeo, Audi, BMW, Chevrolet (General Motors), Chrysler, Citroen, Crosslander, Dodge, Ferrari, Fiat, Ford, Honda, Hyundai, Jaguar, Jeep, Kia, Land Rover, Lexus, Maserati, Mercedes Benz, Mitsubishi, Nissan, Peugeot, Porsche, Renault, Ssangyong, Subaru, Toyota, Troller, Volkswagen, Volvo 등 웬만한 차량 메이커는 일부를 수입하고 현지 생산을 하고 있다.

2) 가격대

브라질에는 오토매틱 차량 보다는 수동기어 차량이 더 많은 편이며 국산의 경우 약 R\$2만 부터 R\$20만 가량이며 수입차의 경우, R\$6만에서 약 R\$20만 까지 매우 다양한 편이다.

바. 운전면허 신청



국제운전면허증이 효력이 별로 없으며, 국제운전면허증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교통국(DETRAN)에 정식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주재원으로서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대신 한국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 원본을 가지고 현지의 공증번역사(TRANSLADOR JURAMENTADO)에 포어 원문으로 번역 및 공증을 의뢰하고 이를 교통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통국에 운전면허증 신청 시 발급일까지는 주로 1주일 정도 소요된다. 대행사(Despachante)에 의뢰할 경우 R\$200 정도가 소요되며 직접 교통국에 찾아가는 불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 은행구좌

브라질은 수표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고 치안불안으로 인해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 수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기앞수표 개념과 다른 개인 당좌수표가 대부분이며 수표 사용시에는 현장에서 수표에 서명 날인하여 발행하게 된다.

따라서 현지화 당좌계좌 개설은 필수적이며, ID 등이 발급된 후 정식으로 계좌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지화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주로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달러화 계좌는 Citi bank, Bank Boston 등 외국계 은행에서만 개설이 가능하며 송금 및 달러 인출 시 수수료가 높다.

아. 병 원

브라질은 1980년대에 정부차원의 보건시설 확충과 민간 의료부문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민간보건부문에서 괄목할 향상을 이루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 특히 민간병원들이 상파울루 및 리우데자네이루 등 브라질 남부 및 남동부지역의 도시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농촌지역을 비롯하여 저개발지역인 북부지방은 의사와 간호원의 수가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 민간병원 : 치료 및 입원비 등이 고가임
- 공립병원 : 주로 서민, 극빈층이 이용, 일반진료는 무료로 가까움



□ 상파울루 시내 병원리스트

- Hospital Israelita Albert Einstein (종합) (www.einstein.br)
- Hospital Sao Luiz (종합) (www.saoluiz.com.br)
- Hospital Paulistano (종합) (www.hospitalpaulistano.com.br)
- Hospital Sao Camilo (종합) (www.saocamilo.com)
- Hospital da Beneficencia Portuguesa (종합) (www.beneficencia.org.br)
- Hospital das Clinicas (상파울루 주립대학병원 - 종합) (www.hcnet.usp.br)
- Hospital do Cancer (암 전문 병원) (www.hcanc.org.br)
- Hospital Alvorada (www.hospitalalvorada.com.br)
- CEMA (이비인후과 전문 병원) (www.cemahospital.com.br)
- Hospital Santa Catarina (종합/출산) (www.hsc.org.br)
- Hospital e Maternidade Santa Joana (출산/산부인과) (www.hmsj.com.br)
- Hospital e Maternidade Pro Matre (출산/산부인과) (www.promatre.com.br)
- Hospital Bandeirantes (종합) (www.hospitalbandeirantes.com.br)
- Hospital Sirio Libanes (종합) (www.hsl.org.br)
- Hospital do Coracao (심장 전문 병원) (www.hcor.com.br)
- Hospital 9 de Julho (종합) (www.h9j.com.br)
- Hospital Alemao Oswaldo Cruz (종합) (www.haoc.com.br),

자. 약 국

시내 도처에 소재하고 있어 약품구입 용이하며 일반 약품은 가격이 저렴하다. 야간, 휴일에는 당번제로 운영되며 Onofre처럼 24시간 운영하는 약국도 많이 있다. 일반 소화제, 치료제 등 간단한 약품은 구입 가능하나 항생제, 마약성 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차. 인터넷

Speedy, Virtua, Giro (Wi-Fi), A Jato (Wi-Fi/Cable) 등이 있다.

1) 신청절차 및 기본요금 등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위의 서비스 회사를 선택 후, Uol, terra, globo.com 등의 인터넷 서버 업체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비는 R\$19.90~35.00이다. 모뎀 사용시 인터넷 회사에 따라 다르며 모뎀이 필수일 경우도 있으며 케이블 티브이를 이용한 인터넷일 경우 별도로 필요 없다. 임대를 할 경우, 매월 임대료를 사용비와 함께 지불하며 월 약 R\$30.00가량이다.

2) 월 사용비

- Speedy - R\$35.00 ~ 180.00 (200 Kbps - 1M), 모뎀 임대비: R\$17.80
- Giro - 가입비 R\$120.00, 월 사용료 - R\$70.00 ~ R\$100.00 + 모뎀 임대료 월 R\$30.00
- Virtua - NET 케이블 티비 가입자만 가능, 모뎀 임대비 없음.
 - 월 R\$30.00 ~ 209.90 (150 ~ 1200 Kbps)

- A Jato - 200kbps - 모뎀 및 가입비 없음
- Wi-Fi: TVA 케이블 TV 가입자 - R\$48.00/ TVA 케이블 TV 비 가입자 - 월 R\$54.00
- Cable: TVA 케이블 TV 가입자 - R\$68.80/ TVA 케이블 TV 비 가입자 - R\$63.80

카. 보 험

1) 자동차보험

주요 자동차 보험으로는 Porto Seguro, Bradesco, Itau, Unibanco, Real, Maritima, AGF, Generali, Vera Cruz, Tokio, Sul America 등이 있다. 과거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차량 가격의 10% 정도를 생각하면 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차량의 메이커, 모델, 기능, 운전자의 거주 지역, 성격, 나이, 결혼여부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추세이다. 최소 차량 가격의 3~4%에서 최대 차량 가격의 30%까지 있다.

또 보험 가입자가 오랫동안 한 보험회사와 거래를 했을 시, 차량을 바꾸더라도 이전이 가능하고 가입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가 없었을 시, 보너스가 제공되어 저렴해 질 수 있다.

2) 의료보험

□ 주요 의료보험 회사

Sul America, Amil, Bradesco, Sul America Saude, Medial, Amesp, Avimed, Blue Life Saude, Dix Amico, Green Line, Lumina Saude, Omint Saude, Samcil, Serma Vip System, Unimed Paulistana, Amil Dental (치과), Oral Pro (치과)

Amil사의 가격표 (1인 가격 기준 예)

연령	Amil 20	Amil 30	Amil 40	Amil 40 Plus	Amil 50 2.0.2	Amil 60 3.3.4	Amil 60 5.5.6
0~18	120.75	150.15	194.25	240.45	294.00	430.50	588.00
19~23	156.98	195.20	252.53	312.59	382.20	559.65	764.40
24~28	172.68	214.72	277.78	343.85	420.20	615.62	840.84
29~33	188.22	234.04	302.78	374.80	458.26	671.03	916.52
34~38	207.04	257.44	333.06	412.28	504.09	738.13	1,008.17
39~43	227.74	283.18	366.37	453.51	554.50	811.94	1,108.99
44~48	295.83	367.85	475.91	589.11	720.30	1,054.71	1,440.58
49~53	340.20	423.03	547.30	677.48	828.35	1,212.92	1,656.67
54~58	425.25	528.79	684.13	846.85	1,035.44	1,516.15	2,070.84
59세 이상	724.50	900.90	1,165.50	1,442.70	1,764.00	2,583.00	3,528.00

(*) Amil 20, 30...은 보험 종류임 (사용 가능한 병원 및 서비스에 따라 가격 좌우)

브라질에서는 의료 보험이 있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병원 및 진료소 등을 이용할 시, 한국과는 달리 진료비를 전혀 지불하지 않는다. 수술의 경우, 마취비 및 의료

수고비 외에 모든 비용은 보험 부담이며 입원의 경우, 본인 보험의 레벨에 따라 1인실이나 2인실, 3인용 등의 방을 사용할 수 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병원 또는 진료소를 사용할 시, 보험회사로부터 일부는 환부 받을 수 있다.

3)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국내 주요 은행들이나 의료보험회사들이 관리하며 보험금은 약 R\$2,500.00부터 R\$20만(Bradesco Seguro de Vida)이다.

4) 교육보험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보험으로 개인 교육보험(Seguro Educacional Individual)으로 불리는 이 보험은 학생의 보호자의 사고 및 사망 시 학비를 제공해 주는 보험제도이다. 몇 사립 학교에서는 학생의 등록 시, 동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학교들도 있다.

타. 현지진출 한국기업 리스트 (참고자료)

□ 대우 인터내셔널 (Daewoo Do Brasil Imp. E Exp. Ltda.)

- Add: Av. Paulista 777, 13 Andar Cj. 131/132, Zip 01311-100,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3285-5699
- Fax: (55-11)3266-4125
- E-Mail: hykim@daewootrade.com.br
- Home Page: www.daewoo.com
- Press: 김흥렬/H.Y Kim

○ 주요현황

- 업종: 무역업
- 취급분야: 철강, 금속, 화학, 자동차부품, 산기플랜트, 전자정보, 섬유, 물자 등
- 진출형태: 지사
- 진출연도: 1980년
- 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1 : 11
- 설립자본금: US\$ 200천
- 연간매출액: US\$ 200백만
- 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 단독

○ 국내모기업

- 모기업: (주)대우 인터내셔널
- Add: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 Tel: (02) : 759-2114
- Fax: (02) : 753-9489
- Pres: 이태용

□ 대우전자(Daewoo Electronics Co., Ltd.)

- Add: Av. Paulista, 491-2 andar, CJ 24, Zip 01311-100,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 3253-5111
- Fax: (55-11) : 3266-2136
- E-Mail: htsong@dwe.co.kr
- Home Page: NA
- Pres: 송희태

- 주요현황
 - 업종: 무역
 - 취급분야: 전자 및 정보통신제품
 - 진출형태: 지사
 - 진출연도: 1995
 - 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1 : 2
 - 설립자본금: US\$ 800천
 - 연간매출액: N.A.
 - 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단독

- 국내 모기업
 - 모기업: (주)대우전자
 - Add: 서울 마포구 아현동 686
 - Tel: (02) : 360-7114
 - Fax: (02) : 364-5588
 - Pres: 김충훈

□ 메디슨 : Medison Do Brasil

- Add: R. Apiacas, 910, Perdizes, Zip 05017-020,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3875-6101
- Fax: (55-11) 3875-6105
- E-Mail: viannes@medison.com.br
- Home Page: www.medison.com.br/
- Pres: 김기남/K.N Kim

- 주요현황
 - 업종: 현지판매
 - 취급분야: 의료기기
 - 진출형태: 현지법인
 - 진출연도: 1997년
 - 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1 : 50
 - 설립자본금: US\$ 2백5십만
 - 연간매출액: US\$ 13백만
 - 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단독

- 국내모기업
 - 모기업: (주)메디슨
 - Add: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7-4, 메디슨벤처타워
 - Tel: (02)2194-1000/2194-1400
 - Fax: (02)2194-1168
 - Pres: 최균제/이승우

□ 범양상선 : Pan Ocean Shipping Co., Ltd., Rio de Janeiro Office

- Add: R.Acre,30,50 andar, Zip 20081000, Rio de Janeiro, RJ, Brazil
- Tel: (55-21) 2213-8788
- Fax: (55-21) 2518-2287
- E-Mail: panrio@lachmann.com.br
- Home Page: N.A.
- Pres: 임은택/E.T Lim

- 주요현황
 - 업종: 서비스업
 - 취급분야: 철광석, 곡물 등의 수송
 - 진출형태: 사무소
 - 진출연도: 1994년
 - 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1 : 0
 - 설립자본금: N.A.
 - 연간매출액: US\$ 70천
 - 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단독

- 국내모기업
 - 모기업: 범양상선 주식회사
 - Add: 서울 중구 남창동 51-1
 - Tel: (02)3165-114
 - Fax: (02)754-8492
 - Pres: 장진원

□ 브라질 외환은행 : Banco KEB Do Brasil S/A

- Add: Av. Chucri Zaidan 940 Torre II,18 and. Zip 04523-110,Sao Paulo, SP, Brasil
- Tel: (55-11)5188-1122
- Fax: (55-11)5188-1120
- E-Mail: sgw@bancokeb.com.br
- Home Page: www.keb.co.kr
- Pres: 황순갑/S.G Whang

- 주요현황
 - 업종: 금융업
 - 취급분야: 은행업
 - 진출형태: 현지법인

- 진출연도: 1998년
- 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2 : 7
- 설립자본금: US\$ 10,000천
- 연간매출액: N.A.
- 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단독

○ 국내모기업

- 모기업: 한국외환은행
- Add: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1
- Tel: (02)729-8000
- Fax: (02)775-8325
- Pres: Robert E. Fallon

□ 삼성물산 : Samsung Do Brasil S/C Ltd.

- Add: R. Prof. Manoelito De Ornellas 303, Zandar, Chacara Santo Antonio, Zip 04719-040,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5641-3979
- Fax: (55-11)5641-8455
- E-Mail: santiago@samsung.com
- Home Page: www.samsung.com
- Pres: 김선영/Stanley Kim

○ 주요현황

- 업종: 무역업
- 취급분야: 프로젝트, 섬유, 화학, 정보통신
- 진출형태: 현지법인
- 진출연도: 1990년
- 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1 : 8
- 설립자본금: US\$ 249천
- 연간매출액: US\$ 100백만
- 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단독

○ 국내모기업

- 모기업: 삼성물산(주)
- Add: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삼성플라자빌딩
- Tel: (02)2145-2114
- Fax: (02)2145-3114
- Pres: 정우택

□ 삼성SDI : Samsung SDI Brasil Ltda

- Add: R.Prof.Manoelito de Ornellas 303,Terreio A,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5644-9163
- Fax: (55-11) 5644-9165
- E-Mail: keunbae.lee@samsung.com

- Home Page: www.samsungsdi.co.kr
- Pres: 이근배

- 주요현황
 - 업종: 제조업
 - 취급분야: 브라운관
 - 진출형태: 현지법인
 - 진출연도: 1997년
 - 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18 : 1,300
 - 설립자본금: US\$ 200백만
 - 연간매출액: 120백만
 - 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단독

- 국내모기업
 - 모기업: 삼성 SDI
 - Add: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150번지 삼성생명빌딩 15~18층
 - Tel: (02)727-3100
 - Fax: (02)727-3449
 - Pres: 김순택

□ 삼성전자 : Samsung Eletronica Da Amazonia Ltda.

- Add: R. Prof.Manoelito De Ornellas 303, Zip 04719-040,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5644-6400
- Fax: (55-11) 5641-0726
- E-Mail: parkjwon@samsung.com
- Home Page: www.samsung.com.br
- Pres: 박종원/J.W Park

- 주요 현황
 - 업종: 제조업
 - 취급분야: 전기, 전자제품(가정용 전자, 정보통신 등)
 - 진출형태: 현지법인
 - 진출연도: 1986년
 - 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14 : 500
 - 설립자본금: US\$ 113백만
 - 연간매출액: US\$ 150백만
 - 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 단독

- 국내모기업
 - 모기업: 삼성전자(주)
 - Add: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
 - Tel: (02) 727-7114
 - Fax: (02) 727-7985
 - Pres: 윤종용

□ 한국 수출입 은행 :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Sao Paulo Rep. Office

- Add: Av. Paulista, 1439, CJ 142, C. Cesar, Zip 01311-200,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3283-3021
- Fax: (55-11) 3287-0548
- E-Mail: kyungha12@catholic.or.kr
- Home Page: www.koreaexim.go.kr/
- Pres: 최경하

○ 주요 현황

- 업종: 정부투자기관
- 취급분야: 은행
- 진출형태: 사무소
- 진출연도: 1983년
- 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2 : 1
- 설립자본금: N.A.
- 연간매출액: N.A.
- 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단독

○ 국내모기업

- 모기업: 한국 수출입은행
- Add: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 Tel: (02) : 3779-6114
- Fax: (02) : 784-1030
- Pres: 이영희

□ SK해운 : SK Shipping

- Add: Av. Rio Branco 25, 16 Andar, Centro, Zip 20090-003, Rio de Janeiro, RJ, Brazil
- Tel: (55-21) 2516-1142
- Fax: (55-21) 2516-1876
- E-Mail: wschu@unisys.com.br
- Home Page: www.skshipping.com
- Pres: 주원석/W.S. Chu

○ 주요 현황

- 업종: 해상운송업
- 취급분야: 브라질중심의 벌크 화물(철강, 곡물, 석탄 등)
- 진출형태: 사무소(협력업체취업형태)
- 진출연도: 1994년
- 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1 : 0
- 설립자본금: N.A.
- 연간매출액: N.A.
- 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단독

- 국내모기업
 - 모기업: SK해운
 - Add: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267, SK남산빌딩 19층
 - Tel: (02) 3788-8400
 - Fax: (02) 3788-8300
 - Pres: 이승권

□ LG상사 : LG Do Brasil Ltd.

- Add: Av. Chucri Zaidan, 940, 18 andar, Zip 04523-110,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2104-0075
- Fax: (55-11) 2104-0080
- E-Mail: cbjong@lgi.co.kr
- Home Page: www.lgicorp.com
- Pres: 장봉정

- 주요 현황
 - 업종: 무역업
 - 취급분야: 화학,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기계, 물자(자원), 광물
 - 진출형태: 현지법인
 - 진출연도: 1987년
 - 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1 : 8
 - 설립자본금: US\$ 250천
 - 연간매출액: US\$ 100백만
 - 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단독

- 국내모기업
 - 모기업: LG상사
 - Add: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LG트윈타워
 - Tel: (02) 3773-5114
 - Fax: (02) 3773-5446
 - Pres: 이수호

□ LG전자(마나우스) : LG Electronics Da Amazonia Ltda.

- Add: Av. Javari, S/N-Distrito Ind., Zip 69075-110, Manaus, AM, Brazil
- Tel: (55-92) 3616-8700
- Fax: (55-92) 3616-8787
- E-Mail: cbcho@lge.com
- Home Page: www.lge.co.kr
- Pres: 조중봉/C.B Cho

- 주요 현황
 - 업종: 제조업
 - 취급분야: TV, VCR, MWO, DVD, REF, A/C
 - 진출형태: 현지법인

- 진출연도: 1996년
- 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15 : 850
- 설립자본금: US\$ 37,750천
- 연간매출액: US\$ 2억(00)
- 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단독

○ 국내모기업

- 모기업: LG전자(주)
- Add: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LG트윈타워
- Tel: (02) 3777-3357
- Fax: (02) 3777-3400
- Pres: 김쌍수

○ 국내모기업

- 모기업: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 Add: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 Tel: (054) 220-0114
- Fax: (054) 220-6000
- Pres: 이구택

□ 코브라스코 : KOBRASCO:Companhia Coreano-Brasileira de Pelotizacao

- Add: Av. Dante Michelini 5500, Jardim Camburi, Ponta de Tubarao, Vitoria, ES, Brazil
- Tel: (55-27) 3333-5984
- Fax: (55-27) 3333-4762
- E-Mail: wwjeon@posco.co.kr
- Home Page: N.A.
- Pres: 전원우/W.W Jeon

○ 주요현황

- 업종: 제조업
- 취급분야: 제철원료(Pellet)
- 진출형태: 합작투자
- 진출연도: 1995년
- 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3:95
- 설립자본금: US\$70,000천
- 연간매출액: US\$130,000천
- 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50:50

○ 국내모기업

- 모기업: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 Add: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 Tel: (054) 220-0114
- Fax: (054) 220-6000
- Pres: 이구택

□ 한국 수출보험공사 :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Sao Paulo Rep. Office

- Add: Av. Paulista, 453, CJ 21, Paraiso, Zip 01311-000,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3284-1105
- Fax: (55-11) 3284-4081
- E-Mail: chj0133@keic.or.kr
- Home Page: www.keic.or.kr
- Pres: 조한중

○ 주요현황

- 업종: 금융업, 공공기관
- 취급분야: 수출보험
- 진출형태: 사무소
- 진출연도: 1994년
- 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2 : 1
- 설립자본금: N.A.
- 연간매출액: N.A.
- 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단독

○ 국내모기업

- 모기업: 한국수출보험공사
- Add: 서울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18층
- Tel: (02)399-6800
- Fax: (02)399-6882
- Pres: 임태진

□ 한국타이어 : Hankook Tire Do Brasil Com. Ltda.

- Add: R. Funchal, 573, Cj. 43/44,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3044-2697
- Fax: (55-11) 3045-2119
- E-Mail: leonardo@hanta.co.kr
- Home Page: www.hankook.com.br
- Pres: 오대환/D.H Oh

○ 주요현황

- 업종: 제조업
- 취급분야: 타이어, 튜브, Flap, 휠
- 진출형태: 투자법인
- 진출연도: 1994년
- 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2 : 3
- 설립자본금: US\$ 600천
- 연간매출액: US\$ 40백만
- 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단독

- 국내모기업
 - 모기업: 한국타이어(주)
 - Add: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5
 - Tel: (02) 2222-1000
 - Fax: (02) 2222-1100
 - Pres: 조중환

□ 한진해운 : Hanjin/Senator Lines do Brasil Ltda.

- Add: Av. Nacoes Unidas 12551, Cj. 1808, Zip 04578-000, São Paulo, SP, Brazil
- Tel: (55-11) 3043-7679
- Fax: (55-11) 3043-7875
- E-Mail: yilim@hanjin.com
- Home Page: www.hanjin.com
- Pres: 임영준/Y.J Lim

- 주요현황
 - 업종: 서비스업
 - 취급분야: 해상운송업
 - 진출형태: 현지법인
 - 진출연도: 1997년
 - 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1 : 30
 - 설립자본금: US\$ 20만
 - 연간매출액: US\$ 40백만
 - 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Senator Lines(독일)

- 국내모기업
 - 모기업: (주)한진해운
 - Add: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진해운빌딩 25-11, P.O.Box 843
 - Tel: (02) 3770-6114
 - Fax: (02) 3770-6746
 - Pres: 우수호

□ 유코카캐리어스 : Eukor Car Carriers

- Add: R.Tabapua,111, cj 21/22, Zip 04533-0101,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3168-9276
- Fax: (55-11) 3168-9276
- E-Mail: hskim@eukor21.com
- Home Page: www.eukor21.com
- Pres: 김학수/H.S Kim

- 주요현황
 - 업종: 서비스업
 - 취급분야: 해상운송
 - 진출형태: 지사

- 진출연도: 1994년
- 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1 : 0
- 설립자본금: N.A.
- 연간매출액: US\$ 40천
- 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단독

○ 국내모기업

- 모기업: 현대상선주식회사
- Add: 서울 종로구 적선동 66
- Tel: (02) 732-6935
- Fax: (02) 733-8675
- Pres: 노정익

□ 효성 : Hyosung Do Brasil

- Add: Av. Paulista, 1439, Conj. 154, Cerqueira Cesar, Zip 01311-200,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3284-6954
- Fax: (55-11) 3285-1957
- E-Mail: hohi@hyosung.com
- Home Page: www.hyosung.co.kr
- Pres: 양상훈/S.H Yang

○ 주요현황

- 업종: 제조업, 무역업
- 취급분야: 섬유원료, 기계류, 화학원료 등
- 진출형태: 지사
- 진출연도: 1993년
- 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1 : 3
- 설립자본금: US\$ 700천
- 연간매출액: US\$ 20백만
- 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단독

○ 국내모기업

- 모기업: (주)효성
- Add: 서울 마포구 공덕동 450
- Tel: (02) 707-7000
- Fax: (02) 707-0130
- Pres: 조석래

□ 제본 : JEBON DO BRASIL LTDA

- Add : Av. Giovanni Gronchi, 5443 sala11, Morumbi,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3749-0676
- Fax: (55-11) 3743-6487
- E-Mail: jebon@terra.com.br
- Home Page: www.jebon.com
- Pres: 유헌근

- 주요현황
 - 업종: 전자부품
 - 취급분야: Printed circuit boards, LCD/LED display, Power supply, Detonator, Power cables
 - 진출형태: 현지법인
 - 진출연도: 2001
 - 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1 : 1
 - 설립자본금: US\$ 200천
 - 연간매출액: US\$-
 - 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단독
- 국내모기업
 - 모기업: JEBON CORP.
 - Add: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텍크노빌 7 - 9 floor.
 - Tel: (031) 902-9161
 - Fax: (031) 902-7775
 - Pres: 박두희

□ 제일제당: CJ do Brasil Ltda

- Add: R. Samuel Morse, 74, Ed. Igarata, Ch. 102/103, Cidade Moncoes, Zip 04576-060,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5501-2075
- Fax: (55-11) 5501-2070
- E-Mail: harryjang@cj.net
- Home Page: www.english.cj.net
- Pres: 권오석
- 주요현황
 - 업종: 기타
 - 취급분야: 동물용 아미노산 (바이오)
 - 진출형태: 법인-단독
 - 진출연도: 2005년
 - 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15:250
 - 설립자본금: US\$ 6천
 - 연간매출액: US\$ -
 - 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단독
- 국내모기업
 - 모기업: CJ (주)
 - Add: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00 CJ 빌딩
 - Tel: (82-2) 726-8114
 - Fax: N/A
 - Pres: 김진수

□ 한국산업은행: Banco KDB do Brasil S/A

- Add: Av. Brigadeiro Faria Lima, 3400, Cj. 152, Ed. Faria Lima Financial Center, Itaim Bibi, Zip 04533-030, São Paulo, SP, Brazil
- Tel: (55-11) 2138-0000
- Fax: (55-11) 2138-0150
- E-Mail: pcb901@kdb.co.kr
- Home Page: www.kdb.co.kr
- Pres: 박병철

- 주요현황
 - 업종: 금융
 - 취급분야: 금융업/은행업
 - 진출형태: 법인-단독
 - 진출연도: 2005년
 - 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4:9
 - 설립자본금: US\$: 30.000천
 - 연간매출액: US\$-

- 국내모기업
 - 모기업: 한국산업은행
 - Add: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 Tel: (82-2) 787-6000
 - Fax: (82-2) 787-6016
 - Pres: 김창록.

□ 오토닉스: Autonics do Brasil Ltda

- Add: R. Geraldo Flausingo Gomes, 42, Cj. 121, Zip 04575-060,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5505-0010
- Fax: (55-11) 5506-3869
- E-Mail: vendas@autonics.com.br
- Home Page: www.autonics.com.br
- Pres: 권범수

- 주요현황
 - 업종: 도/소매업 (무역)
 - 취급분야: 전자 통신
 - 진출형태: 법인-단독
 - 진출연도: 2005년
 - 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1:2
 - 설립자본금: US\$ N/A
 - 연간매출액: US\$ N/A

- 국내모기업
 - 모기업: 오토닉스
 - Add: 경남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41-5번지
 - Tel: (82-55) 371-5000
 - Fax: (82-55) 372-4431
 - Pres: 박환기

□ 팬택: Pantech Brasil Ltda

- Add: Pc. Joao Duran Alonso, 34, 3rd. Fl. Cidade Moncoes, Zip 04571-070, Sao Paulo, SP, Brazil
- Tel: (55-11) 5504-7700
- Fax: (55-11) 5504-7701
- E-Mail: pantech@pantechbrasil.com.br
- Home Page: www.pantechbrasil.com.br
- Pres: 김기선

- 주요현황
 - 업종: 제조업
 - 취급분야: 전자, 통신장비
 - 진출형태: 법인-단독
 - 진출연도: 2005년
 - 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12:40
 - 설립자본금: US\$ 3.469천
 - 연간매출액: US\$ 2.700천

- 국내모기업
 - 모기업: (주) 팬택
 - Add: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2, 신송센터
 - Tel: (82-2) 3660-5800
 - Fax: N/A
 - Pres: 이성규